금주의 법구-〈대열반경〉
겉이 그럴듯해서 좋은사람은 아니다
그 뜻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하느니
겉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5월 18일)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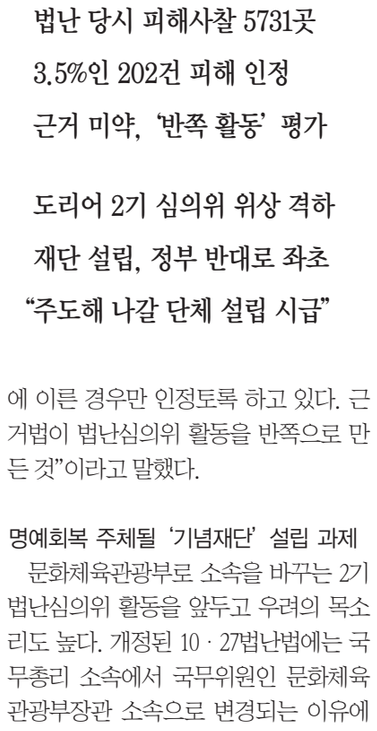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02호 2016년 6월 22일 수요일

새 체제 맞는 10·27법난위 '기념재단' 건립 선결과제

법난심의위 20일 1기 해단…7월 문광부 소속 2기 출범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법난심의위)가 6월 20일 8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한다. 법난심의위는 6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에서 명예회복 사업을 위해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변경하며 활동을 잠시 종료한다"고 밝혔다.

법난심의위는 지난 2008년 12월 30일 10 · 27법난 피해자 및 피해단체의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이 반포되며 출범했다. 2010년 6월 30일까지가 당초 활동기한이었으나 활동기한이 짧다는 지적에 1차와 2차 법률개정을 통해 올해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 2013년 8월에는 피해 조사 마무리와 명예회복 진행에 따라 소관부처가 국방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됐고, 7월 1일 부로 문광부 소속으로 최종 변경되는 것이다.



2008년 출범 후 8년간 활동
법난 당시 피해사찰 5731곳
3.5%인 202건 피해 인정
근거 미약, '반쪽 활동' 평가

도리어 2기 심의위 위상 격하
재단 설립, 정부 반대로 좌초
"주도해 나갈 단체 설립 시급"

피해사실 파악 및 심의 주력한 1기

1기 법난심의위 활동에서는 피해사실 파악 및 피해자 의료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8년의 기간동안 202건이 공식 피해사례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는 96명으로 이중 54명에게 의료지원이 이뤄져 총 7억 4,965만원이 지급됐다. 또 조계사 등 52개 사찰과 유관단체가 피해단체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법난심의위가 처리한 피해건수는 법난 직후 발표된 수사내용에 비춰볼 때 매우 적은 것이다. 10 · 27법난 직후 합수단은 연행된 인원이 1929명에 수사한 사찰과 암자가 총 5731개라고 발표했다. 피해자 인정이 채 3.5%가 되지 않는다.

법난심의위 측은 "기록은 있지만 정작 피해신고가 126명에 불과했다. 스님 신분인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기피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또 법난 후 29년 만에 이를 조명하며 고령의 관련자들이 입적하는 등 외부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활동이 저조한 데에는 법난심의위 활동의 근거가 미약한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된다.

10 · 27법난 관련 법령을 연구한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10 · 27법난법에는 위원회의 직권조사와 피해자 의료지원 외 배 · 보상에 관련 근거조항이 없다. 피해자 인정도 상이나 사망에 이른 경우만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근거법이 법난심의위 활동을 반쪽으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명예회복 주체될 '기념재단' 설립 과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소속을 바꾸는 2기 법난심의위 활동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개정된 10 · 27법난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 '그 기능을 축소하려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난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2기 법난심의위는 피해측인 조계종에서 2인, 정부인사 4인, 민간인사 5인 등 11명으로 1기 법난심의위와 대동소이하게 구성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위원회 급이 격하돼 구성인사는 차관급에서 실장급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인사의 직급도 따라 낮아진다.

이와 함께 위원회를 대체할 기념재단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5 · 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는 대부분 기념재단이 설립돼 명예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2015년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했고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해 19대 국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과거사 문제를 연구해 온 이철호 남부대 교수는 "주체가 될 재단이 없는 명예회복 사업은 단기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또 법난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자칫 조계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교과서 수록, 기념일 제정, 언론사 정정보도, 대국민 홍보 등 과제가 많다. 이를 풀기 위해서라도 주도해 갈 단체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용구 조계종 기획실 차장은 "기념재단 설립은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지만 문광부 차관이 설립을 공언한 상황"이라며 "이와 함께 피해자 예우에 대한 법률 등 근거법령을 점검해 필요시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 지현 스님은 "1기 해단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10 · 27법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0 · 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 및 불교관련자들을 강제로 연행 · 수사한 사건이다. 연행된 이들은 고문을 받기도 했다. 현재 10 · 27법난기념관 부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건평 2만 1,158㎡ 규모로 준공된다. 내부에는 피해자 행장, 동판 명단 등이 전시되며 기념관 내 피해자 요양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온 세상이 도솔천 되길 바라며"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에서 진행하는 '후원 프로젝트 만클릭'이 100회를 맞았다. '만클릭'은 매월 3만원을 후원하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1만원은 회원인 '나'를 위해, 또 1만원은 소외계층인 '너'를 위해, 나머지 1만원은 행복한마을 불사금으로 사용된다. 이에 행복한마을은 6월 11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친견하고, 만클릭 100회 당첨자를 추첨했다. 당첨자 이이순 회원은 직접 선행할 곳을 지정하고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하성미 기자**

경주 황룡사지 사격 확인 '청신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17일 발굴 현장 보고

동서 · 남북 도로 각각 확인
동궁과 분황사로 연결돼
대지는 늪을 메워 만들어져
村主명문 청동접시 첫 출토



황룡사지 남쪽 외곽 정비현장에서 발굴된 동서도로와 석렬배수로의 모습. 신라 왕경의 생활상과 황룡사의 사격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다.

경주 황룡사와 인근 왕궁, 분황사를 연결했던 도로 시설과 사찰이 건립됐던 대지 축조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됐다. 황룡사의 사격과 당시 신라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발굴성과다.

문화재청과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6월 17일 황룡사 남쪽 담장 외곽 발굴현장 설명회를 열고 그간의 발굴 성과를 발표했다.

조사지역에서는 황룡사와 동궁을 연결하는 동서도로와 황룡사 동쪽에서 분황사로 연결되는 남북도로가 확인됐다. 도로면에는 20~30㎝ 정도의 굵은 돌을 깔아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잔자갈을 깔아 노면으로 사용했다. 도로의 한쪽에는 너비 100㎝, 깊이 40~100㎝의 배수로를 설치했다. 이후 배수로를 메워 도로를 확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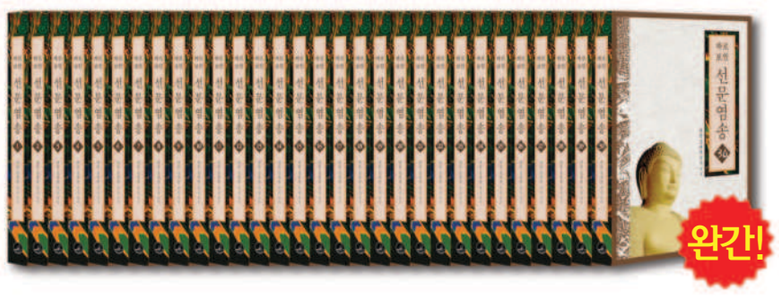
일부 지역에 한해 발굴조사가 이뤄진 탓에 도로 전체와 도로에 맞닿아 있는 광장의 전모는 드러나지 않았다. 단계별 조사를 통해 도로와 광장에 대한 윤곽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신라왕경(2002)과 황룡사 주변지역(1985)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장은 너비 약 50m, 도로는 너비 약 15.5m다. 동서도로가 황룡사에서 동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황룡사의 대지는 습지를 매립해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쪽에서 북쪽,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30도 정도 경사지도록 흙을 교대로 다지면서 쌓았다. 바닥에는 굵은 돌을 깔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갈층을 반복해 다져 놓아 배수처리를 하는 등 신라 시대 토목기술의 진수를 드러낸다.

흙을 쌓은 성토층 아래 습지에서는 6세기 무렵의 토기편이 출토되고 있어 진흥왕 시기의 황룡사 창건 기록과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곽 정비사업 터에서 '달온심촌주(達溫心村主)'라는 촌주 이름이 새겨진 청동접시가 출토됐다. 촌주(村主)는 지방민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의 유력자에게 부여한 신라의 말단 행정관직이다. **신성민 기자**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종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화엄경 81권 출간 불사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 각 권과 각 품마다 토끼뿔 자문자답으로 선미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전자출판으로 1, 2, 3권을 무료로 선공개할 예정이니, 읽어보시고 과연 명안종사의 역저여서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제 14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19~30일까지 접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2016년 제 14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大圓賞)은 고(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 포교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으로, 포교대상·콘텐츠대상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상금 총액 5,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포교대상은 출가 부문과 재가 부문에 대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한 스님 및 재가 개인 또는 단체 3인(곳) 이내를 시상하며, 상금 총액 4,000만원 이내를 수여하는 콘텐츠대상은 불교 미디어 영상포교 자원 개발과 지원을 위해 불교의 현대화에 기여할 내용(주제 및 소재)의 텍스트·이미지 콘텐츠 분야와 오디오·영상 콘텐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서 소정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은 모범적으로 정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해 매년 시상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 특별상은 5백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02)719-2606 **김주일 기자**

출가자 감소 해법 찾기, 전방위 모색

출가제도개선특위 13일 첫 회의… 현황 파악 진행

급감하는 출가자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조계종 전 종도가 힘을 모은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는 6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출가제도에 대한 현황을 먼저 파악한 후 개선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제205회 임시회에서 특위가 구성된지 3개월 만에 열린 것이었다. 회의에는 위원장 만당 스님과 수암, 화림, 재정, 재안, 우봉, 도수, 혜일, 진각 스님 등 9명이 참석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출가개선 간담회 및 세미나, 공청회 등을 열고 조계종 전 종도들의 여론을 모아 출가제도 변화를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출가 진흥을 위해서 출가제도 뿐만 아니라 출가 이후의 교육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15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으로 규정된 현행 출가제도와 외국인 출가, 귀종승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된다. 또 행자교육 및 기본교육과정도 검토된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교육원의 현황보고 후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간사로 우봉 스님(호압사 주지)이 선출됐다. **노덕현 기자**

그림 속에 담긴 철학과 신화

조계종 교육원, 7월 6~8일 연수 '철학으로 그림 읽기' 시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2016년 승려교육연수 인문·과학·문화 과정의 일환으로 '철학으로 그림읽기'를 개최한다.

그림으로 표현되어 온 신화들과 철학의 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이번 불교강좌에서는 이주향 수원대 교양학부 교수가 강사를 맡는다.

강좌는 총 6강으로 진행되며, 주요 강의 주제로는 △니체는 왜 신화에 주목했을까 △니체의 차라투스트라 △아폴론적 인간, 디오니소스적 인간 △우리 속의 여신의 유형 △우리 속의 남신의 유형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 등이 진행된다.

교육원은 "신화는 삶의 원형이며, 문화의 원형이다. 신화를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인류문화의 정신적 지향성을 읽는 것"이라며 "그리스 신화 나아가서 유럽 신화를 들여다보면 세계 신화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아가서 인류가 가진 정신적인 지향의 지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좌 접수는 연수교육 사이트(monkedu.buddhism.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02)2011-1807 **신성민 기자**

"대중화·표준화, 수행프로그램 발전 과제"

조기룡 교수, 〈선학〉 기고논문서 주장



재가불자와 일반 시민들이 여법하게 불교 수행을 접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통일성, 철저한 수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사진〉는 한국선학회 학술지인 〈선학〉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불교 수행별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간화선·절·염불·주력·독경·사경·위빠사나 등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들을 분석하고 △불분명한 운영 목적 △체계화·표준화 미비 △지속적 운영 부족 △수행 점검과 지도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당 수의 일반 사찰들은 참선이나 절, 염불, 주력 등이 법사 스님의 경험과 직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특정 수행의 원리에 따른 통일적 짜임새가 없이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교 수행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행 횟수, 시간, 자세 등에 대한 교단적·종단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행 점검에 중요성에 대해서는 "근래 한국불교에서는 수행에 대한 점검과 지도가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지만, 수행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수행을 통해 얻은 체험을 법사 스님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체계를 갖춘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수행자의 수행을 점검하고 지도해주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선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좋은 불교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불교적 정체성을 담보하고 대중적이면서 생활에 긴밀히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대중의 요구에 편승함을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수는 "요즘 불교 수행의 참여를 요가원이나 건강센터에 회원권을 발부받아 들어가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불교 수행프로그램 개발은 불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실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선 사찰 수행프로그램 분석

표준화 미비·운영 지속성 부족

유사 수행법부터 정체성 지키고

대중화된 표준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도 해결할 숙제

대중화와 생활화에 앞서 수행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조 교수는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단위 사찰이나 소규모 조직, 개인 등이 불교 수행을 실참할 수 있도록 제반 수행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되게 하는 것이 표준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 수행법과 종지종풍이 일치하는 종단이 해당 수행법의 기준을 통일되게 정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수행 전문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도자가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최근 제3수행법들은 자신들이 불교를 차용했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도 불교적 용어를 이용해 자신의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불교계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교 수행프로그램 전문 지도자들은 수행법의 불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전부지 환수 상징 '한전법당' 철거 되나

서울시 강제철거 계고장 발송

환수위 "강력 대응"



서울시청광장에 설치된 한전부지 천막농성장. 이른바 '한전법당' 철거를 두고 서울시와 환수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천막농성장, 이른바 '한전법당' 철거 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조계종 종무원들이 교대로 기도정진하고 있는 한전법당은 조계종 한전부지 환수 의지의 상징이다.

서울시는 6월 13일 '한전법당'의 무단 점거에 대한 철거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무단점거에 대한 변상금을 함께 부과했다.

서울시청 광장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13일 천막농성장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며 "서울시의 광장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무단시설물에 대한 처리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계고장에는 서울광장 내 천막 등을 6월 20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관계자는 "철거 계고 이후 미철거 시 영장 발부 및 행정 집행이 이뤄진다"며 "무단 점거 56일분에 대한 변상금도 1차로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차 변상금은 3월 24일 오후 5시부터 5월 17일 24시까지의 점거에 대한 부분으로 총 916만원이다.

이에 대해 환수위 관계자는 "11일 새벽 서울시 예수재단 시설물 철거 당시에도 한전법당 철거 시도가 있었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철거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막법당은 부처님이 계신곳으로 불법점거물이라는 이유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묵묵부답속에 현대차로부터 한전부지 공공기여금을 전제로 여러 가지 평가를 생략한 광속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또다른 정경유착"이라며 "한전법당 철거시 제2, 제3의 법당을 세우고 정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산불교聯 16일 밀양공항 반대성명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로 영남지역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산불교계가 밀양신공항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6월 16일 성명을 통해 "신어산, 무척산을 포함한 27개 산과 20여 사찰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다"며 "김해 신어산과 무척산은 다양한 불교 전통 문화를 간직한 곳으로 밀양공항이 들어서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밀양공항 추진 지자체는 2011년도 계획과 달리 4개 산봉우리만 절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입지선정을 위한 미봉책이며, 결국 항공사고 위험으로 더 많은 산봉우리를 절개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1년 입지선정 당시 밀양 입지를 주장한 대구불교총연합회는 뚜렷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 연합회 한 관계자는 "영남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부산 불심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입장을 내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성미 기자**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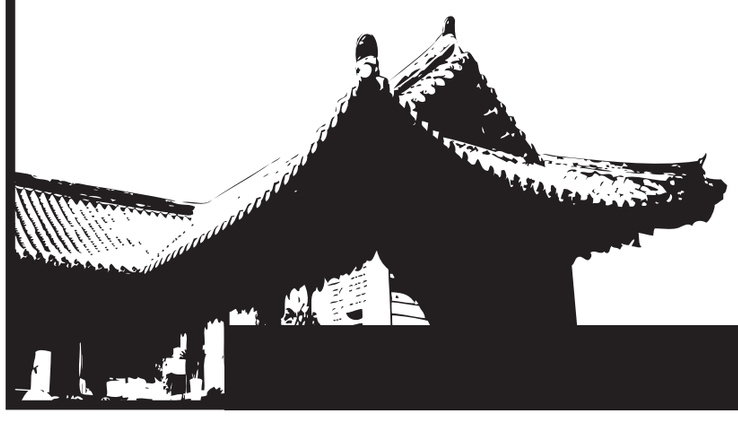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막무가내 아파트 공사, 천년고찰 붕괴 위기

성남 봉국사 인근 공사로 문화재 대광명전 훼손 파문







맨 위 사진 왼쪽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K아파트 공사현장, 가운데는 요사채, 사진 오른쪽이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인 대광명전이다. 사진 아래쪽은 사찰 곳곳의 훼손된 장면.

아파트 공사현장서 불과 30m
진동으로 인한 균열 사찰 곳곳에
중단 요청에도 시공사 철거 강행

한 건설사의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천년고찰이 붕괴위험에 처했다.

성남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6월 16일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해 대광명전을 비롯한 경내 주요 전각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성남 봉국사는 고려 현종 19년인 1028년 창건된 천년고찰이다. 특히 이번 공사로 균열이 심하게 발생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 대광명전은 성남이 단 두 개만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급 목조건축물이다. 그 가치로 인해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최근 봉국사는 대광명전의 보물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올해 3월 봉국사 인근 K아파트에 재건축 공사 허가가 나면서부터다. K아파트는 봉국사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5층짜리 아파트로 봉국사와 담장을 맞대고 있다. 재건축조합 측은 2012년 재건축 인허가 후, 2016년인 올해 15층 아파트로 수정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봉국사 주지 혜일 스님은 "6월 4일 토요일 오전 8시경 굉음이 발생했다. 요사채를 비롯한 전각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에 불안을 느껴 살펴보니 대광명전을 비롯한 경내 전각 곳곳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철거 공사 이후 측면과 후면에 1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상태다. 이에 봉국사 측은 6월 8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11일 시공사인 두산건설측 현장소장과 재건축조합장을 만나 문화재 훼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두산건설 측은 6월 15일 새벽 5시 크레인을 이용해 아파트 상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등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혜일 스님은 "재건축에 민원을 제기한 인근 건물과 달리 조합원도 불자들이란 생각에 원만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재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시공과 15층 높이의 아파트 완공시 수행환경이 크게 침해되기에 이번 공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스님은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번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에 성남시청 문화관광부 문화재보존팀은 사태 파악에 나섰다. 6월 16일 균열부위를 조사한 조승연 문화재보존팀 학예연구사는 "균열을 확인했다. 균열이 커진다면 건물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파장이 확산되자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은 16일부터 철거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시공사 측 현장소장은 "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철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 영향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학생포교, 대학생만의 문제 아냐"

성태용 교수, 대불련 활성화 세미나서



"대학생포교가 위기상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각 대학교 불교학생회가 거의 고사상태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하지만 이것을 대학생불자만의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사진)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대불련 활성화 프로젝트 연구경과 보고회 및 세미나'에서 '대학생 불자들에 대한 불교교육의 방향'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대학생포교의 현실을 짚고, 미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가 주최한 자리에서 성 교수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기성세대가 갖춰야할 자세를 설명했다.

성 교수는 "유치원, 사찰 어린이법회, 청소년법회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전후 맥락을 떼어내고 대학생포교만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대학생포교 현장의 문제들은 그 이전 단계부터 생긴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연관성 속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생 불교교육은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어야 한다. 즉 한때의 열정이 아닌 삶에서 힘이 되는 종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비로자나 부처님 가피 모두에 충만하길"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건립 중인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고등학교에 모셔질 비로자나 부처님 점안식이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거행됐다. 자승 스님은 "크나큰 지혜와 광명으로 세상 모든 것을 참된 깨달음으로 이끄는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해, 맑고 깨끗한 본성으로 모든 생명이 안락하길 바란다. 아프리카 청소년들도 그 뜻을 이어 근면성실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실크로드 寶庫 '돈황' 모든 것을 담다

금강대 불문연 · 고려대 민문연, 〈돈황학 대사전〉 발간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

중국의 문화사 연구의 대가 지센린(季羨林)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역사 · 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라는 의미다.

'불교 문화의 보고'이자 '동서문화의 십자로(十字路)'였던 돈황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돈황학 대사전〉의 한국어 번역판이 발간됐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원장 조성택)은 인문한국(HK) 공동 사업의 결과물인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을 내놨다.

2012년 공동 번역을 합의한 두 기관은 그해 8월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후 약 3년 6개월 동안 번역과 교정을 진행했다. 번역은 철학, 역사, 종교, 문학, 미술, 건축 등 각 분야 전문 연구자 22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번역의 특징 중 하나는 두 연구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진행됐다는 점이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경전, 불교 벽화, 전적, 미술 등 불교 관련 분야를 맡았으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역사, 어문학, 도상, 복식, 관련 저작, 연구자 등의 분야를 번역했다.

이에 대해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240만 漢字 · 6900여 표제어 사용
돈황학 'A to Z' 담아낸 대사전
中 13년 집필 거쳐 1998년 출간

"하나의 출판 성과를 위한 두 대학 HK 사업단의 공동 연구 협의와 사업 진행은 이전에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라면서 "이 같은 과정은 향후 연구지원 사업의 공동 수행에 있어서 좋은 선례와 경험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돈황학 대사전〉은 중국돈황투르판학회, 돈황연구원, 상해사서출판사의 합작으로 13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집필을 거쳐 1998년에 출판됐다. 이 작업에는 원로부터 중견, 청년학자까지 중국 · 대만 · 러시아 등 돈황학 연구자 120여 명이 참여했다. 당시 집필에 참여한 신진학자 롱신장(榮新江), 왕산칭(王三慶), 정아차이(鄭阿財) 등은 중국과 대만의 돈황학을 이끌고 있다.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 · 설법도 · 경변도 · 불교 전적 · 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 · 법률 · 경제 · 복식 · 음악 · 천문학 · 민속 · 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딸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이 첨부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 의미에 최은영 금강대 교수는 "7000개에 가까운 표제어의 분류 항목에서 보이듯이 〈돈황학대사전〉은 불교를 중심으로 당시 역사 · 철학 · 예술 · 어문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20여 명의 번역자와 두 대학 사업단이 함께 하는 작업이라 통일안을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여러 난관들이 있었다, 하지만, 향후 돈황학과 관련학문 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학술서를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무용 발전, '글로벌 브랜드화' 필요"

법현 스님, 14일 불교무용대전 세미나서 주장

한국불교 무용의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과 글로벌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 법현 스님은 6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불교무용대전 기념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불교 무용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법현 스님은 불교 전통 무용의 전승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짚었다.

스님에 따르면 사찰에서 진행되는 재의식 사용되는 작법무는 나비춤 18가지, 바라춤 7가지, 법주춤, 차주춤 등이다. 이들 의식무용은 범패와 장엄등 음악, 무용, 미술 등 복합적 요소를 내포하며 전승된다.

법현 스님은 "불교무용은 전통적 전승과 창작 및 문화 콘텐츠 개발로 범주가 확대되고 있지만, 발전을 위해서는 이론 정립과 세계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결 과제로는 △고정 프로그램화 △불교무용 사학기관 및 불교무용학과 설립 △유능한 전승자 육성 △국내외 적극적 마케팅 등을 꼽았다. **신성민 기자**

제1차 평온 공개강좌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이 시대의 현성공안 만을
선정하여 라이브로 공개강좌하다

암(癌)은 깨달음과 무슨 관계인가?

• 제1차 공개강좌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5시(2시간)
• 공 개 강 좌 장 소 : 화엄경 강원
• 참석대상 및 참가비 : 누구나, 선착순 30명 제한, 참가비 무료
(예약 접수하신 분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 예 약 신 청 및 문 의 : 1899-9532

평온센터 부설
화엄경 강원
방장 진귀





“출가는 고통 벗어나는 선택지”

“끝없는 이타행이 출가정신”



Interview

출가동영상 공모전 수상자 정은혜 · 조동성 씨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고, 따라서 힘들 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출가(出家)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정은혜 · 사진 오른쪽)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세상을 향해 자비를 실천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조동성 · 사진 왼쪽)

올해를 ‘출가 진흥 원년’으로 삼은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공모전을 실시, 6월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00일에 걸쳐 실시한 공모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정은혜 씨(데일리TV 사원)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동성 씨(크리에이티브 이스트 PD)는 각각 불자가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출가에 대한 이미지를 풀어냈다.

정 씨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한 출가’라는 작품에서 애니메이션 기법을 활용해 생로병사를 겪는 인간이 출가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표현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나를 위한 길’에 초점을 맞춰 출가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조명했다.

정 씨는 “제가 대상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작품이 많아 부끄럽다. 공모전에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 조계종의 출가진흥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힌 뒤 “먼저 ‘불교’를 생각했을 때 산속이나 고립 등이 떠올랐는데 출가에 대해 알아보면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어 “맨 처음 출가포스터를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다. 특히 포스터에 등장한 스님들이 일반 모델이라고 착각할 만큼 자연스럽고, 출가에 대한 부드러운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면서 “공모전을 준비하며 출가콘서트에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출가가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됐다. 따라서 출가라는 선택이 행복의 길에 들어서는 하나의 방법임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웹서핑을 통해 공모전을 알게 됐다는 정 씨는 공모전 작품을 제작하며 단기출가에도 관심이 생겼다. 정 씨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일반인 눈으로 풀어낸 출가
공모 준비로 불교 가까워져
“출가진흥사업에 도움 되길”

그동안 전혀 알지 못했던 출가에 관심이 생겼다. 단기출가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조 씨는 ‘출가’라는 작품에서 출가수행자의 이타행을 강조했다. 그는 영상에서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모습과 〈숫타니파타〉를 인용한 문구를 통해 남을 먼저 제도하는 부처의 마음을 표현했다.

조 씨는 “동국대를 졸업한 인연 덕에 불자 친구들이 공모전 참가를 권유해 작품을 만들게 됐다”면서 “대학시절 불교강의를 들은 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 대중에게 심오한 메시지를 던지기는 힘들다고 판단해 수행자의 정신이 끝없는 이타행임을 알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또 “이 작품은 불자들과 출가를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타행 실천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출가동영상 공모전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전문직 종사자,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58편의 작품을 선보였다. 조계종 교육원은 수상작 6편과 가작 14편을 출가 홈페이지(monk.buddhism.or.kr)에 게재, 추후 출가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JSA법당 불사에 5억 원 ‘쾌척’

군종특별교구 등, 6월 14일 아름다운동행에



군법당 및 군법사들을 비롯해 전국 사찰 곳곳서 JSA 공동경비구역 근법당 불사를 위해 십시일반 힘을 모았다.

6월 14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재)아름다운동행 측에 JSA 근법당 지원금 2억 원을 전달했다. 또한 홍법문화재단 · 여래사 · 구룡사는 1억 원, 근법당 및 근법사 일동은 2억 원을 기부해 총 5억 원의 성금이 JSA근법당 불사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일붕 스님 열반 20주기 추모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선원 대법당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6월 13일 서울 신영동 일붕선원 3층 대법당에서 ‘세계초대법왕 일붕존자 열반 20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교육원장 승원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공 스님,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성 스님 등 종단임원 및 종도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노덕현 기자

“사회 소외계층 인권 위해 나설 것”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계환 스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많은 소수자와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인권을 살피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동국대 교수 계환 스님〈사진〉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6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라 후임으로 계환 스님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배경과 관련해 “계환 스님은 불교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여성 종교인으로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소수자들의 인권향상에 오랜 기간 헌신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회통합을 실천하고 인권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계환 스님은 “노인, 아동,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 사각지대에는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 부처님의 자비 사상이 바로 인권 사상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계환 스님은 법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하나조노대, 경도 불교대학원 석 · 박사과정을 수료,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장 · 중앙도서관장, 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등을 지냈으며,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 원교사 주지, 16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며 나머지 4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신축강당 기공

수련회 위한 공간으로… 개원 29주년 행사도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 신축강당 기공식 및 화합재가 6월 12일 경내에서 봉행됐다. 〈사진〉

신축강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500평 규모로 건립된다. 신행단체 수행공간과 공양간, 수련회 참가자 숙소, 수련회 강당 등이 들어서며 내년 8월 낙성 예정이다.

제주지원은 그동안 타 지방 선원에서 합동수련회 등을 제안했지만 제주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를 수용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타 수련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지원장 혜묘 스님은 “강당 건립을 통해 수련회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규 신도회장은 “강당불사가 원만히 회향하도록 신도들이 마음을 모아 다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사부대중은 대웅보전에서 기공식 현장으로 이동, 화합재 단에 초와 향을 올리고 3배를 한 후 시삽 하면서 불사가 원만성취 되길 기원했다. 이후에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개원 29주년을 맞아 한마음 한마당이 펼쳐졌다.

신도들은 합창 · 댄스 · 난타 · 전통무용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취미를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편 안양본원에서 온 국악신동 최 준 군의 감동적인 공연이 펼쳐졌다.

이병철 제주불교신문 기자

의성 고운사, 중창사적비 제막

일주문 뒤 고운노인요양원 앞에 세워



의성 고운사(주지 호성)는 6월 14일 고운사중창사적비를 제막했다. 사적비는 고운사 일주문 뒤 고운노인요양원 앞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암 스님, 각성 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등 30여 명의 스님들과 50여 대중이 참석했다. 사적비 붓글씨와 비문은 각성 스님이 썼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6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혜인 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 초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① 특차모집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10명	
박 사 과 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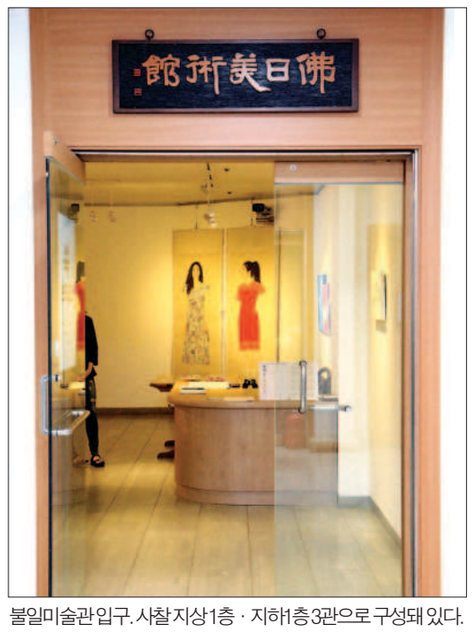
④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6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⑤ 문 의 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 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 총장 혜 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개관 20주년을 맞은 35평 규모의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 지하 1층 내부 전경. 스님과 불자가 현재 전시중인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불일미술관입구. 사찰지상1층 · 지하1층3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교미술 진흥 견인차… 새로운 도약 꿈꾸다

개관 20주년 맞은 법련사 불일미술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경복궁의 인근 삼청동과 사간동은 현재 문화 · 예술의 거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분관을 비롯해 유명 화랑들과 사립 박물관들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20년 간 불교미술 전문 상설전시관으로 이름을 떨쳤던 공간이 있다. 바로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내에 자리한 불일미술관이다.

첫 불교미술 상설전시관 태동

불일미술관은 올해로 꼭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1996년 3월 6일 개관한 불일미술관은 법련사 내 지상 1층(1관)과 지하 1층(2, 3관)에 걸쳐 총 3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일미술관의 역사는 법련사의 중창과 함께 이뤄졌다. 1974년 창건한 법련사는 20년이 지나면서 새로이 중창불사를 진행했고, 도심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했다. 고민을 통해 나타난 것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포교'였다. 당시에도 사간동 일대는 갤러리 현대, 국제화랑, 아트스페이스 서울 등이 자리하고 있었고, 금호미술관이나 선재미술관 등도 개관을 앞둔 시점이었다. 하지만 불교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미술관은 전무했고, 법련사는 사찰 내 미술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된다.

이 같은 원력은 불일미술관 개관 당시 밝힌 서울 법련사 회주 현호 스님의 일성에서 알 수 있다.

"우리가 느끼고 향유하는 문화 공간은 곧 삶의 공간이 돼야 합니다. 사찰도 전통과 현대문화를 고루 갖추고 사회에 회향하는 열린 도량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개관 이후 불일미술관은 불교를 넘어 종교계 최초의 전문전시공간으로 주목을 받았고 불교미술품, 도예품, 시서화, 사진 등을 전시했다. 또 일반 작가들에게도 대관하며 미(美)의 거리에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불자가 아닌 일반인도 자연스레 법련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4년 12월에 열린 '가톨릭과 불교미술인의 만남' 전시회 개막식에 참가한 故법장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장익 주교의 모습.

1996년 문화포교 일환 개관
사찰 내 불교 미술관의 효시
근대 선지식 선묵전 시작으로
미술 전반 아우른 전시회 열어
신진 불교작가 발굴 · 지원 계획

장르 · 종교 넘나드는 새로운 전시

불일미술관은 개관 이후 20년 동안 다양한 전시를 진행해 왔다. 불일미술관의 첫 전시는 1996년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 '근세고승유묵전'이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47명의 선지식들의 유묵을 만날 수 있었던 전시회에는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스님이 혜월 스님에게 준 전법게와 개화운동가 동인 스님의 서간문 등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후 효봉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전(1996), 목아 박찬수 작가 40년 회고전(2002) 등과 같은 굵직한 전시회와 사경 · 도예 · 불화 ·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의 전시회가 열렸다.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는 전시회도 불일미술관을 통해 2004년 12월에 열렸다. (사)불교문화사업기획단이 '가톨릭과 불교 미술인의 만남'을 주제로 개최한 기획전시회에서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故법장 스님과 장익 천주교주교회의 총무가 직접 개막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전시에는 불교 측 11명, 가톨릭 측 12명의 국내 정상급 작가가 참여해 30여 작품을 선보였다.

2005년 7월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한국지부 개소 및 달라이라마 칠순을 기념하기 위해 본지가 주최한 '모래 만다라 특별전'도 불일미술관의 역사에 남을 전시다.

7일의 전시기간 중에 진행된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 사원의 스님들의 대형 모래 만다라 제작은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던 서옹 · 서암 스님의 선필(禪筆)과 선화(禪畵)를 처음으로 공개한 전시회도 불교계 안팎으로 회자됐다. 법련사가 직접 기획했던 선필전시회는 2000년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열렸다. 당시 서옹 스님과 서암 스님은 각각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당대의 불모(佛母)로 꼽히는 석정 스님과 대표적 선화가인 수안 스님, 달마도의 대가인 청광 스님 등도 선화를 곁들여 전시를 빛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제150호 김정옥 씨를 비롯해 신정희, 천한봉 씨 등 유명 도예가들도 전시에 동참해 두 스님의 선묵을 장엄하기도 했다.

"불교미술 진흥위해 노력"

개관 20주년을 맞은 불일미술관은 현재 새로운 도약 준비 중이다. 바로 신진 불교작가 발굴과 지원이다. 이는 최초의 불교 및 종교 전문 상설미술관으로서 위용을 공고히 다지기 위한 불일미술관의 원력을 보여준 것이다.

지난 6월 8일 신진작가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작품성과 창작성이 돋보이는 12명(단체 포함)의 작가가 선정됐다. 이들 작가들은 무료 대관을 통해 6개월 간 릴레이 형식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다. 현재는 6월 14일 개막한 동국대 대학원 한국화 그룹전 '쓱보러와요'가 26일까지 진행 중이다.

그룹전에 참여 중인 강가연 작가는 "전문 작가를 꿈꾸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전시회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대관료가 만만치 않다"면서 "그냥 일반 갤러리에서는 전시회를 해도 별로 사람이 오지 않지만, 불일미술관과 같은 사찰 미술관은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이어서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지 진경 스님은 "작가 발굴을 통해 일반미술은 물론 불교미술의 젊은 작가들을 위한 창작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지원금 등 작가들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돌 미술관, '청년다운' 활동 전개"

서울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작가 공모 · 지원 중요하지만
지속성 관건, 종단적 관심을
올해 말 종교 화합 주제로
기획 전시회도 계획 중

"중창 당시 법련사가 미술관을 개관한 것은 도심포교당으로서 시대 상황을 반영한 창조적 불사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문화 예술 거리로서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에 불교 전문 미술관을 개관해 불교 미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잘 유지 · 발전 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사진〉은 불일미술관 개관 20주년의 의미에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앞선 선지식들이 일궈놓은 성과물들을 잘 가꾸고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현재 진경 스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미술 진흥이다. 개관 20주년 사업으로 '무료대관'을 걸고 신진 작가 공모사업을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50여 작가가 몰렸고, 이중 12명의 작가(팀 포함)를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선정인원을 조절하고 약간의 전시지원금을 보태려고 합니다. 이 같은 공모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이제 시작한 작가 공모는 잘 다듬으면, 불교계 유수의 공모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불자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진경 스님은 "20살 청년이 된 불일미술관이 나이에 걸맞는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올해 연말 쯤에는 종교화합을 위한 교류 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발전 방안이라고 내놓을 것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한 걸음씩 의미있는 전시를 통해 불일미술관의 위상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살 청년이 된 불일미술관의 '청년다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성민 기자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 네팔 성지순례

현지 국내 항공 4회 이용으로 품격있는 순례

성지순례일정 : 2016년 8월 26일(금) ~ 9월 7일(수) 〈13일〉

▶ 법회 일정 :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4일간 공부하면서 법회를 봅니다.





◆ 순례지도법사 – 성효스님
◆ 활동 사항
제 14, 15대 중앙종회의원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역임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순례 포인트

◆ 달라이라마 존자님 특별법회 4일
◆ 현지 국내선 4회를 이용한 편안한 순례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관광
◆ 한식 조리사 동행하여 한식 제공
◆ 네팔순례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 히말라야 산맥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9일 (금) 까지
● 구비서류 : 여권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사진 4매 (흰색배경 5×5cm)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 주 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 주 관 : 티벳자장연경원
● 안 내 : 불타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 인정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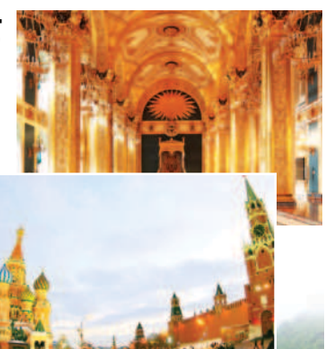
출발 확정 : 8월 18일 (목) ~ 8월 27일 (토) (10일)

러시아와 북유럽 3개국 탐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 러시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유럽 3국

러시아(모스크바, 상뜨페테르 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북유럽

여주 목아 박물관 박찬수 관장님과
함께 합니다.

불교 성지순례전문
불타 여행사 BUDDHA BOHEMIAN 02)733-9317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804호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라오스 內 스님 전용 학교 '첫 삽' 뜨다

월드머시, 6월 8일 착공 "일반학교 재학 어려운 점 고려"
2층 규모 약 120명 수용 可… 2017년 6월 완공 예정

월드머시코리아가 라오스 현지에 스님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고등교육을 실시, 라오스의 미래 불교 발전을 도모한다. 라오스에선 스님들이 여성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학교 재학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스님 전용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이다.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는 라오스 후아판 주(州) 쌈느아 시(市)에 '스님 학교'를 건립한다. 사진은 6월 8일 진행된 착공식 모습.

불교계 국제구호NGO 월드머시코리아(이사장 현진, 이하 월드머시)는 라오스 후아판 주(州) 쌈느아 시(市)에 '스님 학교'를 건립한다. 월드머시는 지난 3월 개최한 정기총회서 2016년 사업으로 '라오스에 승가 중 · 고등학교를 건립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라오스 응투시 분 흐앙 사이야람'이란 명칭의 스님 학교는 '응투 시 분 흐앙 사이야람' 사원 내에 건립 중이다. 총 면적 700㎡(약 212평) 부지 교실 6칸 · 교무실 1칸 · 도서실 1칸 · 화장실 4칸 등 시설을 갖춘 2층 건물로 약 120명 수용 가능하다. 2017년 6월 완공 예정.

예산은 약 15만 달러(한화 약 1억7000만원)가 투입되며 이 중 월드머시가 10만 달러를 지원하고, 라오스 불교협회 측이 5만 달러를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열린 착공식에는 이사장 현진 스님, 이사 지일 스님을 비롯해 수끼 흥안몽클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사무총장, 능온 담롱분 후아판 주 불교연합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진 스님은 "라오스 스님들은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단 얘기를 듣고 스님들을 위한 전용 교육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이곳서 스님들이 라오스 불교의 미래를 가꿔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능온 담롱분 회장은 "학교건립은 그야말로 이곳 스님들의 꿈"이라며 "학교가 완공되면 라오스 스님들은 불교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지원해 준 월드머시에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7일 현진 스님은 비파반 부통령의 초청을 받아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서 라오스 중앙불교협회 측은 부통령 및 현진 스님에게 학교건립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비파반 부통령은 현진 스님에게 감사를 전하고, 국가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법회 개최

6월 11일, 전법 위한 다짐의 시간으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회장 김경희)는 6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법회는 부산지역 교사들의 신심을 다지고 수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는 6월 11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대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법회는 범어사 교무국장 범수 스님의 법어 및 찬불가와 가야금 공연,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김경희 회장과 현익채 전 금정중 교장, 김화선 부산교직원불자연합회 사무총장 등 200여명의 불자 교사가 참여했다.

범수 스님은 "교사는 돌을 옥으로 만드는 소중한 직업"이라며 "불교는 고정된 이미지로 살아가지 말고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고착화, 고정화 되선 안 되며 항상 변화하는 자세로 학생들을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가 스님은 "명상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자식보고 왜 공부 못하냐고 다그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왜 덥냐고 삿대질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마음속 행복단추, 우리 잘 끼워봐요"

낙산 금산사, 마음치유 행복단추학교 개강

"제 별칭은 옥수수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한우를 키우는데 너석들에게 좋은 먹이가 옥수수라 따로 농사도 짓거든요. 옥수수 농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전 땅부자입니다. 진짜 땅이 많아서 땅부자가 아니라 그냥 조금 재미있는 별칭을 지은 거고요. 땅이 많으면 마음도 좀 넉넉해지지 않을까 싶어 적어봤습니다."

겨우 10명 남짓 옹기종기 둘러앉았는데 가득 차버린 작은 법당. 별칭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어색함이 묻어 있다. "저는 진짜 할 말이 없는데요…." 부끄러움에 혼잣말을 내뱉으며 쭈뼛쭈뼛 자리에서 일어선 이들은 정작 "할 말 없다"는 혼잣말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멍석 위에서 말문이 트였다. "각박한 사회에서 만족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사실 전 교회에 다니지만 절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에 와봤어요." "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뒷담화하는 사람이요."

6월 1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에 위치한 낙산 금산사. 일반 사찰과는 조금 다른, 주택을 개조한 허름한 법당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문학과 심리치유활동을 하는 금산사 주지 승한 스님의 '마음치유 행복단추학교' 현장이다.

이날 개강한 마음치유학교는 생활에 지치고, 대인관계에 상처받고,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아 떠도는 이들이 모여 자기 마음을 돌아보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자리다. 사람 중심의 집단 치유를 목표로 하는 마음치유학교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100분 동안 마음속에 있는 행복단추를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꾸준히 참석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승한 스님과 마음치유학교 참가자들이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나는 행복하다!"고 외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여느 모임과 다르지 않게 첫날엔 자기소개가 빠질 수 없다. 단 이름, 나이, 인사말 같은 평범한 소개가 아닌 각자 지은 별칭의 뜻과 다른 이들이 자신을 기억할만한 특징, 덕담이 바탕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어색함만 가득하자 승한 스님은 "일단 저지르라"며 자신을 드러내보라고 응원했다. 그러자 한두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 아들은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너무 욕심만 갖고 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10개 중에 1개만 이뤄져도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대에 아들 보낸 엄마'로 많이 불립니다. 당연히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아들은 아들이고 저는 저죠.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100분 행복여행
담아둔 속내 가감 없이 풀며
튼튼한 마음 만드는 데 집중
"나를 찾고 변화시키는 운동"

첫 만남에 쉽게 꺼내기 어려운 속내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자기소개를 하는 이의 말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공감했다. 각자의 마음치유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자기소개가 끝난 뒤 승한 스님은 "자신의 마음과 별칭 사이에는 소망이든 성품이든 작은 연결고리가 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치유는 시작된다"면서 "그 마음의 옷깃에 행복의 첫 단추를 잘 끼워 내 안에 행복이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한 스님은 이어 좋은 만남의 3원칙으로 반가움 · 유익함 · 즐거움을 제시했다. 스님은 "반가움에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고,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유익함을 통해 배우며, 또 보고 싶을 만큼 즐거워야 좋은 만남"이라면서 "앞으로 이 만남을 바탕으로 진정한 나를 찾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함께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첫 만남 말미에 승한 스님의 지도에 따라 '행복한 마음 단련하기'를 체험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나는 행복하다"고 3번 외친 뒤 10초 동안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웃기, 마지막으로 마음 정돈하기가 이어졌다.

별칭 '건물주' 씨는 "자기소개를 할 때 마음에 무언가 얹힌 것만 같았는데 막상 해내고 나니 후련해서 좋았다. 특히 함께 자지러지게 웃는 기회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정선사랑' 씨는 "보통 엄숙한 분위기의 사찰과는 다른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다. 복잡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승한 스님은 "행복에는 마음 단련이 필수적이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 마음 역시 단련을 통해 더욱 튼튼해진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바로 섰을 때 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산사는 7월부터 전문가를 초빙해 요가교실(월요일)과 인문학교실(화요일)을 개강할 예정이다. 요가교실은 노영숙 요가강사가, 인문학교실은 허남성 철학박사가 명심보감을 주제로 진행한다.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3157-8243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 영어강좌 회원모집

7월 2일~9월 10일까지, 총 10회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발맞춰 영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불교 영어강좌가 열린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는 7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제42기 기초불교 영어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불교 기본교리를 바탕으로 하며 △삼법인 △사성제 · 팔정도 △12연기 △업 · 윤회 △삼분별 △육바라밀 △결집 △불교와 과학 △사찰 건축양식 △한국불교와 조계종 등을 주제로 한다.

불교를 영어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님의 경우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교육으로 인정된다. 수료 시 국제포교사 자격고시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수강료는 일반인 10만원, 대학생 5만원. 국제포교사회 홈페이지(www.idia.o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pogyo@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2-2203)로 접수하면 된다. (02)722-2206

윤호섭 기자

공불련, 중국 관음성지로 7월 순례

23~30일, 보타낙가산 · 설두산 등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는 7월 23~30일 중국으로 제14차 해외성지순례를 떠난다.

이번 성지순례는 7박8일간 상해 · 영파 · 보타낙가산 · 설두산 등 중국 관음성지를 돌며 불심을 닦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첫날 주가각 · 항주만대교를 시작으로 △2일차 보타낙가산 · 남해관음대불 △3일차 보타산 법우사 · 보제선사 △4일차 설두산 풍경구 · 천태산 국청사 △5일차 신선거 △6일차 무이산 무이정사 △7일차 천심영락선사 · 대홍포 풍경구 순으로 이어진다.

공불련 회원 및 가족 선착순 35명을 모집한다.

공불련은 "해외불교 문화체험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다양한 신행활동으로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쌓기 위해 해외성지순례를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직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2)739-1080

윤호섭 기자

정석당 경봉대종사 34주기 추모다례재



불기 2560(2016)년 7월 1일 (음 5월 27일)

울울창창 영축산의 능선마다 옛 선사의 기백 가득합니다.
아낌없는 풍모로 수행의 견처를 밝히셨던 정석당 경봉대종사의 제 34주기
추모다례를 여러 대덕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자님들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하오니,
두루 걸음하시어 선사의 법향을 느끼고 수행의 뜻을 기리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아울러, 대종사님의 추모다례를 기해 매년 봉행하는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하오니 수혜자들께서도 필히 참석하시어 의미의 법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0 (2016) 년 6월 향기로운 날에

극락호국선원 선원장 고원 명정
극락문도회 회 장 경일 법산 합장

일 시 : 2016년 7월 1일 오전 10시 - 추모다례재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장 소 : 극락호국선원 무량수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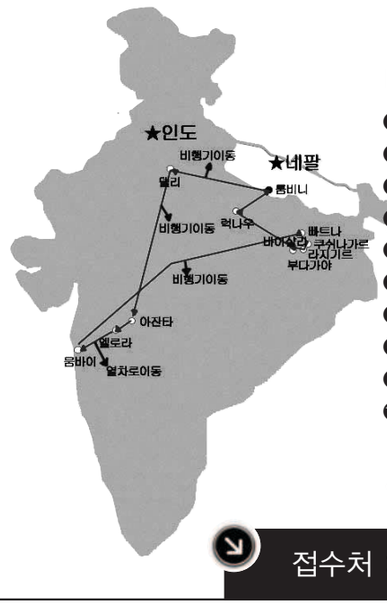
* 점심 공양 후 원광재에서 경봉문도회의가 있습니다.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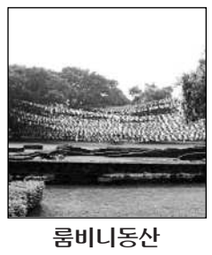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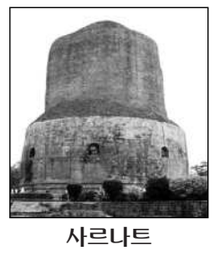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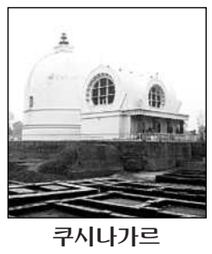


▶ 성지순례지 ◀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흉내 내지 말고 내 삶을 살라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불교와 서양철학

철학자 강신주 박사

흔히 불교사상 혹은 불교철학을 두고 많은 사람은 난해하다고 느낀다. 수많은 경전과 단박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답, 화두 등은 불교를 알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거리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조금 쉽게 이해할 순 없을까? 철학자 강신주 박사는 6월 13일 참불선원에서 열린 인문학강좌에서 '불교와 서양철학'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 박사는 "우리가 서구적 사고방식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서양철학의 개념을 빌리면 불교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강신주 박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서 「장자철학에서의 소통의 논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희대, 상상마당 등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출판기획사 문사철의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삶의 핵심적인 사건과 철학적 주제를 연결시켜 포괄적으로 풀어낸 철학서를 다수 펴냈다. 동양철학 전공자이면서 서양철학의 흐름에도 밝아 쉽게 읽히는 철학을 지향한다. 주요 저서로는 〈철학이 필요한 시간〉〈철학, 삶을 만나다〉〈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상처받지 않을 권리〉〈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등이 있다.

외부서 바라본 4개의 불교

오늘은 불교와 서양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셀(russell)'이 뭔지 아십니까? 겨울철 눈 쌓인 산을 헤쳐 나가며 선두가 길을 다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눈길 뚫기'죠. 러셀의 도움을 받으면 눈길을 오르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불교철학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철학 자체는 굉장히 깊고 방대해서 이해하기 난해한데 서양철학의 몇몇 개념들을 빌려 설명하면 이해가 훨씬 수월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서양철학 개념들을 러셀삼아 불교철학을 설명하겠습니다.

'베단타'는 인도 전통 철학 중 하나입니다. 싯다르타는 베단타 철학의 전통에서 탈출하고자 했습니다. 아트만(진정한 자아)과 브라만(궁극적 실체, 유일신)을 강조한 이 철학은 현재의 기독교와 모습이 닮았습니다. 싯다르타의 철학은 아트만과 브라만에서 모든 고통이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념들을 붕괴시키며 출발합니다. 무아(無我)라는 개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부처는 나 이외에 그 어떤 권위도 날려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임제 스님이 말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야 부처가 된다'가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부처에게 절하는 인간이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절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아니라면 기독교나 브라만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12세기 '마드바'라는 인도 철학자가 〈전철학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안에 정리한 내용을 보면 불교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해놨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압축하면 4가지가 됩니다. 베단타 학파인 마드바가 생각한 가장 매력적이고, 그래서 본인 철학에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불교철학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설일체유부', 둘째는 '경량부', 셋째는 '유식학파', 마지막으로 '중관학파'가 이들입니다. 산스크리트어 그대로 풀이하면 설일체유부는 '외부대상감각성', 경량부는 '외부대상추론성', 유식학파는 '외부대상비실재성', 중관학파는 '모든 것들의 비실재성'이 됩니다.

네 개중 유일하게 '무상(無想)'을 주장하는 것이 '경량부'입니다. 나머지는 '무아'를 주장합니다. 5~8세기 인도 사람들은 무상을 치열하게 연구했습니다. 제행무상을 증명하면 초월적 신의 영원성을 믿는 사람들의 논리를 격파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상은 자칫 허무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자비로운 행동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헛된 공부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무상하다'는 참뜻을 알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해 자비심을 낼 수밖에 없을 거란 뜻입니다. 꽃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꽃이 지는 것을 알고,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에 사진을 찍어 간직하려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쓸데없는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됩니다. 무상은 이렇게 강력한 진리입니다.

근대서양철학 핵심 품은 불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설일체유부'는 가장 단순하게 우리의 감각이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경량부'는 외부대상은 단지 찰나로만 존재하기에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없고, 추론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식학파'는 우리 의식이 외부대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실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영사기를 통해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관학파'는 우리의 의식마저 공(空)하다고 주장합니다.

'설일체유부'는 영국의 경험론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로크 혹은 흄이 대표적 경험론자들입니다. '경량부'는 칸트의 주장입니다. 물(物) 자체가 나의 감각을 촉발한다는 뜻인데, 박쥐의 세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지막 박쥐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박쥐가 보는 초음파로 구성된 그 세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박쥐의 인식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유식불교'는 헤겔에 가깝습니다. 정신의 자기실현을 말합니다. '중관불교'는 니체철학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불교의 4개 학파에는 이렇듯 서양근대철학의 요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불교철학이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구적 사고방식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서양철학의 개념을 빌리면 불교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마드바가 알아채지 못했던 한 가지 불교가 더 있다면 그것은 '선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에선 선(禪)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선불교로 참선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 스님들은 동안거 · 하안거를 통해 치열하게 화두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화두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풀 수 없습니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들에겐 화두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문혜개 스님이 지은 〈무문관〉에서는 48개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무문관(無門關)이라니…. 문이 없는 관문이란 뜻입니다. 문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훅!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바로 문이 없는 관문입니다. 막막할 때 우리는 문을 찾곤 하지만, 삶 속 문제 대부분에는 문이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한다면 사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은 뭘까요? 그냥 훅! 문을 건너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서양철학 요지 잘 담은 불교
"나 이외 권위 버리라" 강조
남 따라하면 자신 잃기 쉬워
자기 삶 주인의식 필요하다

서양철학 빌려 '화두' 풀이

본격적으로 '무문관' 속 화두 중에서 서양철학 개념을 통하면 이해가 수월해지는 내용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22번째 '비풍비번(非風非幡)'이던지는 화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는 사찰 깃발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옳다며 논쟁이 붙었는데 해결의 기미가 안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조혜능 스님에게 판단을 부탁하니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에선 감각이 들어온 후에 마음이 판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사들은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깃발에 먼저 가 있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20세기에 와서야 '현상학'이라는 철학적 한 갈래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독일의 후설이 주장한 현상학의 핵심은 'Noema(마음이 가는 대상)'와 'Noesis(마음의 작용)'입니다. 후설은 노에시스 없이 노에마는 존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으면 눈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건 '집착'입니다. 마음이 고착되어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한 가지에만 집착하면 마음은 죽습니다.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 말은 아주 찰나에도 마음이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매우 실천하기 힘든 경지입니다.

두 번째는 '구지화상(俱指和尙)'입니다. 구지화상은 적절한 순간에 손가락 하나를 세우는 것으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어느 날 외부 손님이 동자에게 '화상께선 어떤 수행을 하나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자도 구지화상처럼 손가락을 세워보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구지화상이 동자승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동자승이 울부짖으며 도망가는데 구지화상이 다시 동자승을 불러 세우더니 손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자가 깨우쳤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를 말로 가지고 노는 '희론'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보시행이란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 사람 땀을 닦아주면 됩니다. 아낄 애자를 왜 사랑한다는 뜻으로 사용할까요? '아낀다'는 마음은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한편, 이런 구지화상 스님은 철영 스님에게서 구지법을 배웠다는군요. 동자는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구지 스님 흉내를 냈기 때문에 구지 스님의 손가락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본인 손가락을 자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만약 동자가 자기 손가락을 들었다면 구지 스님은 그 손가락을 자를 수 없었을 겁니다. 손가락은 세 갠데, 두 사람만 자기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본인의 손가락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야합니다. 불교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은 '흉내내기'입니다. 우리는 TV나 영화에서 본 것들을 흉내 내며 살고 있습니다. 만약 불경이나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줄줄 외기만 하면 목을 쳐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온 몸으로 체험해 본 경험이 있나요?

20세기 현대 최고의 철학자 질 들뢰즈 철학의 핵심 개념은 '차이와 반복'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을 흉내 내지 말고, 차이를 반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완벽히 다릅니다. 마치 들판에 핀 잡꽃들 같습니다. 만약 개나리가 엄청 잘 피어나면 '나도 저 장미처럼 저렇게 피었을 것'이라며 장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차이와 반복'은 흉내 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바보 같은 사람은 타인이 자기 말을 어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내 말을 안 듣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무조건적으로 반복해온 '내 것 아닌' 내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척'을 피해야 자기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마지막 화두는 '염화시중의 미소'입니다. 싯다르타가 설법을 하는 도중 갑자기 꽃을 들어 제자들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저 꽃의 의미는 뭐지' 생각하면서 일순간 긴장했습니다. 그때 가섭이 싱긋 웃자 싯다르타는 깨달음을 축복하는 의미로 가섭에게 가사를 벗어줬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산책을 하는데 꼬마 하나가 꽃을 한가득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지겠죠? 그런데 그게 시어머니라면 꽃이 안보일 겁니다. 꽃을 들고 있는 상대를 무시할 수 있어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싯다르타의 존재에 집착해 꽃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섭이 되십시오.

백발백중 백초귀장술 특강
창시자 백초스님 직강

① 역학을 배우고 상담 업을 시작하시려는 분! (꼭 필요함)
② 역학공부 안하고 신도가 물을 때 옳은 답변 쉽게 하고 싶으신 스님 분!
(조상 뽑기 쉬워서 천도재 집전 불사가 쉽습니다.)
③ 영험하고 신통한, 남다른 상담을 하고 싶은 분!
④ 신 받았는데 아무 것도 점사가 안 떠오르는 신제자 분들!

확실하고 & 신통한 비법 전수해드립니다. 적중률 95%

□ 백초귀장술 책 이외의 특수비법과 실전노하우 전수 위주로 3개월간 주 1회씩 진행됩니다. 강의 듣고 나면 바로 활용 가능함.
□ 한문 몰라도 되고, 역학 몰라도 쉽게 왜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수강료 : 1일 일십만원. 10만원 농협 302-4233-7099-41(김경석)

【서울 강의】 6월 26일 일요일 오후 3시 특강
□강의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50 유빌딩 301호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7번출구 3분거리 /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10분거리입니다.

【대전 강의】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특강
매주 금요일 연속 7회로 완전마스트 해드립니다.
□강의 장소 : 대전 서구 괴정동 423-3 오렌지타운 515호
롯데백화점옆, 파리바게트건물, 주차는 건물뒤 지하주차장

백초율력학당 연락처 010-3813-4443. 010-4233-7099
Cafe.naver.com / 백초율력학당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6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7월 1일 (금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저출가 시대, 불교의 역할은?

불광연구원, 25일 학술연찬회

출가자 감소에 따른 승가 위상 변화와 재가자 역할을 학술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원철)과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저출가 시대와 한국불교의 미래-승가의 위상 변화와 재가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박수호 덕성여대 연구교수가 '출가자 감소의 대내외적 원인과 대책',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가 '저출가에 따른 승가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재가불자의 위상과 역할 변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저출가 시대의 전법 전략과 비전'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이어 법인 스님(일지암 암주), 원철 스님(포교연구실장), 석중 스님(교육원 연수국장), 양군수 포교사단 부단장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문화유산 세계화 청소년이 앞장

문화재청, 외국어 해설 대회 공모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제교류문화진흥원(원장 유정희)과 공동으로 '2016 전국 학생 문화유산 외국어(영어 · 중국어) 해설 경진대회'를 오는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 · 중 · 고등학생(영어 · 중국어)과 대학생(영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계유산, 국가지정문화재, 시 ·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 동영상을 촬영하여 참가 신청서, 발표 원고(외국어, 한글 번역본)와 함께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웹하드에 올리거나 우편 · 방문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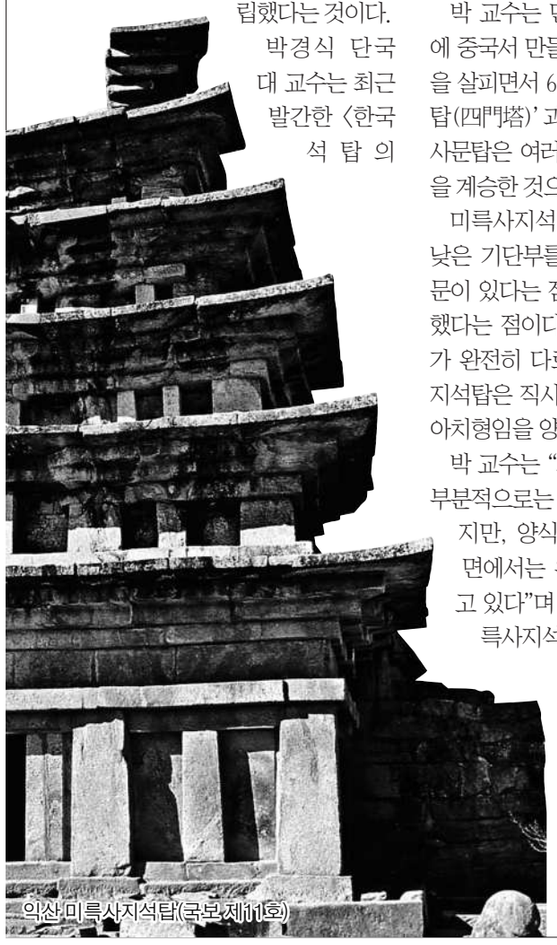
접수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로 서류 · 동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영어 18팀, 중국어 9팀을 선정하여 8월 12일 문화재청과 국제교류문화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본선은 8월 19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며, 문화유산 외국어 해설 현장경연과 질의 · 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02)3210-3266 신성민 기자

"한국 석탑 시원, 中 전탑에 기인 않는다"

박경식 교수, 〈한국 석탑의 양식 기원〉서 주장

일반적으로 한국 석탑의 기원은 중국 전탑(塼塔)에서 찾아왔다. 하지만 한국 석탑의 중국 기원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당시 백제와 신라는 독자적인 기술로 석탑을 건립했다는 것이다.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박경식 단국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한국 석탑의 양식 기원〉을 통해 한국 석탑의 중국 기원설을 반박했다.

박 교수는 반박의 근거로 익산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과 경주 분황사모전석탑(국보 제30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중국서 만들어진 다양한 불탑의 양식을 살피면서 611년 지어진 산둥성 '사문탑(四門塔)'과 한국 석탑을 비교했다. 사문탑은 여러 면에서 목조건축의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미륵사지석탑과 사문탑은 공통점은 낮은 기단부를 두고 있는 것과 사방에 문이 있다는 점, 석탑 안에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박 교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사면의 문도 미륵사지석탑은 직사각형인 데 반해 사문탑은 아치형임을 양식적으로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사문탑과 미륵사지석탑은 부분적으로는 동일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양식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7세기 초반 백제에서 미륵사지석탑을 통해 이룩한 재로의 변화와 기술력은 바로 중국의 불탑문화와는 차별화된 길로 들서는 요인이 됐다. 이는 신라로 계승되고 더욱 발전한 결과 한국 석탑의 정형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塔 중국 기원 통설 전면 반박
미륵사지 · 분황사 塔 근거 제시
중국 탑들과는 다른 계통 보여
中 문화적 영향력 벗어나 있어

사문탑이 분황사모전석탑 건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 통설도 박 교수는 반박한다. 사문탑은 단층이지만 분황사모전석탑은 3층이고, 탑을 쌓는 데 사용된 돌도 사문탑 쪽이 훨씬 크다. 문의 생김새와 봉안물도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석재를 벽돌과 같이 다름어 충적식으로 건립한 모전석탑은 동아시아에서 분황사모전석탑이 유일하다"면서 "사문탑과 분황사모전석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분황사모전석탑은 중국 초기 불탑과 양식적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제와 신라를 대표하는 미륵사지석탑과 분황사모전석탑이 다른 계통의 불탑임을 밝혔다. 미륵사지석탑이 조적식과 가구식이 포함된 이원구조체인 반면, 분황사모전석탑은 충적식 구조이며, 이는 탑 재료의 차이와 기술력의 차이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던 실심체 구조와도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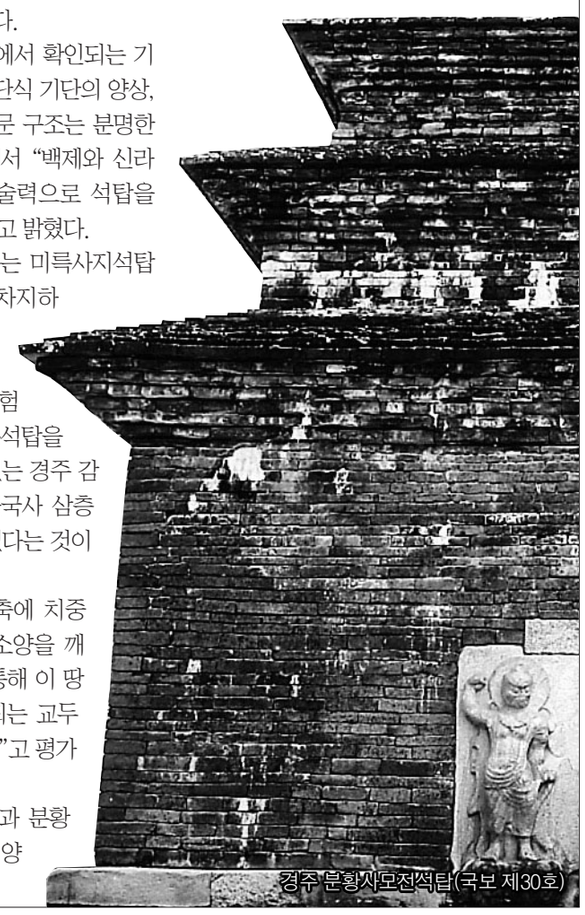
박 교수는 "양 석탑에서 확인되는 기단부의 이층기단과 층단식 기단의 양상, 초층 탑신에 구현된 4문 구조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면서 "백제와 신라는 각각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석탑을 건립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미륵사지석탑이 한국 석탑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주목했다. 미륵사지석탑을 축조하면서 쌓은 기술과 경험이 부여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비롯해 신라 영토에 있는 경주 감은사지 삼층석탑과 불국사 삼층석탑 축조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목조건축에 치중했던 당시의 문화적 소양을 깨트린 쾌거였고, 이를 통해 이 땅이 '석탑의 나라'가 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륵사지석탑과 분황사모전석탑에 내재된 양식과 기술력은 중국의 초기 불탑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건립된 것이 아니다"면서 "불탑의 건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백제와 신라는 결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에 종속된 나라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분황사모전석탑(국보 제30호)

"오늘의 관심으로 '붓다'를 이해해야"

조성택 고려대 교수
17일 향상포럼서 주장

사문유관 서사, 구도 과정 국한
"제도적 종교로 불교 이야기 할
새로운 불교 서사가 필요하다"

"지금의 한국불교에서 감동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불교에 대한 교리만 있을 뿐 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꽃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처럼 불교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불교가 현실의 삶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서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6월 17일 열린 한국불교 향상포럼 6월 모임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새로운 불교 서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근대 이후 지금의 불교는 관념적 교리와 역사로 구성된 과거의 전통일뿐"이라며 "불교경전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활용되고 있지 못한 채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에서 불교가 담론으로 구성되지 못하고 교리로서만 논의되는 것은 불교에 대한 지식을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담론은 이야기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서사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불교는 싯다르타의 출가와 깨달음이라는 일련의 서사와 교리가 긴밀히 교직돼 있다"면서 "깨달음을 위해 세속을 떠난 싯다르타의 서사는 삶의 모델이자 바람직한 삶을 위한 선택이 된다. (이를 통한)출가제도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자 제도적 종교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사문유관 서사와 사성제 교리는 짝을 이루고 있으며, 근대 이후에서는 서구 심리학적 해석이 가미되면서 깨달음은 스스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경향으로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며 이제는 새로운 불교 서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부처님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붓다의 삶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선결돼야 한다. 역사의 빛으로 붓다의 삶을 재조명하는 일, 그리고 오늘의 관심으로 붓다를 이해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이론 · 수행 겸비한 불교 리더되길"

동국대 불교리더십 최고위과정 23기 수료식

동국대(총장 보광)는 6월 15일 서울 중구 그랜드앰버서더호텔에서 불교대학원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 2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는 23기 수료생 45명을 비롯해 재학생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총장 보광 스님은 "불교리더십 최고위(CEO)과정은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탄탄한 커리큘럼을 갖췄다. 여기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망 있는 교수님들의 열정적 강의로 불교와 경영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실무를 겸비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가르침 아래 맺어진 소중한 인연으로, 동국대의 발전과 밝은 미래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수료식에 이어, 발전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 23기 수료자들은 동국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3천만 원을 학교에 전달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경영자 최고위(CEO)과정은 동국대의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사회 각계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했다. 2004년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총 790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불교경영자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민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 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 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 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동련 30년, 어린이 포교 선구자로 '우뚝'

(사)동련, 6월 11일 창립 30주년 기념법회 봉행

'바른 어린이 불자상 정립' 등
30년 기념 3가지 비전 선포
"지도교사 양성, 가장 큰 과제"
책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 봉정


사단법인 동련은 30주년을 맞아 6월 11일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천진불 불국토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어린이 포교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해 온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이 3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천진불 불국토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사)동련은 6월 11일 경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서 30주년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과 역대 이사장 스님들,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등 25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30년사를 정리한 책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 봉정식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및 환영사, 어린이 난타공연, 발원문, 합창 및 무대공연, 동화구연, 비전 선포, 법어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동련은 30주년 비전으로 △바른 어린이 불자상 정립 △어린이 포교 전문지도사 네트워크 구성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고급 총 3개를 제시했다.

이사장 성행 스님은 어린이 포교 발판 구축을 위해 사부대중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지도교사 양성'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성행 스님은 "무엇보다 어린이 지도교사의 부재가 안타깝다. 지도교사에 대한 산발적인 지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젊은 층의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어린이 포교사가 사찰서 상근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이날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어린이 포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동련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련이 어린이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종단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격려했다.

이어 최미선 동련 사무국장은 전국 어린이 포교 사찰 현황을 조사하고, 사찰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사무국장은 "현재 전국 180여개 사찰이 어린이 포교를 실시하고 있다. 이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양질의 포교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국장은 "많은 아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날 봉정된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길〉은 어린이 포교 역사와 활동을 정리하는 한편, 문제점 등 현황과 방안 등이 담겨있다. 또한 역대 이사장 및 이사 스님들의 제언들을 담아 동련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다뤘다.

1986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로 시작한 사단법인 동련은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동련동화구연회 등 산하기관을 이끌며 어린이 불자 양성 및 교사 양성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하성미 기자

삼광사, 부산소방안전본부·경찰청과 MOU

화재 희생자 후원 및 청소년 선도



부산 삼광사가 화마로 인한 피해자와 선도 및 보호 필요한 청소년을 직접 후원하기 위해 나선다. 사진은 부산소방안전본부에서 진행한 MOU 장면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가 화마로 인한 피해자를 후원하는 한편, 지역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나선다.

부산 삼광사는 6월 15일 부산소방안전본부 3층 영상회의실서 부산소방안전본부 및 한국소방 복지재단 부산지회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삼광사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자 원조, 소방시설 지원, 119 안전 기금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삼광사는 6월 16일 경내 법화당에서 부산경찰청과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삼광사는 선도 및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지 무원 스님은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을 격려하고, 경찰들의 수고로움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방관 및 경찰관들이 더욱 나라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동명불원, 어르신 손잡고 추억 나들이

6월 14일 어르신 50여 명 함께


부산 동명불원 심우회 회원들은 6월 14일 부산 용호동 지역 어르신과 함께 '추억 만들기 나들이'를 진행했다.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 신도회 '심우회' 회원들은 6월 14일 부산 용호동 지역 어르신과 함께 '추억 만들기 나들이'에 나섰다.

심우회원 10여 명과 어르신 50여 명이 함께 울산 대왕암공원 · 장생포고래박물관 관람 및 원예체험활동 등 각종 체험에 참여했다. 아울러 나들이에 앞서 동명불원 심우회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성재곤 심우회장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과 인연을 맺은 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1년에 2차례 함께 나들이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한 최필선(가명) 씨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 올 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몸이 불편해 여행은커녕 집 앞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신경써주는 사람이 있어 고맙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화쟁으로 진정한 평화 이룩하길"

6월 10일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등


부산 진여원은 제 1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 가족 위안 행사를 6월 10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에서 개최했다.

부산 진여원(원장 남보타월)이 6월 10일 부산 화명 신도시 내 현충공원서 제18회 진여호국영령 위령재 및 보훈 가족 위안 행사를 개최했다.

1부 식전행사로 위령재가 봉행됐으며, 2부 본행사는 왕생극락기원 등 밝히기, 육법공양, 헌화 및 분향, 묵념, 헌시, 왕생극락 발원문 등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3부는 보훈 가족을 위한 작은 음악회 및 대중공양이 이어졌다.

진여원 회주 혜총 스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오늘날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립과 갈등을 떠나 모두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화쟁정신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여원은 1997년 제1회 '호국영령 및 군경전몰장병 영가 합동천도재'를 봉행하고, 매년 보훈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BTN 남성 중창단, 신작 찬불가 발표회


BTN불교TV남성중창단의 신작 찬불가 발표회가 6월 12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BTN불교TV남성중창단(단장 추현철)의 신작 찬불가 발표회가 열렸다.

6월 12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는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이날 BTN 불교TV 남성중창단은 '별 가득한 밤', '천년의 꿈', '혜능답송' 등 산사의 고즈넉함을 표현한 곡부터 혜능 스님의 법문을 담은 곡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울산정토사어울림합창단의 우정출연과 수월 스님의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찬불가는 불자들이 손쉽게 따라 부를 수 있어 법음과 같다"며 "이 불사를 통해 처처에 번뇌의 강을 건너는 모든 불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오대산 사진展 대상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

문광부 장관상, 이향배
총 200여점 중 28명 입상


대상 이향배 씨 작품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

제12회 오대산 전국 디지털사진 공모전 수상결과가 발표됐다.

오대산 월정사는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4월 9일~5월 31일 제12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오대산 전국 디지털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고, 6월 10일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이향배(경기) 씨의 '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이 선정됐으며, 이밖에 금상에는 안순응(경기) 씨의 '축일02', 은상은 곽춘진(강릉) 씨의 '오대를 품안에', 동상은 오태희(서울) 씨의 '배려' 등 작품이 각각 당선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00여 점 작품이 응모됐다. 이 중 대상을 차지한 이향배 씨의 작품은 "월정사 불교행사서 바라춤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자들의 진지하고 엄숙한 눈길, 표정을 색과 빛의 조화를 잘 살린 수작"으로 평가받았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진다. 또한 금상은 주최 측 상장 및 100만원, 은상은 50만원, 동상은 30만원, 입선은 상장 및 기념품이 전달된다.

▲입상작

△대상=기다림 그 찰나의 시간(이향배)

△금상=축일02(안순응) △은상=오대를 품안에(곽춘진) △동상=배려(오태희)

△입선=진신사리 이운식(곽수진), 불심(김영선), 부처님 오신날 연등빛 행진(신현임), 징검다리(최재화), 연등달기(박우현), 함께해요, 호기심(안순응), 염원을 담아(이향배), 월정사 소경(김복연), 월정사 금강문(김학수), 관불의식을 기다리며, 부처님 오신날 축하공연(김춘호), 염원을 달다, 삼보일배-자신을 낮추다(곽진순), 탑돌이(박재용), 길(최인순), 저 목어는 말이죠(김봉정), Circle Of Life(장낙종), 도량에서 울리는 선율(최재훈), 방생의 공덕2(정용섭), 하루를 마치며(김용태), 윤장대와 아이들(이숙경), 상원사(김부오), 정념 스님(정상대), 오대산 선재길(최인순), 바라춤-영원을 담다(최재혁), 탑돌이 행사3(이봉삼) 박아름 기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지장보살 원력으로 교정교화 앞장”

교정인불자연합회 하계수련회



전국의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정교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정인불자들이 다시 한 번 포교 원력을 다졌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류성환)는 6월 11~12일 김제 금산사에서 ‘제20차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수련회 입재식에는 류성현 회장을 비롯해 조계종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 스님,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승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국의 교정인불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예불, 성우 스님의 내비둬 콘서트, 화합과 소통한마당, 지회 신행사례 발표로 첫날 일정을 소화한 교정인불자들은 다음날 새벽 예불에 이어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계사로 미륵십선계 수계식을 봉행하고 승한 스님의 특강을 경청했다.

입재식에서 류성환 회장은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수용자 교정교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우수한 교정교화활동을 펼친 전주교도소 조만기, 우남일, 이수민, 안종희 불자 등에게는 각각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과 포교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또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과 대구혜인정사 진송 스님에게는 연합회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름엔 산사서 호연지기 기르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여름 불교캠프 마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시각)는 ‘2016년 여름 청소년을 위한 제5회 청소년지리산마음캠프’를 7월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지리산 법계사, 연곡사에서 개최한다.

‘지리산에 올라 세상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는 산행을 통해 호연지기와 자신의 큰 꿈을 세우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사찰템플스테이로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캠프는 광주에서 출발해 지리산 법계사(1박), 천왕봉, 장터목산장, 거림골, 연곡사(1박) 일정으로 이어진다. 중·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행사로 ‘제21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부안 내소사 일원에서 개최한다.

8월 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열리는 생태학교는 능가산 내소사 숲 체험, 에코트레킹, 명상프로그램, 공동체놀이 등이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모범 불자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자”

광산구청 불자회 13주년 기념법회



광주 광산구청 불자회(회장 김승현)는 6월 8일 광주 길상사 북카페 고월당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광산구청 불자회는 지난 2003년 공무와 수행이 하나 되기를 서원하며 창립해 한 때 90여 명이 활동하는 대규모 신행단체였으나, 최근 정년퇴직 및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현재 30여 명이 활동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최근 침체된 법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 법회 참여를 결의했다.

김승현 회장은 “공직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젊은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모범 불자회가 되도록 회원들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법회는 도제 스님의 지도에 따라 명상 시간과 걷기 명상이 진행됐다. 법회 후 회원들은 불자회 활성화를 위한 자유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방생법회, 참선수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회원을 모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나눔이 곧 풍족한 삶 누리게 합니다”

진안 마이산 탑사·쌍봉사, 어르신 위한 문화봉사 펼쳐

1천여 명 참여한 대규모 봉사
문화공연·체험행사 펼쳐져
각종 생활용품 관내에 전달
“사회 발전 위해 꾸준히 활동”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가 주최한 문화 및 전문 봉사활동 행사에서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대접할 공양을 배식하고 있다.

전북지역 불교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 전문 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진안 쌍봉사는 6월 14일 진안 문예체육관에서 ‘마이산 탑사·쌍봉사·진안 원불교 교당과 함께하는 문화 및 전문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진안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800여 명과 자원봉사자 200여 명 등 약 1000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행사에는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대구 혜인정사 진송 스님, 정혜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항로 진안군수, 이한기 진안군의장, 김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 김용진 진안자원봉사센터장을 등 지역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진성 스님은 “다른 이를 위한 나눔을 습관으로 삼으면 자연스레 모든 이가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며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펼치는 봉사활동은 나눔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어르신들을 잘 봉양하는 모습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들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경로효친사상이기도 하다”며 “이는 우리가 후손을 위해 남겨야할 고귀한 유산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봉사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행사에서는 마이산 탑사 전주분원 실상밴드의 난타공연과 쌍봉사 보경 스님의 노래 공연, 혜인정사 진송 스님과 실상밴드의 색소폰 연주, 원광어린이집 아동들의 율동, 밸리댄스, 초대가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가요를 구성지게 불러 수많은 어르신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마이산 탑사 나누우리봉사단의 미니연꽃 만들기 체험부스를 비롯해 홍삼인절미 만들기, 홍삼막걸리칵테일 시음, 쑥뜸체험, 네일아트, 부채공예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점심식사로 삼계탕이 제공됐으며, 떡과 음료, 한과 등의 다과상도 함께 제공됐다. 또 주최 측은 진안 관내 11개 읍면을 통해 화장지 등 각종 생활용품과 간식을 선물로 전달했다.

한편 진안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지역의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해 자비의 연탄나눔, 김장김치 나누기, 자비의 쌀 나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 최근 창립된 마하연 승가회 봉사단체인 ‘우리나눔’을 통해 9월 중 전북지역의 각 시군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가르침 대중포교로 회향”

장수 죽림정사, 용성조사 탄신 152주년 대재



전북 장수 죽림정사는 6월 12일 경내 용성교육관에서 ‘용성진종조사 탄생 제152회 대재 및 역대전등 제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자 3·1만세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인 백용성조사의 탄신을 기리는 법석이 용성조사의 탄생성지에서 열렸다.

전북 장수 죽림정사(주지 법륜)는 6월 12일 경내 용성교육관에서 ‘용성진종조사 탄생 제152회 대재 및 역대전등 제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 대원 스님, 前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원두 스님, 정토회 회주 법륜 스님을 비롯해 정토회 상임지도법사 유수 스님, 한 수승행 세계불교청소년교화 후원회장, 신봉수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상무이사, 정토회원 등 10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법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용성조사 행장소개, 축사, 환영사, 기념법문, 온 겨레의 노래 제창, 정근 희사, 법문 및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 앞서 대중은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봉찬대재를 봉행했다.

도문 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용성스님은 간절하고 부지런히 몸과 마음을 깨우쳐 수행 정진의 마음을 견고히 하면서 대도 대각인 보리심을 이루라고 가르쳤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정진하고 대중포교로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용성조사는 1864년 전북 장수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나 남원 덕밀암에서 출가했다. 한국 현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1886년 경북 구미 아도모례원에서 오도하고 1940년 2월 24일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자연음식문화원, 나눔 먹거리 한마당

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지원)은 6월 11일 자연음식문화원체험관에서 전주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해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치유와 나눔의 먹거리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아동센터 어린이와 가족들은 친환경 자연음식 조리법을 체험하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민자 전주지역아동센터장은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 맛있게 먹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특히 주말에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음식문화원은 2012년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급에 나서 자연사찰음식, 친환경 건강 자연음식 등의 체험전을 실시해오고 있다. 자연음식문화원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희망드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치유와 나눔의 먹거리 한마당 체험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귀장술,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德厚(덕후) 합장 010-5658-2657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눈먼 자비는 위험을 자초한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㊸ 현장법사의 자비심에 대한 소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무서운 요괴, 홍해아가 현장법사 일행을 노립니다. 아니 일행이 아니라 현장법사를 노리는 것이지요. 현장법사는 본신이 여러 생에 거쳐 수행을 쌓아온 분이라, 요괴들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침을 흘리는 존재지요. 거기다 진원대선이 키우던 인삼과 열매를 얻어먹은 덕분에 더더욱 효능(?)이 강화 되었다네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고기를 한 점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나요? 그래서 여러 요괴들이 탐을 내고, 홍해아도 호시탐탐 현장법사를 잡아먹으려 노립니다.

그런데 쉽지를 않아요. 하도 요괴한테 당하다 보니 손오공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가 틀이 딱 잡혀 있거든요. 비상 사이렌 웽~ 하고 울리면 순식간에 차량통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이크, 이건 민방공 훈련이구나. 그게 아니고 현장법사를 가운데 보호하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면을 에워싸 지키는 틀을 딱 갖추 놨거든요. 할 수 없이 요괴는 현장법사의 자비심에 호소하는, 이미 이전에 나왔던 요괴들이 서 먹었던 고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어린아이…. 그런데 현장법사는 또 속아 넘어가네요. 눈치 챈 손오공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미련한 저팔계가 내부의 적으로 등장하여 오히려 손오공을 공격하고, 현장법사는 구해주지 않으면 머리테를 조이는 주문을 외울 태세. 손오공도 이제는 혼자서 우기기보다는 적당히 업고 가는 척 하다 뒤쳐서서, 요괴를 패대기쳐 죽일 궁리를 하지요.

그런데 좀 답답하지 않은가요? 현장법사는 전에도 그런 요괴에게 속고서도 왜 이렇게 쉽게 또 속는 것인가요? 똑똑한 손오공 말 듣지 않고 미련한 저팔계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 것인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두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곳에 바로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장법사의 자비심은 참으로 뛰어난 덕목이지만,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지요. 강직한 사람은 그 강직함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그 너그러움 때문에 실수를 범하고요.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의 부류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허물을 범하는가를 살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허물을 범하고 실수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보면 현장법사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장법사가 이렇게 자꾸 자비심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법사는 자비로운 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떤 곳에서 허물을 범하고 실수를 하시나요? 너무 신중하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구요? 그렇다면 님은 신중한 분이시군요. 너무 곧게 하려고만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 실수를 하신다구요? 그런 님은 곧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곳을 잘 살피면 자신의 성향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허? 나칠계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구요? 늘 먹을 거 너무 좋아해서 실수하고, 여자 좋아해서 잘못하고, 놀기 좋아해서 낭패를 보신다구요? 허허~ 나칠계님은 상당히 동물적인 분이시군요.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보완조치를 하면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될까요? 삼쾌선생도 좀 난감하군요. 좀 두고두고 궁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흠, 그래도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긴 하는군요. 나칠계님은 저팔계를 상당히 닮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팔계를 좋아하신다 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손오공이 기가 막혀'의 자리에 빠짐없이 출석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유기 전체가 수행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아마 끝부분 쯤 가면 저팔계가 어떤 훌륭한 경지에 도달하는가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결과를 보면 나칠계님이 어떤 공부를 통해 어떤 훌륭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선(詩仙)이라 하는 이태백(李太白)의 시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으리(天生我才必有用)"라는. 어허? 그런 일로 전혀 자신감 잃은 적 없다구요? 뭐, 사는 게 그런 건데 왜 거기서 자신감을 잃느냐구요? 와,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칠계님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그런 무심함, 태평함, 나아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함에 있었군요. 그걸 잘 키워 보십시오. 애고, 삼쾌선생의 용어대로 '언구제러블'이네요. 이 용어에 대하 스펠을 묻는 분 있다면, 그분하곤 다시 이야기 않을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요괴에게 계속 속는 현장법사
지혜보단 욕망에 기반한 판단
"자비실천도 이치에 따라야"

아무튼 현장법사의 자비심은 아직 깨닫지 못한 과정에서는 늘 과잉자비, 눈먼 자비로 작동하여 요괴의 수단에 속아넘어가 위기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거기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혜로운 손오공의 충고 보다는 미련한 저팔계의 부추김에 끌리게 마련이지요. 친구관계도 보통 그렇잖아요? 무언가 지혜로운 눈으로 따갑게 충고하는 친구에게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친구에게는 쉽게 정을 주게 되지요. 자신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지혜의 날카로운 판단보다는 정에 이끌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현장법사도 마찬가지로군요. 위대한 부처를 이룰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자비심이 과잉자비, 눈먼 자비로 작동하고, 지혜의 인도를 무시하고 감정의 쏠림에 따르니…. 그 결과는 요괴 소굴 속에 떨어짐이라!

이렇게 되니 손오공 기운이 빠집니다. 자기는 요괴 알아보고 대비를 하는 것인데 현장법사는 "넌 어찌 그리도 자비심이 없냐!"고 야단을 칩니다. 저팔계는 거기 한팔 거듭니다. 그러다 결국 요괴한테 납치를 당하니….

손오공이 탄식을 하지요. "우리 이제 흩어져야 할까부다."

저팔계 맞장구칩니다. "옳은 말씀!"

어라? 이렇게 되면 또 찢어질 위기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형제가 오히려 뜻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지요. 시발점은 역시 굳건한 마음의 상징인 사오정이지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라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말씀들입니까! 그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의 문중에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지금껏 쌓아온 공덕을 날리자는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하지요.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요괴가 저렇게 드센데, 걸핏하면 팔계는 마음 약한 사부님은 내 말 안 듣고, 팔계는 그런 사부님 부추겨 내 뒤통수를 때리니 어쩌면 좋겠니?"

여기에 이야기가 이르렀을 때 기특하게도 저팔계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좀 생각 없이 굴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사오정 말대로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생각해요!"

미련스럽고 철없는 저팔계까지 이렇게 나오니 손오공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대목,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기만 하던 저팔계, 탐심과 욕망의 상징이던 저팔계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하나로 뭉쳐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삼형제, 다시 의기투합하여 현장법사 구할 계책을 짜기 시작하지요. 그 시작으로 손오공이 토지신과 산신령을 소집하여 요괴의 정체를 캐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요괴가 친구의 아들이었네요. 아니,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의형제를 맺었던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고 해야 될, 그런 요괴군요. 그래서 손오공 자신있게 나서서, "어이! 알고 보니 내가 자네 아저씨 되는구만" 했다가 창피만 당하지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손오공이 부처님한테 잡혀 오행산에 깔려 지낸 세월이 몇 년이었던가요? 자그마치 500년입니다. 홍해아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 전혀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 아저씨라고 나서면 누가 믿겠어요? 거기다 이제는 진영이 갈렸네요. 홍해아의 아버지 우마왕하고 형님 동생 하던 시절은 요괴놀이 시절, 이제는 불법문중에 들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스님의 신분. 공자가 말씀하셨죠. "도(道)가 같지 않으면 함께 무엇을 도모할 수 없다(道不同不相爲謀)"고. 이제 도가 달라요. 한쪽은 요괴도(?) 한쪽은 불도(佛道)로 갈렸으니, 한판의 드잡이질은 피할 길이 없네요.

싸움에는 이골이 났다는 손오공도 이 삼매의 불을 이기기 힘듭니다. 요괴가 사는 골짜기가 화운동(火雲洞)인데, 불 구름 골짜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가득 메우고 타오르는 불길! 저팔계는 바로 꽁무니를 빼버리고, 손오공도 혼자는 감당이 안되어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 좀 난감하게 되었지요? 어쩌나요?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는 원군 요청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머리를 굴려 보니, 불의 상극은 물이군요. 오행(五行)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아시지요? 상생 관계는 이렇습니다.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흙은 쇠를 낳고, 쇠는 물을 낳고, 물은 나무를 낳는다.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반대, 상대를 이기고 해치는 관계를 상극의 관계라 합니다.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은 이기고, 물은 불은 이기고, 불은 쇠를 이기고, 쇠는 나무를 이긴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 홍해아의 불을 이기려면 물이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강물을 끌어 올 수도 없고, 홍해아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리 저리 궁리를 하던 손오공, 예전부터 좀 부려 먹던 용왕을 생각하네요. 여의봉 같은 것도 용궁에서 강탈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정 이야기를 하고 네 바다의 용왕을 몽땅 끌고 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싸움을 거는데…. 이거 참! 용왕이 내리는 소낙비로도 이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기름불에 물을 부은 것처럼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원군까지 있어 그것을 믿고 덤빈 경우, 그것이 안통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손오공이 힘을 써서 뚫고 들어가 보지만, 홍해아가 손오공 얼굴에 대고 불길을 확 뿜어 버리니 손오공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움을 못견뎌 물로 뛰어갔지요. 이 상황 상당히 위험한 것 아시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급격하게 바뀌면 심장마비! 바로 그렇게 되어 죽을 뻔 합니다. 재미있게도 저팔계가 안마술로 구해주고요. 저팔계가 손오공 구한다고 안마술을 펼치는 대목, 이것도 그림이 좀 나오지요? 인공호흡한다고 입까지 맞대었으면 더더욱 멋진 그림이 나올 텐데…. 히힛. 아쉽게도(?),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제는 용왕의 비로도 삼매진화를 끌 수 없으니, 이제 어찌 하느냐 입니다. 결론은 빤하다구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다음 회에 뵈어요.





그 절집의 빛

⑫ 안성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

고집멸도 헤쳐가는 생명의 龍



대웅전 서쪽편 내출목 윗벽에 조성한 반야용선도.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해서 총 37명의 인물상이 등장한다. 반야용선에 남사당패를 묘사한 파격적인 도상이다.

반야용선은 유체역학적인 선박 아닌
사성제와 연기법 진리 깨친 깨달음의 배
파주 보광사도 반야용선도서 보주 등장

아미타 본원력에 의지한 극락왕생

아미타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극락정토로 인도하려 48대원을 세우고, 이미 그 대원을 이루신 부처다. 중생을 손수 영접해서 극락정토로 이끄시는 접인도사(接人導師)이시다. 그런데 극락정토는 서쪽으로 십만억 국토를 지나야한다. 작은 선근이나 공덕,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길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이타적(利他的) 구원의 대원(大願)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미 대원을 이루었으므로 믿고 따르면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무량수경〉에서 위제희 왕비에게 이미 극락세계의 온갖 아름다운 장엄세계를 보임으로써 중생의 발보리심을 이끄셨다. 단지 중생들은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환희심을 내어 아미타불의 명호를 다만 열 번만 부르면 된다. 정토와 불보살을 일심으로 관상하며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절히 염불하면 된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지명염불(持名念佛)의 방법이다. 〈아미타경〉에서는 하루 내지 일주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한다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대단히 간단하고 쉬운 일이다. 그러면 선남선녀들이 극락정토의 한 자리에 모두 모인다. 구회일처(俱會一處)의 국토다.

그런데 어떻게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는가?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왕생자에게 직접 찾아가 맞이하신다. 홀로, 때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삼존불 형식으로, 혹은 팔대보살을 대동하시기도 한다. 그 장면이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다. 내영의 걸음을 통해서 왕생자에게 광명을 놓거나 연화좌를 건네신다. 개개인별로 찾아가서 맞이하는 방식이다. 왕생자는 연화화생(蓮華化生)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 대단히 감동적이고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때론 보다 집합적인 구제방식도 취한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게 해서 피안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용이 끄는 지혜의 배, 반야용선(般若龍船)에 태워 극락으로 인도한다. 그 장면을 그린 탱화나 벽화를 '반야용선도', 또는 '용선접인도'라 한다.

반야선과 아미타내영도의 결합

몇몇 사찰에는 반야용선도 벽화가 현존한다.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벽, 제천 신륵사 극락전 외벽, 파주 보광사 대웅전 외부판벽, 구미 수다사 명부전 외벽, 안성 청룡사 대웅전 내벽 등에 귀한



반야용선의 선수부분 세부. 여섯명의 남사당패와 스님 등 왕생자가 등장한다.

장면으로 남아있다. 제천 극락전 벽화에서는 벽화의 방제를 '반야용선도'라 밝히고 있어 벽화 명칭의 혼선을 가닥잡게 한다. 반야용선도의 일반적인 구성은 용이 끄는 배와 배의 앞뒤로 인로왕보살과 지장보살이 두루 배의 안전을 살피신다. 배의 중간에는 아미타여래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불께서 왕생자들을 내영하시는 구도다. 그림의 형식만을 놓고 보면 반야용선도는 고해를 건너는 반야의 배와 아미타내영도의 결합이라 할 것인데, 통도사 벽화처럼 아미타내영의 부분이 생략되기도 한다.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는 내용구성의 완전성과 미술회화적 자기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국내 반야용선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힌다. 반야용선은 그 자체가 용이면서 배로서 살아있는 생명력이다. 아미타여래의 48대원의 본원력이면서 무량수, 무량광의 자비력인 까닭이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 반야용선도는 천정 바로 밑 내목도리 상벽에 베풀었다. 아미타여래의 정토사상을 반영한 듯 대웅전 서쪽 벽면에 조성하고 있다. 세로 85cm, 가로 220cm 크기의 화면이다. 흙벽에 회칠로 마감한 후 벽화를 조성했다. 반야용선은 청색 물결이 굽이치는 대해를 한 마리 커다란 용이 끌고 가는 붉은 배로 묘사했다. 용이 배이고, 배가 용 자신으로 둘 사이에 구분의 경계가 없다. 화면의 맨 앞은 용과 붉은 보주(寶珠)의 강렬한 인상이다. 붉은 보주는 특히 인상적이다. 붉은 빛에 신령의 주술적 기운이 흐른다. 보주는 반야용선의 본질을 환기시킨다. 바로 반야의 조형언어로 통한다. 곧 보주는 깨달음이자 지혜의 메타포다. 그래서 용선이 아니라 반야용선이다. 반야용선은 공학적인, 유체역학적인 선박이 아니라, 고·집·멸·도의 사성제와 연기법의 진리를 깨친 깨달음의 배이다. 대승불교 이전의 부파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논서가 세친의 〈구사론〉이다. 방대한 분량의 〈구사론〉의 기본 뼈대를 이루는 내용이 고·집·멸·도의 사성제다. 불교는 인간이 지닌 번뇌와 고통의 바탕에서부터 실천적 사유를 시작한다. 번뇌의 불을 끄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에 이르는 것이 궁극의 길이다. 고통은 탐냄과 성냄, 어리석음, 곧 탐진치(貪瞋癡)의 마음작용에 다름 아니다. 극락정토가 현세적 기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마음의 경지이므로 극락의 본질 역시 마음 밖에선 찾을 수 없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 텅 빈 마음이 상락아정(常樂我淨)이고 극락이다. 보주도 본질적으로는 생명력으로 가득한 텅 빈 우주법계, 혹은 텅 빈 마음일 터이다. 반야용선도에서 보주가 등장하는 곳은 파주 보광사 대웅전 벽화와 이 곳 청룡사 대웅전 벽화에서다. 반야용선의 본질을 분명하게 일깨우는 상징조형이다.

반야용선에 바우덕이 남사당패 승선

청룡사 반야용선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왕생자가 타고 있는 뱃머리 선수(船首)부분과 아미타삼존불이 내영해 계신 중간 부분, 그리고 주악천인들의 공간인 선미(船尾)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선수부분에는 인로왕보살이, 선미부분에는 지장보살을 모셔 배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청룡사 벽화에는 다른 구도로 대체해 뒀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 점도 특징적이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미타삼존불을 비롯해서 모두 37명의 인물상이 등장한다. 선수부분에 18명, 중간에 아미타삼존불 세 분, 선미에 16명이다.

반야용선은 길게 장막을 드리웠다. 장막의 좌우로세 명씩 동자가 번과 당을 들어서 경사스런 의례의 분위기를 고양한다. 선수부분의 핵심적인 탑승자는 왕생자들이다. 왕생자는 모두 13명이다. 삭발스님 네 분과 불자(拂子)를 든 고승대덕 세 분도 보인다. 하지만 특별히 주목되는 사람들은 염주 목걸이를 하고 망건 위에 탕건 같은 그물 모자를 쓴 남녀 여섯 명이다. 남자 셋, 여자 셋이다. 자세히 보면 소고(小鼓) 같은 악기를 들고 있다. 감로탱에 등장하곤 하는 사당패다. 청룡사는 인근의 칠장사와 함께 안성 남사당패의 중심 활동지다. 특히나 청룡사는 여성으로 남사당패의 꼭두쇠가 되었던 전설적인 기예인 바우덕이의 삶터였던 곳이다. 바우덕이는 청룡사 스님들의 손으로 키워졌다. 사당패들은 스님들이 써준 부적을 팔아 사찰불사에 재정적 지원을 뒷받침했다. 그 공덕을 기려 반야용선에 사당패를 승선시킨 놀랄만한 장면이다. 맺고 풀어나간 삶의 인연들이 감동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 벽화는 19세기 후반 남사당패 바우덕이 활동 이후로 제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배 중앙과 선미부분 세부. 배가 곧 용임을 알 수 있다.

주악천인과 공양천인 이례적 묘사

화면의 중앙엔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불께서 내영하신 장면을 담고 있다.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은 왕생자 쪽을 보시고, 관음보살은 악기연주자 방향으로 시선을 처리했다. 관음보살은 백의관음이신데, 정병을 들었다. 백의관음은 제천 신륵사 반야용선도에도 등장한다. 백의의 색채에 조선후기의 시대적 흐름이 담지되어 있다. 대세지보살은 연꽃을 들어 보이신다. 세 분의 입가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잔잔히 흐르고 있다. 삼존불께서 내영하시자 선상엔 연방 향피리, 대금 등이 주도하는 수제천의 선율이 흐르고, 천동(天童)들이 번과 당, 천개를 들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가운데 그윽한 향의 과일공양이 이어진다. 반야용선도에 주악천인과 공양천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극락정토의 즐거움이 우러나온다. 공양천인은 두 명에 불과한데, 주악천인은 무려 11명에 이르러 확장된 삼현육각을 능가한다. 등장 악기도 그만큼 다양하다. 횡적, 피리, 해금, 장고, 비파, 생황, 북, 나각, 아쟁 등 기악합주 편대의 진영을 갖추고 있다.

왕생자들은 일제히 '나무아미타불'의 육자명호(六字名號)를 받들며 극락정토 왕생을 발원한다. 육도윤회의 사슬이 끊기고 불퇴전의 극락세계 성중에 오른다. 〈불설아미타경〉 경에서 석가모니불께서 다음과 같이 증명하신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하루나 칠일 동안 일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염불한다면 아미타불이 권속들과 함께 마중나가서 그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피안으로 가는 저 배, 함께 가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붓다북
www.buddhabook.co.kr
불교, 종합, 쇼핑몰.



서울 성북구 보문로38길11 동일하이빌 B1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3번출구)
붓다북 02. 953. 7181.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현상유지서 탈피해 미래 대안 제시 해야

36. 한국불교의 발자취와 미래

현재 한국불교는 기로에 서 있다. 출가자 수는 점차 줄고 있고 신도는 고령화되었으며 도시, 청년, 지식인층에서 더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교를 포함한 종교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과연 수십 년 후에도 불교는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불교와 사찰에 대한 호의와 애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불화, 불상 특별전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템플스테이가 성공한 것은 전통문화로서 불교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스타급 스님들의 대중강연과 책이 인기를 끄는 것도 불교에 쉽게 접근하는 길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현대인의 고달픈 심신을 치유하는 명상심리, 선과 위빠사나 수행, 사회복지, 유아교육 등 생활 속에 불교가 파고드는 모습도 고무적이다.

한국불교의 현대사는 영욕의 세월로 점철되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법령의 존재로 인해 불교는 국가권력에 휘둘렸고 종교의 자유와 자율성을 잃었다. 통합종단 성립 당시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은 말 그대로 국가에서 불교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하고, 불교단체와 대표자, 사찰 주지는 문화공보부에 등록케 하였다. 사찰에서 공사를 할 때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고, 매년 재산목록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법제는 불교의 정치적 종속을 낳은 일제강점기 사찰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욕의 세월로 점철된 현대불교사

각종 탄압으로 발전 동력 잃어

철학적 사유와 이타행 중심 불교

유토피아 구현 위한 꿈 가져야

한편 불교정화를 거쳐 1962년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한 뒤에도 교계 주류세력은 분열과 갈등을 거듭하였다. 1970년대에는 종정 중심파와 총무원장 중심파로 나뉘어 조계종단 내부의 암투와 분쟁이 이어졌다. 종단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지지를 받아야 했고, 최고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는지 1975년 호국불교 전통을 되살린다는 명목으로 조계종 호국승군단을 조직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성립과정에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주도한 불교 탄압 사건인 10.27 법난이 일어났다. 이는 국가권력이 불교계에 대놓고 철퇴를 가한 초유의 사건으로, 조선 초 억불정책을 시행할 때도 없었던 일이다.

10.27 법난은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날인 1980년 10월 27일 불시에 일어났다. 신군부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불교를 정화해야 한다며 전국의 사찰과 암자 5,700여 곳에 군대, 경찰 병력 3만여 명을 일거에 투입해 대대적인 검속과 체포를 단행했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는 "불교계는 사이비 승려와 폭력배가 난동 · 발호하는 비리 지대로서 자력으로 갱생할 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회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난에 의해 조계종 승려 등 불교계 인사 150여 명이 군과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고 구금되었으며 구타 등 폭력과 고문이 자행되었다.

10.27 법난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알려진 바로는 조계종 총무원 측이 군사정권에 대해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표명하여 신군부의 눈 밖에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신군부가 정권 창출을 위한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하여 불교계를 부정부패 축재로 몰아 비자금을 거두려 했다는 주장도 있다. 신군부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1980년 4월 총무원장에 취임한 월주 스님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종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정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와 함께 정부가 불교계를 옥죄고 단속하는 수단이 되었던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무렵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고 월주 총무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전두환 정권에 대한 지지성명을 거부했다.

당시 신군부의 서슬 퍼런 기세는 하늘을 찔렀는데, 그동안 고분고분하기만 했던 불교계가 처음으로 정권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자 그 싹을 자르려 하였다. 10.27 법난은 12.12 군사쿠데타와 광주 시민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권력을 다잡은 신군부 측이 국민적 저항을 미리 막기 위해 불교를 탄압의 본보기로 찍은 것이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로마 교황청, 미국과 같은 서양의 후광을 업고 있었고 사회 유력인사 중에 교인이 많았기 때문에 설령 정권에 반대했다고 해도 쉽게 건들 수 없었을 것이다.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민주화 세력과 운동권 학생들이 자주 대피했던 명동성당에 공권력이 침투하지 못한 것에서도 그 점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불교는 주요 종교 가운데 가장 만만하였고 비리 혐의와 정화의 명분을 내세우기에 적당한 대상이었다. 이처럼 10.27 법난은 흉흉한 민심을 단속하고 군사정권을 안착시키는 데 공포정국 조성이 필요했던 신군부의 선택이었고 불교는 그 희생양이 되었다.


"宗團운영 自主自律的으로 추진"

宋月珠총무원장會見 宗團당면문제에 언급

「3大事業」 강력히 추진

和合定着…佛敎의社會的 기능 극대화

宗正추대문제 '단일후보 될때까지 관망'

영수회담 합의여부 "나는 모른다"

宗正 추대에 신중 기해

총무원장 등록 지연불구 自律운영

송월주 총무원장이 밝힌 자주 · 자율적인 종단운영 방침 보도(1980.7). 이로부터 조계종은 자주와 자율을 기치로 내세우며 당시 집권세력과 일정한 대응관계를 유지했다. 이는 지금까지 정권과 영합하고 있던 불교계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노선이 10.27 법난의 원인이 됐다는 설도 있다. 〈사진=한국불교 100년〉

이처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을 겪었지만 불교계는 별다른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법난이 있은 다음 해인 1981년에 종정이 된 성철 스님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취임법어를 남겼을 뿐이다.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를 강타한 민주화 운동과 높아진 개혁의 요구 속에서도 불교계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천주교가 정권 교체와 사회 변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해 위상을 크게 높인 것과 비교되는 일이었다. 시대정신과 무관한 보수적이고 구태의연한 종교라는 낡은 이미지가 불교에 덧씌워진 것이다. 더욱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11월에는 국회 청문회를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백담사로 도피하여 2년간 은둔하였다. 법난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그를 절에서 받아준 것을 불교의 자비행이라고 웃어넘기기에는 왠지 찜찜한 구석이 있다. 법난에 대한 어떤 사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덥석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가 산사에 칩거하면서 과연 무엇을 참회하였을지 궁금하다.

한편 사회 민주화의 여파로 1990년대에는 불교계에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 결과 1994년 전국승려대회가 열리고 개혁불사가 단행되었다. 정치권력과 유착해 권위적 방식으로 종단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했던 서의현 총무원장을 몰아내고 승적을 박탈하는 멸빈을 행하였다. 새로 출발한 개혁종단은 종회를 강화하여 입법 · 사법 · 행정의 삼권을 분리 독립시켰다. 또한 재정을 공개해 중앙 집중화를 이루고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이는 전과 같은 총무원장의 권력 독점을 막고 재정 투명화와 교육, 포교사업 정비를 통해 불교의 민주화와 제도화, 인적 수준 향상과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

개혁불사는 1980년대에 불교 자주화와 사회화, 분규 종식 등을 내걸고 일어난 승려대회, 그리고 전국청년불교도연합회, 불교정토구현 전국승가회, 대승승가회 등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 실천승가회 등 교단 개혁세력의 조직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개혁불사를 추진한 교계 신진 세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이끌며 한국불교의 지형을 바꾸려 하였다.

하지만 제도와 시스템 개혁은 그에 상응하는 의식과 목표, 추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승속을 아우르는 사부대중의 지지와 동참이 있어야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제도와 법령 자체의 구조적 한계가 개혁의 발목을 잡았고 그러면서 개혁 의지와 동력 또한 크게 줄었다. 교단의 재정운영과 인사 문제에서 총무원과 종회에 권한이 주어지고 본사의 자율권도 충분히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종권의 향방과 이권을 둘러싼 잡음은 계속되어왔다. 구조 문제의 뿌리는 본사 주지 임면권과 사찰재산 처분권을 총독이 가졌던 사찰령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인사권은 교단에 일임되었지만 불교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줄곧 정부가 행사해왔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여전히 그 잔향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사찰의 주지가 운영 · 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찰들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따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정부와 국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 국고와 도비로 성보박물관을 짓고 이벤트성 행사를 치르며 국립공원 입장료와 템플스테이 지원비 등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선거 때 수수방관하고 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정교유착에 깊이 빠져 들다보면 불교의 자생력을 키워 도시화, 사회화, 대중화를 이루려는 의식이나 추진 동력을 잃게 되기 쉽다. 불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타행과 중생구제의 종교적 본분에 충실할 것인지, 국립공원 관리인 노릇이나 전통문화 지킴이 역할에 안주하며 현상유지에 급급할 것인지 선택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은 불교의 장점을 살려서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불교는 무아와 공, 연기와 같은 철학적 사유와 더불어 비폭력과 평등, 자율과 화합, 이타주의 등을 내세운 가르침이다. 불교가 한국사회에 어떤 화두를 던질 수 있는지, 우리 삶에 어떤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을지 근본적 성찰과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불교는 오랜 세월 한국인과 함께 해온 전통이면서 현재도 한국사회와 더불어 숨 쉬는 현실종교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공복지와 사회적 환원,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에 대한 대승적 동감, 종교적 해법 제시 여부가 불교의 미래를 좌우한다. 나아가 통일 한국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며 불교의 유토피아를 구현하기 위한 꿈을 가져야 한다.

불교는 지난 2,500여 년간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보편적 세계종교로서 아시아 각지에 영향을 미쳤고 인류문명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붓다의 계승자들은 경건한 신앙심과 치열한 수행정신을 가지고 이타행을 몸소 실천해왔다. 그리고 현실세계에 불국토를 구현하고 정토를 찾으려고도 했다. 불교는 한국인의 심성과 내세관을 형성해왔고 고유의 사상과 문화가 창출되었다. 불교의 가치와 비전은 과거의 전통, 현재의 종교에 머물지 않고 21세기 미래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를 충분한 저력을 가진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니까야서 길을 묻다 팔정도(八正道) ⑥

꾸준함이 곧 성장 동력

'여덟 가지 성스러운 수행 길'(八正道)의 여섯 번째는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하도록 노력하여 나아감'(正精進)이다. 팔리어 원어에 따르면 이 말의 핵심주제어는 '노력', 곧 '힘을 기울임'이다. 얼핏 생각하면 그 어떤 분야든 '노력'을 권장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점에서 팔정도만의 독특함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正)'자의 의미인 '바르고 적절하고 온전함'에 그 독특함이 있다. 여기에는 꾸준함이 동반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력하여 나아감'의 면모라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권에서 쓰는 '정(精)'자의 기본적인 뜻은 '쌀을 찧는 것'이다. 벼를 재배하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쌀로 가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자에는 '가공'으로써 '힘을 기울임'이라는 뜻이 있고, 대강이 아니라 곱게 빻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밀' '정교'의 뜻이 추가되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능숙함' '뛰어남' '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는 것이다.

꾸준하게 힘을 기울이는 목적이나 이유가 '올바름 · 적절함 · 온전함'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수행길이 '유익 · 청정 · 해탈 · 열반'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법이자 실천이라는 선언이 된다. 불교에서 '행(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팔리어 '짜리야(cariya)'에 그 연원이 있다. 기존의 팔리어 사전에서는 이 뜻을 '행위 · 행동'으로 옮기고 있지만, 이 말의 어원이 되는 동사어근 '짜르(car)'에 초점을 맞추면 '가는 일'이 더 적합한 뜻이다. 즉, "가야지, 가야지" 하면서 가지 않는 것,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하지 않는 일상의 모습이 바로 '꾸준함'이 흩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지눌이 쓴 '계초심학인문'에는 처음 마음을 내어 공부하는 이들이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생각'(想)이 나온다. 바로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懸崖想)과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이라는 생각'(慣聞想)이다. 첫째는 공부하는 일이 막막하여 자신에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말하는데, 벼랑에 매달려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에 비유하였다. 둘째는 익숙한 내용이라서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들어봐도 도무지 모르겠다는 생각만큼이나 이미 익숙하여 잘 알고 있다고 여기는 생각도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왜 이런 생각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두 가지 생각의 공통점이 바로 '꾸준한 노력'을 미리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 즉 하나는 '가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미리 포기하고, 또 하나는 '가는 일'이 필요 없다고 해서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지눌의 당부에 따르면, 꾸준함의 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려움'에 맞서려는 도전 의식을 내고, '통념'이라 여기는 '기존의 사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성찰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그림 · 나은영

꾸준함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꾸준함의 결과를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어느 곳이든 또 어떤 길이든 좀 더 너른 시선으로 거기에 내재된 의미와 가치를 볼 것이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 줄넘기를 꾸준하게 해서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수준이 낮으니 그만두고 스포츠 센터에 가서 특정의 그 무엇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도 권유의 수준이 아닌 강요의 형태라면, 꾸준함의 가치를 무시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꾸준함의 이면에 불건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면, 길과 길 사이에 우열의 가치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꾸준함의 힘'에 있으며, 그 '꾸준함의 힘'을 오롯이 자신의 '성장과 성숙'(進)에 쓰게 될 때가 아닐까? '정정진'으로의 길 안내는 여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내 回向의 세가지 키워드는 ?"…

〈회향〉

리더에게 聽하다

정여 스님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장



국내외 구호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대표이사 정여 스님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다. 이사장과 대표 직함을 맡고 있는 것만도 10여개가 넘는다. 대표적 직함이 부산 지역 이웃종교인들의 화합을 위해 결성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이다. 이 모임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을 아우르는 부산지역 범종교 단체다. 정여 스님은 "지구촌 행복과 평화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 중 하나가 종교분쟁인 만큼 대한민국 종교지도자들부터 팔을 걷어 부치고 함께 뜻을 모아 이웃종교를 사랑하며 종교간 화합과 협력을 몸소 실천해 보여야 합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원력을 펼쳐온 것이 또 있다. 청소년 포교다. 올해로 18년째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국 회장도 맡고 있다. 특히 요즘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현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오랫동안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정여 스님에게 어린이 포교, 종교화합, 나눔 실천 등에 대해서 물었다. 정리=김주일 기자

정여 스님은… 부산 범어사서 지유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고,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김천 청암사 수도암선원, 현풍 도성암선원, 하동 쌍계사 금당선원 등 제방선원서 안거 성만 했다.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고, 현재는 (사)세상을 향기롭게 대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초대 이사장,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전국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조계종 종정 및 총무원장 공로표창패, 보건복지부 장관 공로표창장 수상,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2013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로 읽는 금강경〉 〈선의 세계〉 〈마음의 풍경〉 등이 있다.

요즘 어린이 포교를 하는 곳이 많질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18년이나 헌신하셨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요?

쌍계사 금당선원서 3년간 정진하다 대중포교를 해야겠단 생각에 부산으로 왔다. 당시 부산에는 어린이 포교열기가 뜨거웠다.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일이다. 그 때 부산에는 불국토 운동이 일어났다. 뜻 맞는 스님들이 어떻게하면 교육과 포교를 통해서 부산불교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 여러 선배 스님들이 중심이 돼서 어린이 포교와 사회복지에 진력했다. 나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다. 당시 부산서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지도자 수련대회를 열면 참가자가 3~400여명이상 됐다. 학생들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참석했다. 한마디로 어린이 지도자 교육이 활성화된 셈이다. 그래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어린이 교사 대학을 설립했다. 조계종 특수대학 1호인 셈이다. 처음 정식으로 특수학교 허가가 난 것은 십년 남짓 될 것이다. 부산에 있는 청소년 불자들이 졸업 하고, 교사대학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어린이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다. 지도자 양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졸업자에겐 어린이교사 2급 자격과 구연동화 2급 자격증을 부여했다. 풍선공예, 레크리에이션 자격증도 부여한다. 1년 과정에 4개의 자격증을 딸 수 있게했다.

일반인도 누구나 입학할 수 있습니까?

물론 어린이 포교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처음에는 지원자들이 많아 서류 심사를 엄격히 했다. 현재는 인원이 감소한 추세고, 관심은 있지만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입학과 공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제도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호응이 높다.

과거에 비해 교육 인원수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지요.

보통 요즘 각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야 2명이다. 거의 외동인 경우가 많은데 하나뿐인 자식을 종교생활에 할애하는 부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요즘엔 절에 가는 것 보다 영어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것이 실속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절에서 반야심경을 외우기보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르치지 못하는 예절, 도덕에 대해 지도하거나 불교적 명상을 가르쳐 인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혹은 영어와 한문도 가르치면 어릴 때 배운 지식들이 살면서 인생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될 것이란 생각에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커리큘럼이 과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는 달리 요즘 와서 실용적으로 바뀐 것인가요?

실제로 학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오지 않는것이 현실이 됐다. 아이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새싹포교, 종교 화합, 그리고 나눔

들에게 영어는 필수적인 교과목이지만 과외나 학원을 통해 배우면 비용이 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 선택해서 절에 오게 해 영어를 가르친다. 또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참선 교육을 시키기 보다는 5분 명상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특히 지구력이 떨어지는 요즘 아이들에게 명상을 어떻게 가르칠까 많이 고민한다. 요즘 아이들은 아주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 아이들에게 명상을 시킨다고 하면서 데려다놓고 꼼짝도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이중고를 안기는 셈이다. 그래서 쌍계사에 있을 때 기공 잘하는 스님 밑에서 매일 3년 정도 수련한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명상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합장하면서 숨 쉬고, 팔을 벌리면서 내쉬고 모으고 하는 등 아주 쉬운 수행법을 고안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불과 5~10분 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가르치다가 지난해 부터 교육부서 허가를 받아 2급 자격증을 받도록 제도화 시켰다. 수련사를 양성하는 지도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새가 날아가는 모습, 노 젓는 모습, 그물 당기는 모습 등 어린이들에게 쉬운 이미지를 연상케 하면서 동시에 호흡을 유도하는 방식의 13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부에 등록했다. 어린이 대상은 5개였지만 중고등학생으로 확대되면서 도합해 13개를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생각에 책도 내고, 테이프로도 제작해 보급중이다.

초창기 어린이 포교에서는 인재양성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노하우를 갖고 지도자들에게 직접 명상을 가르치고 계신데 이유가 있으신지요?

우리사회에서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심지어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물질이 기준이 될 정도다. 그런데 명상을 하면 물질적 욕심과 집착을 초월할 수 있다. 마음에 풍파가 일기 전 본래 고요한 상태,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같은 마음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적멸위락(寂滅爲樂)'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추구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한경쟁서 나와 단 5분만이라도 고요한 마음에 접어들면서 혼란하고 산만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파라미타 회원수가 줄어들어 활동도 위축된 상태인데, 이에 대한 타계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꿈나무들이 어릴 때부터 부처님 사상에 젖어들게 해야만 활성화될 것이란 생각을 한다. 적은 수의 아이들에게 현실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린이 포교는 어려울 것이다. 절에 다닌다는 아이들이 예절도 바르게 변화하고, 영어와 한문도 거침없이 사용하는 걸 보여주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이들을 절에 보낼 것이다. 꿈나무들이 일상생활서 사용할 수 있는 명상을 배우면 다른 종교와는 확연히 다르게 좋구나라는 인식이 들게 된다. 이런 생각들이 모아 져야만 포교가 활성화된다.



지난해 10월 26일 원불교 동래교당 교육관서 열린 부산종교지도자 남북통일 간담회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 앞줄 왼쪽서 세번째가 정여 스님.

20여년 가까이 어린이 포교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이들의 자세가 예절있게 변화하고,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나보다 이웃과 사회를 위한 마음씀을 내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보람이 크다. 벌레 하나 함부로 죽여선 안된다는 자비사상을 익히며 부처님 품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면 포교원력에 대한 환희심이 넘친다.

종교화합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지역 종교지도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활동을 좀 소개해 주세요.

종교가 지구상에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불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대표적 종교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는 끝없는 자비심을 강조한다. 상대방이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끊임없이 감싸주는 게 부처님의 자비사상이다. 부산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천도교 유교가 협회에 가입돼 있다. 처음에는 상대방 종교를 이해하고 알아야하기에 돌아가면서 본인의 종교에 대해 좋은 점과 지나친 점을 교육한다. 이런 좋은 관계가 유지해온지 대략 16년이 됐다.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보람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8년간 어린이 포교에 헌신

10여 년 전 어린이 교사대학 설립
명상프로그램 직접 개발 보급 나서

종교간 화합에 앞장 서다

10여 년 째 종교지도자協 회장 맡아
"종교화합 순회 음악회 개최 큰 보람"

나눔 불사는 평생의 業

'세상을 향기롭게' 설립해 구호 사업
장학사업, 무료급식, 라오스 지원 등

매년 종교화합 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용호동 성당서 함께 음악회를 마련했다. 각 종교의 회관에서 돌아가면서 연다. 이 음악회에서는 각자의 종교 노래를 서로 바꿔 부른다. 가령 불교는 찬송가를, 기독교는 찬불가를 부른다. 행사 1주일을 남겨두고 가야 성당에 스님들이 방문했는데, 성당서 찬불가 연습 소리가 들리니 매우 감동스러웠다. 절에서도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데, 이런 경험들이 쌓여 종교간 갈등이 사라지는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큰 보람이었다.

배타적인 종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협회 운영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라오스 의료봉사 활동중인 정여 스님(왼쪽 두번째).



정여 스님(뒷줄 가운데)이 다문화가정에 쌀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과거 부산에는 한 때 종교간 갈등이 심했던 적이 있었다. 한 기독교 단체가 벡스코서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서 범어사, 안국선원 등의 부산지역 대표적 사찰 이름을 적어놓고 담임 목사가 이 절들이 무너지라고 선창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인터넷에 올랐다. 대략 7~8년 전, 내가 범어사 주지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에 맞서 불교계 청년들이 시민회관을 빌려 총불자 궐기대회를 했다. 그러나 부처님 사상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온다고해도 자비심으로 감싸야지 같은 폭력으로 맞서선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했다. 이후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신 신부님과 목사님들이 범어사에 올라와 많은 기자들 앞에서 그러한 행태는 잘못된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했다. 개척교회 목사들이 생각없이 한 행동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사태가 누그러졌다. 그런 위기를 넘기고 부산지역의 종교간 굳은 화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대북지원단체인 '부산경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압박을 가할수록 힘들어지는 쪽은 김정은이 아닌, 노동자와 농민들이다. 그래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종교인들은 꾸준하게 식량 원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힘든 노동자들이 한 끼라고 먹어야한다는 마음에서다. 북한세계를 와해시키는 방법은 '끊임없는 교류'다. 문화교류, 체육교류, 학술교류, 전반적인 경제교류까지 해나가야 한다. 교류를 통해서 남한의 정보가 폐쇄된 북한사회로 흘러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이 넓게 퍼져나갈 것이다. 교류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주주의 사상이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를 일깨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힘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현 정부가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조성을 논의한 적이 있다. 나는 평화공원 조성의 시작에 불씨를 당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조성해 5일 혹은 7일 장터를 열어 남한 쌀과 북한 잡곡을 맞교환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일 것이다.

국내외 구호사업을 펴고 있는 '세상을 향기롭게' 대표이사도 맡고 계신데 정확한 설립취지는 무엇인지요?

사회복지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교와 사회복지는 같은 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포교와 복지가 같이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설립취지다. 우리나라 모든 사찰서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어린이집, 유치원, 무료급식 중 한 가지씩만 복지를 실천해나가도 불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믿고 인정받는 소중한 종교가 될 것이다. 부처님 앞으로 들어온 공양, 시주물 또한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복지사업에도 진력하신줄 아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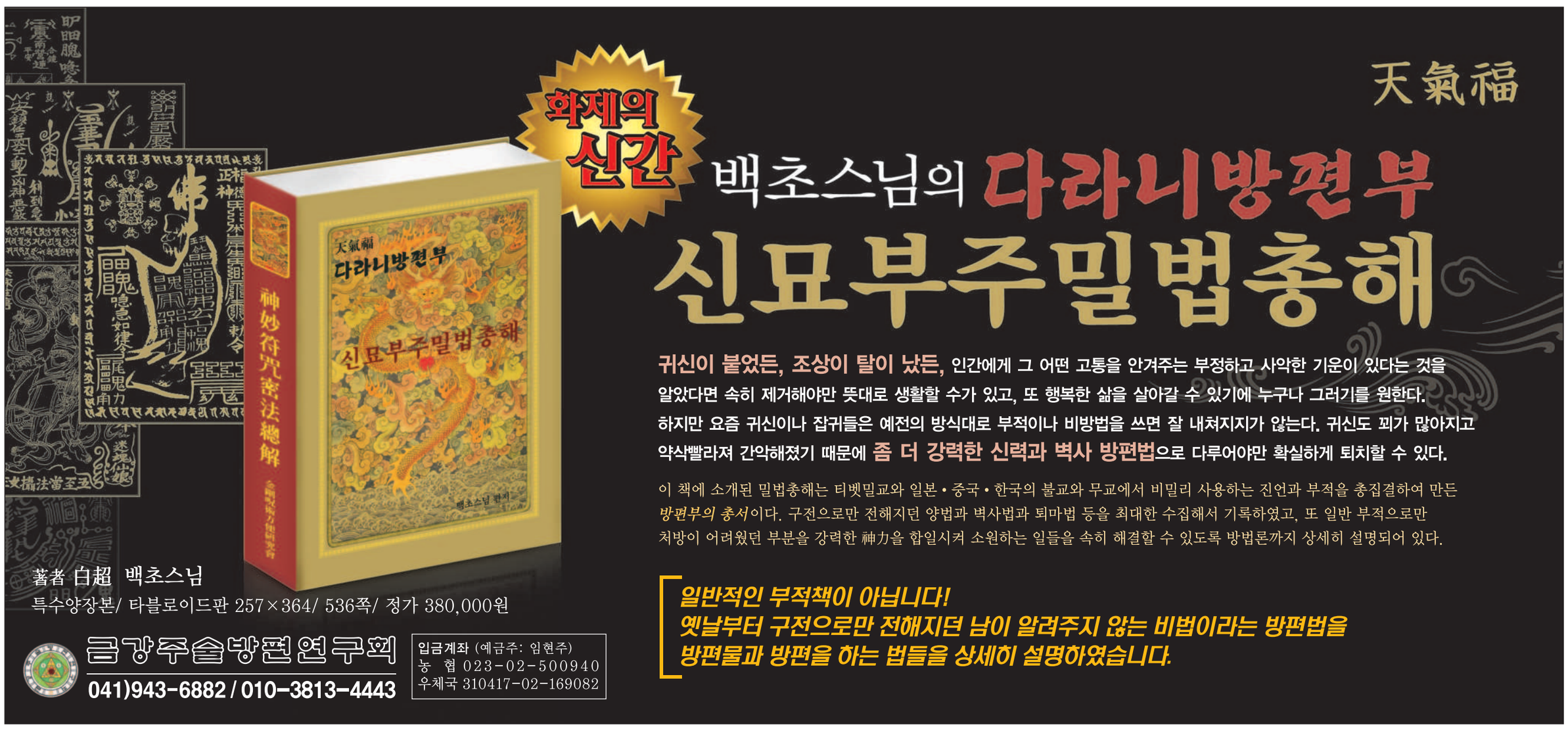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금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으며 복지관도 인연을 맺었다. IMF 당시에는 실직해 노숙자가 된 사람들 60여 명과 5년 정도 지내기도 했다. 또한 꾸준하게 무료급식 활동도 해오다가 현재에는 부산 불교사회복지협의회 초대 이사장으로 활동중이다. 범어사 주지로 있을 때 신심있는 불자들과 스님들을 가까운 양산대 사회복지학과에 매년 30명씩 졸업 시켰다. 불교사회복지를 키우기 위해서 스님들이 직접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분들이 현재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조직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다.

해외구호사업도 단순 지원이 아닌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계신줄 아는데요.

그렇다. 우리가 6.25 전쟁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나라서 원조 받았던 것처럼, 이제 한국 불교사회복지계도 여력이 생겼으니 해외에, 특히 동남아 국가들 위주로 원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짓기, 우물 파주기, 학비 및 영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라오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는 보통 20km 반경에 중학교가 있다. 스쿨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도록 자전거 보내기 운동도 한다. 올해에도 2~300대 자전거를 보내면 그만큼의 아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국내애서는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과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구청이나 사회에서 돌보지 못하는 어려운 이들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원 봉사도 하고 있다. 현재 '세상을 향기롭게'에서 활동하는 봉사 회원은 약 1,300여명이 있다.



베풀어 주는 보시를 실천하는 문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대승불교의 실천강목(實踐綱目)을 하나로 말하면 바라밀행(波羅密行)이라 한다. 이는 보살들의 수행강령이다. 성문(聲聞)이나 연각(緣覺)이 사성제와 십이인연을 통하여 수행을 성취하는 것과는 달리 보살의 수행은 이타의 원력을 상징하는 바라밀다의 완덕(完德)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실 보살들은 이승(二乘)들처럼 자신의 번뇌를 끊는데 치중하지 않고 이타원력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번뇌를 극복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소승과 대승의 차이를 말할 적에 소승은 해탈지상주의라 한다면 대승은 구세대비주의라 한다.

〈기신론〉은 대승 수행의 표준 교과서이다. '수행신심분'에 들어와서 먼저 네 가지 믿음을 설명하고 이어 수행의 다섯 가지 문을 밝힌다. 시문(施門), 계문(戒門), 인문(忍門), 진문(進門), 지관문(止觀門)의 다섯 문을 열어 대승을 수행하는 사람이 이 문으로 들어와야 대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바라밀을 선정과 지혜를 지관으로 묶어 5문으로 말한 것이다. 먼저 본문에서는 시문을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시문을 수행하는가? 만약 중생이 와서 구하거나 찾는 것을 보거든 능력에 따라 베풀어 주어서 스스로 인색함을 버려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만약 액난과 공포와 위급함을 당한

施門 · 戒門 등 다섯 문 열어야
대승불교 수행 비로소 완성돼

자를 보면 자신의 감당할 능력을 따라 무외(無畏: 두려움이 없는 편안함)를 베풀어 주며, 만약 어떤 중생이 와서 법을 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아는 대로 방편을 써서 설해 주되 명리(名利)와 공경을 바라지 말고 오직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보리에 회향해야 한다."

시(施)란 보시(布施)의 줄인 말로 범어의 어원은 다나(dana)이다. 희사(喜捨)라고도 번역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남에게 도움을 주어 이롭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인간의 보편적 실천 덕목이다. 이 보시가 육바라밀을 대표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난(災難)을 당했을 때나 공포를 느끼고 위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신의 능력대로 그 사람을 구출하여 안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 또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아는 것을 방편을 써서 설명해 주되 명예나 이익 또는 존경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오직 자신의 수행에 이로움이 오고 남에게도 이로움이 미치도록 하여 결국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마음을 써야 한다고 하였다.

물질적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재시(財施)라 하고 법을 설해주고 학식이나 지적인 이해를 높여 주는 이익을 법시(法施)라 하며, 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도록 해 주는 것을 무외시(無畏施)라 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세 가지 보시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혜택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인간 상호간에 불신이나 미움으로 인하여 보시의 문이 닫혀버리고, 혜택을 주고받는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보시의 문을 열고 은혜의 통로를 개통해야만 스스로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인간의 완덕이 성취되어진다. 보시는 불교의 근본정신인 자비심을 바탕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해 주고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은 것이 보시라 할 수 있다.

〈보시경〉이란 짧은 경전이 있다. 송나라 때 법현(法賢)이 번역한 이 경에는 37가지의 보시법을 설해 놓고 있다. 기수급고독원에서 비구들을 위하여 설한 이 경은 마지막에는 무주무상시(無住無相施)를 설하면서 금강경에 설해진 바와 마찬가지로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할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고 보시를 할 때는 어떤 마음에서 해야 하는가 하고 묻는 사위국 왕의 질문에 자심(慈心), 정견(正見), 지계(持戒),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참된 보시라 하였다. 삼륜청정계(三輪淸淨偈)라는 보시게에도 보시를 할 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고받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없어진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삶의 쉼표

삶의 절반은 빛이요, 삶의 절반은 어둠이다. 빛만큼 행복하고 어둠만큼 불행했으면 절반의 수확은 거둔 셈이다. 그러나 행복은 빨리 지나가고 불행은 더디게 지나간다.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를 누렸으면 좋으련만 삶은 언제나 고단하고 팍팍한 그림자로 타는 목마름을 더해준다. 성경 구절처럼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불만과 권태는 마른버짐처럼 돋아나고, 헐떡임과 흔들림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는 손톱과 같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키가 자랄수록 졸아들고 나이테 주변에 몰리는 것은 외로움과 쓸쓸함, 등대지기의 절대고독이 어둠처럼 몰려온다.

새벽마다 설렘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만 다람쥐의 쳇바퀴 도는 듯한 변화 없는 삶이 무기력하게 게으름과 타협한다. 주머니가 비어가면 몸도 마음도 으스스 떨리며 감기기운을 닮아간다.

전화 올 일 없고 전화 걸 일 없어 괜스

돈 · 명예에 자유롭지 못한 수행자는 중생
고단한 사람에게 좋은 스승 · 벗 돼야 한다

레 산길이나 공원엘 다녀온다는 퇴직 3년차 교장선생님이 또 다른 분신(分身)이 되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지만 큰 길은 보이지 않고 진흙탕 길에 가시밭길이다. 형제, 자매끼리도 양보해야 예뻐 보이지 다툼이 비롯되면 원수지간이 따로 없다. 돈은 오늘날에 있어 신(神)이 된지 오래이다. 돈은 구원의 밧줄이 되기도 하고, 해결사의 몫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때문에 건강을 잃는다. 명예를 잃는다. 사랑을 잃는다. 돈 때문에 생명마저도 앞당겨 마감하는 비극도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지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흔들리고 헐떡이는 자들을 위해 종교와 신앙은 열려 있어야한다. 지친 자들에게 성직자는 큰 나무처럼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야한다. 더러는 좋은 스승이 되고 착한 벗이 되어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안겨 주어야한다.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삶의 지혜와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바른 길을 일깨워 줘야한다.

그런데도 우리네 주변엔 궤도를 이탈한 부끄러운 성직자들이 부지기수로 널려있다. 가난한 사람은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사찰에서는 헌금 타령과 시줏돈을 강요하는 듯한 권선문이 미운 바퀴 벌레처럼 기어 다닌다. 설교와 설법의 종착역은 역시나 돈 타령이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친척이나 되는 것처럼 천국(극락)에 이르는 길도 돈 흥정으로 쉽게 매듭짓는다. 양심을 앞세워 양심을 파는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공포심을 더해주며 헌금의 무게와 시줏돈의 부피로 영원한 행복을 간단하게 팔아치운다.

성직자는 성직자일 뿐 길흉화복을 해결하고 생명의 구원을 약속하는 메시아는 아닌 것이다. 받는 일에 익숙해져 주는 일에는 인색한게 이 땅의 성직자이다.

성직이 하나의 먹고사는 직업이 되어 갖가지 명분과 구실로 신도를 먹이로 삼는다면 이는 종교도 아니요, 신앙인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닌 것이다.

성직자는 사람인이상 흔들릴 수도 있고 헐떡일 수도 있다. 다만 지치고 가난하며 어둠 속의 사람들에게 신앙을 미끼삼아 교회가 배부르고 사찰이 거드름 피우는 부끄러운 작태는 이제 멈춰야한다.

신도들의 주머니가 비어 있는 경우는 많아도 성직자의 주머니는 비어 있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성직자가 비상금 준비라며, 노후대비라며 숨겨두는 돈의 부피가 늘어난다면 그는 이름이 성직자일 뿐 부끄러운 성직자이다.

비우고 버리며 꾸밈과 조작심을 벗어버린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성직자가 참 성직자인 것이다.

봉사와 희생, 이웃 사랑을 사탕발림의 입 노동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돈 사랑, 명예 사랑에 빠져들어 진정한 의미의 이웃 사랑은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또 살 필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고달프다. 팍팍한 현실에 힘겨워 한다. 그렇다면 종교 신앙은 열려 있어야 하고 성직자는 이들의 벗이 되어야한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지친 몸과 마음을 편하게, 부담없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열려 있어야한다.

돈과 명예, 이성(異性)에 자유롭지 못한 성직자라면 그는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중생일 뿐이다. 삶의 무게에 눌려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에게 삶의 쉼표로 좋은 스승, 착한 벗이 되어야 한다. 삶의 쉼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성직자의 말과 행동이 의문부호로 남는 물음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살은 걸인을 좋은 친구로 삼는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㉕ 중생과 보시의 의미

若有乞者無上菩提便為手執不難。菩薩聞乞者言與我與我心生歡喜。此今æ 便與我無上菩提。世間愚癡眾生若聞乞財則生輕慢不生愛敬。菩薩念言所以名為乞者。多是愚癡眾生以 c心故與作惡名。如是人者乃可名為施者。雖有財物復無施心。雖有財施心復無受者。若具足三事是大福德人。如有貧人得大寶藏心生恐懼。或王賊水火來見侵奪。遇ßd親友而語之言。我今為汝作諸方便令無喪失æ 大歡喜。菩薩得乞者以為善伴。心大歡喜亦復如是°(약유걸자무상보리변위수집불난。보살문걸자언여아여아심생환희。차금즉변여아무상보리。세간우치중생약문걸재즉생경만불생애경。보살념언소이명위걸자。다시우치중생이간심고여작악명。여시인자내가명위시자。수유재물부무시심。수유재시심부무수자。약구족삼사시대복덕인。여유빈인득대보장심생공구。혹왕적수화래견침탈。우치친우이어지언。아금위여작제방편령무상실즉대환희。보살득걸자이위선반。심대환희역부여시。)

번역

만약, 구걸하는 이가 있다면 위없는 보리심을 손으로 잡기에 어려움이 없나니, 보살은 구걸하는 이가 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더불어 내 마음에 기쁨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지금 곧 나에게 위없는 보리심을 주는 것이니까요. 세간의 어리석고 우매한 중생은 만약 재물을 구걸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하찮게 여기고 깔보되 사랑하며 존경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과, 우매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인색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악명(惡名)을 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중생이라는 것은 보시자를 위한 이름으로 여깁니다. 그게 아니면, 비록 재물이 있어도 보시하려는 마음이 없고, 비록 재물과 보시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받는 이가 없게 됩니다.

만약 주는 이와 받는 이와 보시물인 세 가지가 온전히 갖추어졌다면, 큰 복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큰 보물창고를 얻으면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혹 왕이나 도적이나 물이나 불이 보고 닥쳐서 빼앗을까봐 그렇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 방편을 지어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하면 곧 크게 기뻐합니다. 보살이 구걸하는 이를 좋은 친구로 삼는 것으로써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해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여기서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번역했다. 위없는 깨달음의 다른 말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이며, '아뇩다라삼먁삼보리'다.

곧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르는 말로, '위없이 바르고 동등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말이다. 제바라보살은 이런 위없는 깨달음을 주는 이가 바로 구걸하는 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들에게 안겨주는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이들이 추구해야할 보현행의 놀라운 방향이다.

우리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왜 깨닫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대장부론〉을 제대로 읽은 것이리라.

제바라보살은 중생이라는 말은 악명(惡名)을 씌운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중생은 더 이상 중생이 아니다. 탐욕에 빠진 중생이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는 보살이며, 부처라는 것이다.

제 5기
범음 범패 학당 모집
불교의식, 작법, 밸런스테크닉, 실전사주명리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범패의식 : 천도재 및 바라, 오공양작법, 실전강의, 각 사물 등
◆개강일시 : 2016년 6월 27일 오후 3시
◆교육과정 : 6개월 과정, 수시모집 / 수강료 10만원
※매주 월요일 오후 3시 ~ 6시 까지
◆문의처 : 010-5065-5690 / 범패원장 제봉 스님
밸런스테크닉
◆놀라운 10초 통증제어(수기치유)
◆월1회 집중 특강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경력 : 30년 기공수련 / 월회비 : 10만원
◆연락처 : 010-6462-1859 (지도강사: 선혜스님)
실전사주명리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 3시까지
◆지도강사 : 진제스님 (경력 30년 상담 및 지도)
◆6월 27일 개강 / 연락처 010-8948-7948
◆교육장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25번길 27 가동 205호 (중앙시장 수협 2층)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 수기치유, 실전사주명리를 집중 지도합니다.
(사)영남범음범패원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 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
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외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정조 발원한 용주사 불상 만든 최고의 장인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⑪ 계초(戒初) 스님





18세기 후반 계초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754년 곡성 수도사 봉안 목조보살좌상(사진 왼쪽)과 1790년 화성 용주사 목조석가여래좌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45여년 활동하며 불상 조성 · 개금

태원 · 상정 계보를 계승한 조각승

용주사 대웅보전 석가불상 제작

내장사 주석하며 전국적 활동해

18세기 후반에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계초(戒初) 스님은 앞 시기를 대표하는 태원(太元, 泰元) 스님과 상정(尙淨, 常淨, 相淨) 스님을 계승한 조각승이다. 계초 스님은 스승과 마찬가지로 목조로 불상을 제작하거나 개금(改金) · 중수(重修)하였다. 현재 계초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목조불상은 전국에 걸쳐 4건 4점이 조사되었다.

아직까지 계초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상에서 나온 발원문과 불화 화기(畵記) 등의 문헌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조각승 계보 등을 알 수 있다.

계초 스님은 태원 스님과 1745년에 서울 강남 봉은사 영산전 불상을 조성하고, 상정 스님과 1750년 경남 진주 청곡사 대웅전 삼존불상 개금과 시왕상 개채(改彩)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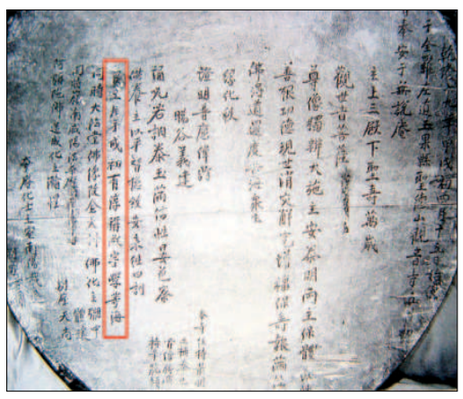
당시 계초 스님은 16명의 조각승 가운데 10번째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불사(佛事)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계초 스님은 수화승(首畵僧)으로 1754년에 전남 곡성 수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유순(有淳) 스님, 칭숙(稱淑) 스님, 우학(宇學) 스님, 등해(等海) 스님과 조성하고, 1755년에 임한 스님이 조성한 경북 청도 용천사 대웅보전 삼신불도에 시주자로 참여하였으며, 1757년에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699년부터 1702년까지 성능대사가 중건한 구례 화엄사 각황전 내 봉안된 불상을 상정 스님과 개금하였다. 각황전 내에 봉안된 세 구의 불상과 네 구의 보살상은 높이 350㎝ 이상의 장육상(丈六像)으로 사적기(事蹟記)에 상정 스님과 계초 스님만 적혀 있지만, 최소한 10여 명의 조각승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계초 스님은 1770년에 경북 울진 불영사 불상을 최성(最性) 스님과 조성하고, 1790년에 경기 화성 용주사(龍珠寺) 대웅보전 불상을 제작하였다. 화성 용주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본사로, '효심(孝心)의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는 정조가 선친(先親)인 장헌세자(莊獻世子, 일명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화산(花山)으로 옮겨 조성한 현륭원(顯隆園)을 보호하기 위해 세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능침(陵寢)을 관리하고, 망자(亡者)의 명복을 비는 재(齋)를 지낼 목적으로 건립된 사찰을 능사(陵寺)라 부르는데, 조선시대 숭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능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유교(儒敎)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효사상이 사회 전반에 퍼져 망자의 극락왕생을 바라던 종교적 믿음은 몇 차례 능사 건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용주사 대웅보전 봉안 불상은 '각항택일(各項擇日)'에 1790년 8월 16일 시작하여 9월 26일 점안하려고 계획되었지만, 〈원문(願文)〉에는 8월 16일 시작하여 9월 30일 완성한 후, 10월 초에 점안식(點眼式)을 거행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러한 문헌을 근거로 목조석가삼존불좌상은 대략 한 달 보름만에 제작되어 1684년에 색난 스님이 만든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에 조성된 불상이 열 달 동안 제작된 것에 비하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불상을 제작한 승려는 〈제인방함(諸人芳啣)〉에 석가여래는 전라도 정읍 내장사 통정 계초(戒初), 서방 아미타불은 전라도 지리산 파근사 통정 봉현(奉絃), 동방 약사여래는 강원도 간성 건봉사 통정 상식(尙植)으로, 〈원문〉에서는 상식 대신에 상계(尙戒)가 적혀 있다. 또한 관음보살을 만든 관허설훈(觀虛雪訓)은 18세기 후반에 불상과 불화를 제작한 최고의 재능을 가졌던 스님이다.

또한 스님은 1791년에 지장암 팔상전 불상을 조성하였는데. 현재 전남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에 대좌만 남아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계초 스님의 활동 시기는 1745년 2월부터 1791년 3월까지이다.



곡성 수도사 봉안 목조보살좌상 조성 묵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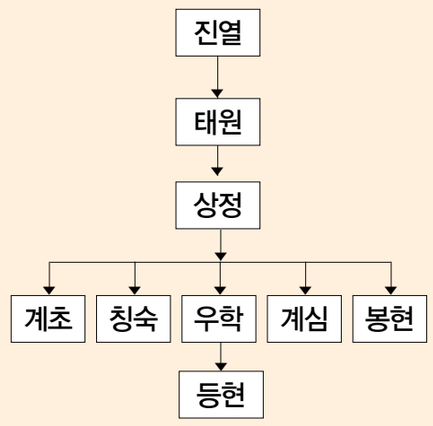
사진제공=곡성군의 불교유적(국립광주박물관, 2003)

지금까지 알려진 발원문과 불화 화기 등을 중심으로 계초 스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스님은 1720년대에 태어나서 1740년대 보조화승으로 활약한 후, 1750년대 상정 스님과 불상 제작과 개금을 주도적으로 하고, 1750년대에는 4명의 조각승을 이끄는 수화승(首畵僧)으로 활동하였다.

스님은 주로 암자에 봉안되는 중소형의 불상을 만들고, 호남과 영남의 주요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중수 · 개금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인 명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계초 스님은 1790년에 정읍 내장사에 머물렀음을 문헌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계초 스님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계심, 봉현, 칭숙 등과 일정한 순서 없이 발원문마다 앞뒤로 순서가 바뀐 것으로 미루어 동년배일 것으로 보인다.

계초 스님의 조각승 계보



따라서 계초 스님의 계보는 진열(-1695-1722-)→태원(-1706-1748-)→상정(-1743-1775-)→계초(-1745-1790-), 우학(-1745-1774-), 봉현(-1780-1790-), 칭숙(-1754-1780-), 계심(-1771-1787-), 유순(-1750-1755-) → 등현(-1780-1791-) 으로 이어진다.

계초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만든 대표적인 불상은 1754년 곡성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곡성 수도사 봉안)과 1790년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의 본존인 석가여래좌상이 있다.

곡성 수도암 원통전에 봉안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전체 높이가 83㎝, 무릎 폭이 59㎝인 조선후기 중형보살상이다. 보살상은 화려하게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쓰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보관의 중앙에는 하강하는 봉황 밑으로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갖춘 화불(化佛)을 배치하고, 측면에는 수평으로 날고있는 용과 화염문 등을 빈틈없이 장식하였다. 보살상은 둥근 얼굴에 눈 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가지고 있다. 따로 만든 손은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우견편단(變形右肩偏袒)으로, 대의 끝은 오른쪽 어깨에 걸친 편삼의 위를 지나 팔꿈치 뒤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수직으로 내려와 배부분에서 부채꼴로 펼쳐져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놓여 있다. 승각기(僧脚崎)는 가슴에서 수평으로 묶어 상단 중앙에 안상같은 마름모꼴 주름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좌우대칭의 주름을 표현하였다. 보살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두르고, 왼쪽 어깨에는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허리까지 늘어져 있다.

용주사 대웅보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전형적인 조선후기 불상의 형태와 의습을 따르고 있다. 석가불은 오른손을 촉지인(觸地印)하고, 왼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펴고 중지와 약지를 손바닥 쪽으로 구부려 엄지와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인은 1684년에 제작된 강진 정수사 조성 목조석가여래좌상(강진 옥련사 봉안)의 왼쪽 팔에 "석가(釋迦)"라는 명문이 있어 조선후기 석가여래의 수인임을 알 수 있다.

석가불은 머리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구부정한 자세로, 앞으로 숙인 머리의 나발은 촘촘하지만, 육계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다.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가 표현되었다. 전체적인 얼굴 형태에서도 석가불은 턱 부분을 둥글게 처리하고,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가 반쯤 뜬 눈, 원통형의 코, 살짝 미소를 머금은 입이 표현되었다.

불상이 걸친 대의는 편삼을 입지 않은 변형통견으로, 대의 끝이 오른쪽 어깨에 반전하는 옷깃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고, 팔꿈치 뒤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있다. 반대쪽 대의는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부채꼴로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석가불은 계초가 1754년에 제작한 곡성 관음사 보살상 같이 복부 바로 밑에 가장자리 의습선이 완만한 S자를 이루고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둥근 양감을 준 주름을 중심으로 좌우에 작은 주름이 대칭을 이룬다. 불상의 뒷면은 목 주위에 대의 끝단과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대의 끝자락이 대좌 위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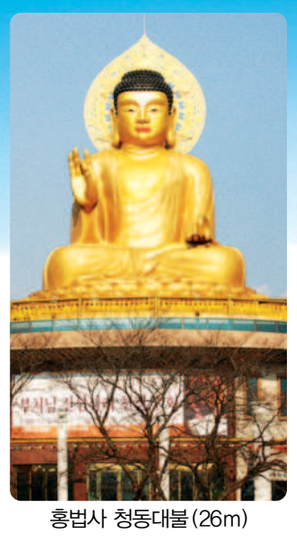
계초와 그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이 18세기 후반에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전남 순천 선암사 불조전 목조여래좌상(1구), 경기 남양주 흥국사 극락전 목조삼존불좌상, 전라북도 고창 문수사 목조여래좌상(선운사 성보박물관 봉안) 등이다.

청동주조 50년 외길 인생

大韓民國 청동明匠

天鐘社

청동불상, 범종,
청동탱화, 단청,
순금불사, 조형물조각



홍법사 청동대불(26m)



수종사 범종

천종사 대표 송창일 명장

불교미술대전 조각부 특선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제전 조각부 특선
서울올림픽기원 불교미술대제전 입선
대한민국청소년 민족문화예술대전
불교조형미술 대상 수상
신지식인 협회장상 수상
한민족 대상 수상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내선길 103-79

대표전화 031)763-7435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가능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여름불교학교에 사용해 보세요

풍경소리, 창작찬불동요 42집 발표



찬불가 보급에 앞장서온 불교문화단체인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덕신)가 찬불동요 창작곡 42째 음반인 '풍경소리 42집' 〈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음반에는 올해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신곡 '내 마음', '봄의 향기', '빗방울이 톡톡톡톡'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찬불가의 새로운 시도로써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성철스님의 1986년 부처님오신날 법어에 노래를 붙인 '당신의 생일입니다', 2016 연등축제 노래로 작곡된 '연등공양 올려요'와 불교계에 널리 사랑받는 곡인 '너와 나'를 리메이크하는 등 총 8곡의 노래와 반주음악(MR)을 담아냈다.

이종만 풍경소리 실장은 "여름불교학교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절 마당에서 사랑과 자비의 연꽃을 키울 수 있는 찬불동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전국 일선 포교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전통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기획 · 연구개발 위한 MOU

6월 15일, 불교문화사업단-한국문화재재단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성효)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서도식)은 6월 15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 3층 보현실에서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및 문화상품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에 대해 국내외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문화상품 관련 사업에 협력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불교문화유산과 더불어 현재 개발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상품을 연구하고, 사찰음식문화 · 템플스테이 · 불교문화 홍보 등의 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문화사업단장 성효 스님은 "전통 · 불교문화 관광콘텐츠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세계화를 통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틀을 다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도식 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문화사업단과 함께 불교문화유산콘텐츠로 문화상품을 기획 · 연구하고, 지속적 정보교류를 통해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아들은 왜 '고향의 흙'을 전했을까

다큐 '브링 홈:아버지의 땅' 개봉 도움 절실

한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오래전 고향을 잃고 떠돌다가 이역만리 타향인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고향을 돌아갈 수는 없었고 결국 미국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소원은 하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아버지의 소원이 먼저 떠올랐다. 그래서 결심했다.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주기로.

다큐멘터리 영화 '브링 홈: 아버지의 땅'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 난민 예술가 '텐진 릭돌'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여정을 좇는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릭돌은 엄혹한 현실의 티베트를 깨닫고 고민을 시작한다.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것은 곧 자신과 같은 모든 티베트 망명자들에게 조국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릭돌이 선택한 것은 티베트 고향의 '흙'을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가져오는 퍼포먼스였다. 공수되는 흙은 약 20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릭돌과 일행은 17개월을 기다리고, 2개의 국경과 50개의 검문소를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들의 여정을 영상으로 담아낸 감독 텐징 체탄 토클리도 티베트 난민으로 국적이 없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절절히 와 닿는다.

"망명자로서 고국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우리 일상의 일부다. 릭돌이 20톤의 티베트 흙을 인도로 가져오는 계획을 처음 말했을 때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수천명의 티베트 망명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인으로서 이 영화를 통해 다른 티베트인, 나아가 세계공동체와 특별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느꼈다."

美 활동 아티스트 텐진 릭돌
티베트 흙 20톤 전달 이야기
'티베트 독립' 메시지 담아내

나레이션에 배우 김민종 참여
출연금 전부 티베트 난민 기부

8월 말 개봉 앞두고 펀딩 중
"韓불자들 관심 · 지원 필요해"

'브링 홈:아버지의 땅'은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소개된바 있지만, 여러 이유로 개봉되지 못했다. 당시 영화를 본 버디필름 측이 한국적으로 제작 · 편집을 감독에게 제안했고, 감독도 티베트 난민 지원을 조건으로 흔쾌히 허락했다.

현재 영화는 오는 8월 말 한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다. 나레이션으로는 독실한 불자로 잘 알려진 배우 김민종 씨가 맡는다. 김민종 씨는 나레이션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연금을 모두 티베트 난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제작사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 영화 '브링 홈:아버지의 땅'의 스틸 컷. 영화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티베트 난민 예술가 '텐진 릭돌'이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게 고향을 찾아주는 퍼포먼스 여정을 좇는다.



영화 '브링홈:아버지의 땅' 포스터.

문제는 개봉 시 필요한 금액이다. 원활한 개봉을 위해서 제작사 측은 현재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https://www.wadiz.kr/web/campaign/detail/8665)을 진행 중이다. 목표 금액은 300만원이며, 오는 7월 9일까지 펀딩이 이뤄진다.

제작사 버디필름 관계자는 "현재 중국은 티베트의 관습, 불교, 문화까지 탄압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아픈 역사와도 닮았다"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국불자와 국민들이 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의 '승무' 공연모습. 6월 23일 열리는 명인명무전 '신명'에서 공연된다.

'고이 접어 나빌레라~' 옛 춤사위에 빠지다

동국예술기획 · 용인문화재단, 23일 명인명무전 개최

승무, 태평무, 살풀이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운 춤사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과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정찬민)은 6월 23일 오후 8시 용인포은아트홀에서 해설이 있는 명인명무전 '신명'을 개최한다.

동국예술기획이 주관하고 있는 '한국의 명인명무전' 공연은 이번 회차로만 91회에 달한다. 1990년 11월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첫 무대를 시작으로 26년동안 어떠한 지원없이 공연을 이어왔다.

90여 회의 공연동안 1500여 명의 전통예술인들이 '명인명무전'에서 자신들의 예술혼을 불살랐으며 130여 개의 전통춤과 소리가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던졌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중 · 소도시를 비롯해 해외(일본, 중국, 미국)무대 등 70여 곳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또한, 동국예술기획은 2000년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연출기획과 일본 오사카 민단 50주년, 광주 MBC창사 30주년, KBC광주방송 창사

91회 맞아 용인포은아트홀서
오은희-승무 · 태평무-이우호 등
전통춤 명인들 한자리서 공연
전문가 해설도 더해져 '눈길'

개국 판소리 다섯마당 기획연출, SBS사극 서동요 음악연출등을 기획해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14년 3월 제2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리더십 수상과 2015년 9월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1회를 맞는 이번 명인명무전의 큰 주제는 '신명'으로, 가(歌) · 무(舞) · 악(樂)의 특징을 가진다. 출연 라인업도 화려하다. 독실한 불심으로 불교 전통무용인 승무를 공연하는 오은희 서울예대 교수를 비롯해 △대금산조의 이생강(인간문화재) △태평무 이우호(중앙대 객원교수) △소고춤 최영란(목원대 교수) △경기민요 강효주(이화여대 교수) △살풀이춤 김지원(단국대 교수) 등이 출연한다. 또한 총예술감독과 해설은 박동국 동국예술기획 대표가 맡는다.

박동국 대표는 "국내외 60여 개 극장에서 공연된 '명인명무전'은 우리 것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데 일조해왔다"면서 "우리 것을 지킨다는 사명과 대중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지금까지의 공연이 헛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멋과 낭만과 감성이 흐르는 공연은 여름 밤 찾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8~2015.6.1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3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4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미산	불광출판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7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8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9	죽기전에 꼭읽어야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변택주	머니플러스
10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절’은 운동 뛰어넘은 수행법 …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방편

깨달은 절수행이란?

청견 스님 지음 | 다르마킹 펴냄 | 1만 5천원



KBS 〈생로병사의 비밀〉과 SBS 〈백세건강 스페셜〉 등 여러 방송 매체에 출연해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의 신작이다. 스님이 1천만 배를 하며 온몸으로 체험한 이야기들을 엮은 책으로, 절을 할 때나 수행할 때 떠오르는 마음을 메모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이 담겨 있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운동)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 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절’은 본래 불교서 수행과 기도의 한 방법으로 활용돼 왔다. 그래서 ‘절 수행’이다. 그러다가 수년 전부터 ‘절’은 건강을 위한 대중적인 운동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절 운동’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 운동에 동참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효능을 체험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그 경험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가히 절 운동 ‘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청견 스님은 그 열풍의 진원지로, 첫 책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이후 15년여 만에 새 책을 선보였다.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이 짧은 분량의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번 책은 이후 수행을 통해 더욱 깊어진 마음의 통찰과 깨달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당연히 ‘절 운동’을 포괄하고 뛰어넘어 다시 ‘절 수행’인 것이다.

청견 스님은 본래 부처인 우리가, 허상인 가짜 나에 속아 참나를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한다. 때문에 완벽하게 깨달은 절 수행을 통해, 본래 부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조언한다. 이를 위해 절 수행시 완벽한 자세와 동작, 자동 단전 복식호흡으로 차크라를 열고 우리 몸을 밝은 에너지로 꽉 채우라고 한다.

21세기 인류 사회는 에고 중생의 번뇌 망상, 시비분별, 잡생각으로 인해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근심 걱정과 불안, 초조 속에서 살아간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르침의 핵심은 순수의식, 참마음, 참나, 불성으로, 또렷이 깨어서 살아가라는 것이다. 절 수행은 이를 위한 확연한 방편이다.

한편 이 책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현대인들은 나쁜 생활습관과 스트레스로 인해 역호흡을 하면서, 온몸에 노폐물과 독소, 가스를 축적하고 있다. 이 노폐물과 독소, 가스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망가지게 한다.

청견 스님은 깨달은 절 수행으로 우리 몸의 막힌 곳을 뚫고 맺힌 곳을 풀어 모든 챠크라를 활짝 열라고 한다.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 독소, 가스 등을 다 빼 버리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 단전 복식호흡이 되어 우리 몸은 최적의 상태가 되고 저절로 수승화강(水昇火降), 두한족열(頭寒足熱)이 이루어진다. 혈액 순환, 림프 순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몸이 밝은 에너지로 꽉 차게 된다.

절, 심신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 입증

“차크라 열고 몸 밝은 에너지로 채워라”

이렇게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듯하게 해 주었을 때, 우리 몸은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고 마음도 평안을 찾게 된다.

또렷한 알아차림으로 완벽하게 하는 깨달은 절 수행은 올바른 호흡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다. 중생의 탁한 기운을 정화시켜 부처님처럼 맑고 깨끗한 기운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인간의 기억과 생각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이게 다 생각, 감정, 오감과 의식이 하나돼 만들어진 가짜 나 때문이다. 가짜 나, 에고 중생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자신은 더 힘들고 더 불안하고 더 괴롭다. 청견 스님은 머릿속의 부정적인 기억들과 가슴속 감정들, 그리고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생각들을 다 놓아 버리라고 한다. 답답하게 가둬놓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한다.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절 수행으로 온전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라고 말한다. 머리 복잡하고 괴로운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시원한 감로수와도 같다. 단순히 건강한 육체를 위한 운동에 머물지 않고,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내 마음의 주인 찾는 것이 바른 마음공부”

스님의 생각

정법안 지음 | 최갑수 사진 | 샘앤파커스 펴냄 | 1만 4천원



한평생 구도의 길을 걸어온 스님들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는 무엇일까?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의 갖가지 물음에 대해 그들은 어떤 처방전을 내줄까?

〈스님의 생각〉은 스님들의 알려지지 않은 일화와 법문을 통해 그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책이다. 저자가 30여 년에 걸쳐 전국 산사를 찾아다니며 직접 만난 여러 스님과의 대화와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소개한다. ‘스님의 생각’이란 제목이 말해주듯, 이 책에는 여러 스님들이 제각각 터득한 깨달음의 지혜가 그들만의 뚜렷한 빛깔로 녹아 있다. 우리가 한세상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등 실로 많은 일을 겪는다. 이렇게 희로애락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 네 인생이고, 이를 반복하는 삶이 바로 윤회가 아닐까. 이 책은 희로애락이 반복되는 인생길에 흔들림 없이 꿋꿋이 내 길을 갈 수 있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공감과 힐링을 넘어 일상서 작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권하는 책이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행복 관계 욕망 근심 사랑 분노 용서 죽음 깨달음 수행 삶의 자세 등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을 보여준다. 스님들의 비범한 생각은 발상의 전환, 관점의 전환을 유도해 인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대하게 한다. 우선,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작은 암자의 비구니 스님부터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등 이미 열반한 큰스님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님들의 가르침을 두루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다.

나병 걸린 여인을 담담하게 품어준 경허 스님, 환속해 수배자가 된 제자를 숨겨주고 생일까지 살뜰히 챙겨준 효봉 스님, 진심으로 하심 하는 법을 체득키 위해 스스로 거지가 된 금오 스님, 한겨울 알몸으로 항아리 안에 들어간 춘성 스님, 신도가 선물한 롤렉스 시계를 도끼로 깨뜨린 성철 스님,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받던 중 의료진을 울고 웃게 만든 틱낫한 스님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여러 스님들의 이야기 끝에 간결한 코멘트를 덧붙여 마치 독자에게 화두를 던지는 것 같이 구성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다.

무심히 내뱉는 듯하지만 스님들의 한마디에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깊은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다. 저자나 신도들의 우문에 스님들이 던지는 현답이 가히 촌철살인이다. 술술 읽히는 103편의 짧은 이야기 속에 어리석음과 무지를 일깨우는 날카로운 경책, 자애로운 조언이 공존한다. 때로는 웃음을 자아내고, 때로는 코끝이 찡해지는 감동을 안겨준다. 불교 교리를 모르는 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명쾌한 언어로 마음과 인생의 본질을 통찰한다. 여기에 여행작가 최갑수의 감각적인 사진을 곁들여 독자에게 사색의 공간도 제공한다.

이 책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일깨워준다. 또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서 행복을 발견하는 법, 타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일러준다. **김주일 기자**

아집 내려놓으면 고통이 떠나간다

내려놓으면 더 많이 얻는다

쉐청 스님 지음 | 센판, 센수 그림 | 최정숙 옮김

담앤북스 펴냄 | 1만 4천원



이 책은 불이사(不二寺)에 사는 동자승 셴얼의 일상을 담은 만화다. 절집을 무대로 한 시트콤처럼 위트 넘치는 만화 65편이 실려 있다.

이 책 저자는 중국불교협회 회장이자 베이징 용천사 주지 쉐청 스님이다.

스님이 동자승 셴얼 만화를 올리는 SNS 계정 팔로워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중국어를 포함해 현재 11개의 외국어 SNS 계정 운영 중). 최근 쉐청 스님은 베이징 용천사에 키 60센티미터의 셴얼 로봇을 제작 · 설치해 화제를 모았다.

‘로봇 스님 1호’인 셴얼 로봇은 〈뉴욕타임즈〉에 보도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로봇으로 진화한 셴얼은 불경을 외거나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사랑이 뭘까요?” “아내 성격이 나쁜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에 각각 “사랑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집착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같은 현답(賢答)을 전해 ‘알파승(僧)’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동자승 통한 현대인의 ‘마음 다이어트’

사부에게 터득한 삶의 지혜 5가지 방법도

이 책에는 동자승 셴얼이 절집서 온몸으로 터득한 인생 비법이 담겨 있다. 셴얼이 사부는 물론 절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 배운 세상 이치와 삶의 지혜는 행복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동자승의 마음코칭이라고 얕보면 곤란하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맞아 그렇지’ 하는 감탄사를 연발한다. 가슴에 오래 새겨두고픈 명언도 가득하다.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동자승 셴얼이 터득한 삶의 지혜 5가지

① 집착 버리면 저절로 즐거워진다
② 아집 내려놓으면 고통이 떠나간다
③ 절망과 희망은 한 끗 차이다
④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
⑤ 즐겁든 나쁘든 받아들이면 좋아진다

화엄경 강설, 드디어 절반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80권본 화엄경 강설
무비 스님의 원력으로 드디어 41권 출간!

최초 최고 최대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화엄경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현실적인 비유와 친절한 강설로 만나 보십시오.



1 ~20권 각권 12,000원 / 21~41권 각권 13,000원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11~20권 세트

실차난타 한역, 무비 스님 한글 번역
11-20권 세트 100,000원

BTN 무비스님의 화엄경 강의
매주 월 14:50(본)/ 수 22:00(재) / 금 20:00(재)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사경 대작불사로 최상의 공덕을 쌓으세요. 담앤북스 02)765-1251

美 올랜도 테러사건에 전 세계 종교인 반응

"무고한 생명에 폭력·살인 안 돼"

전 세계 종교지도자들, 올랜도 총기난사 테러 '애도'

불교·개신교 등 테러 규탄
美 사찰서 촛불 기도회 열어
각 종교 입장 극명히 갈려
개신교, 동성애 반감 극심



6월 12일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난사 테러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추모 행사.

사진출처=가톨릭 위클리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미국 최악의 총기난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물결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테러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 올랜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또한 불교·개신교·이슬람교·힌두교·유대교 등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도 총기 테러사건을 규탄하고, 미국의 불교단체는 총기난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촛불 기도회를 열기도 했다.

네바다 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은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 연합 감리교회에 모였다. 행사에는 케네스 루시 네바다대 종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던M.플라워(연합감리교회 목사), 압둘라힘 (네바다 무슬림 공동체 이맘), 매튜T.피셔(리노 불교센터 주지), 엘리자베스 웹 바이어(북 타호 히브루심의회 랍비) 등 네바다주에서 활동하는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모임을 주최한 라잔 제드는 "이곳에 모인 종교인들은 만장일치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살인 사건의 모든 행동을 규탄한다"며 "우리는 올랜도 나이트 클럽에서 일어난 비극에 깊이 통탄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성직자로서 서로 다른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친절과 사랑으로 폭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뉴욕주 우드스톡에 위치한 블루로터스 불교사원은 6월 15일 진행된 정기 명상프로그램 중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명상과 법문을 진행했다. 이후 우드스톡 광장으로 이동, 촛불행렬을 진행했다.

블루로터스 불교사원 주지인 타일러 루크는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공존하며 산다. 이번 사건에 매우 가슴 아파 하며, 고통을 나누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종교를 떠나 다문화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루로터스 사원에 와서 명상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권 지도자들의 추모도 눈길을 끌었다. 테러범인 오마르 마틴(29)의 아버지의 출신국인 아프가니스탄의 압둘라 압둘라 최고행정관은 13일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내각회의에서 미국에 조의를 표한 뒤 "올랜도 총격 사건은 테러리즘이 종교와 경계와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말해준다"며 '테러 박멸'을 강조했다. 이집트 외무부도 성명을 내어 "가장 강한 어조로 올랜도 공격을 비난한다"며 "이집트인들은 이 힘든 때에 미국인 곁에 서서 진심어린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 종교계의 반응이 다양하다.

새크라멘토베리티침례교회 로저 지메니즈 목사는 사건 발생 직후 주일설교(12일)서 희생자들의 대다수인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감을 표했다. 로저 목사는 "오늘 50명의 동성애자가 죽어서 슬픈가"라 물으며 "오히려 이 사회를 위해 잘된 일이다. 우리는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들의 죽음으로 올랜도는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설교했다.

반면, 이슬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종교적 신념과 연관 짓는 것을 경계했다. 미국 내 최대 무슬림 협회인 '무슬림퍼블릭어페어카운슬(MPAC)'은 "올랜도 총격 사건은 종교(이슬람)와 관련 없는 혐오범죄에 의한 끔찍한 비극"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캐나다 스님들, 빵 구워 이재민 도와

산불 피해자들 위해 빵 판매 수익금 기부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섬 (PEI)의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매주 2000개의 빵을 구워 산불을 피해 임시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증 하고 있으며 빵 판매 수익금은 캐나다 적십자회에 기부했다.

사진출처=가디언닷컴

캐나다 스님들이 지난 5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6월 11일(현지시간)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스님들이 포트 맥머레이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기금 1만1000달러를 모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캐나다 앨버타 주 포트 맥머레이서 산불이 발생했다. 약 1,600㎢로 서울시 면적의 약 3배가 불에 탔으며, 민간인 거주 지역도 산불 위협을 받아 대피한 주민만 9만 여명에 달한다.

이에 만화 '빨간머리 앤'의 고향으로 유명한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Prince Edward Island, PEI)의 대각불교연구회(The Great Enlightenment Buddhist Institute Society, GEBIS) 스님들은 매주 2,000개의 빵을 구워 산불을 피해 임시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기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0일 동안 4천개 빵을 판매하며, 빵 한 개가 팔릴 때 마다 1달러를 모아 총 1만1,600달러를 캐나다 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캐나다 적십자사 PEI 지역 담당 로라 존슨 몽티니는 "이번 포트 맥머레이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존경심을 표했다.

제프리 얀 대각불교회 스님은 "이번 모금 행사를 계획했을 때 스님들 모두 만장일치로 호응을 해 이재민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中서 티베트 불교행사 '무사히' 봉행

6월 7~10일 간쑤성 지역서 '카라차크라' 열려



중국 간쑤성서 6월 7~10일 티베트 대중 불교의식 '카라차크라'가 봉행됐다. 사진은 7일 행사 모습.

사진출처=자유아시아방송

중국 간쑤성 북서부 지역서 티베트의 대중 불교 의식 '카라차크라(kalachakra)'가 봉행됐다.

중국 당국은 행사가 반(反)중국세력의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수백 명의 군인을 배치했지만, 특별한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6월 7~10일(현지시각) 간쑤성 지역서 열린 카라차크라 행사에 수천 명의 티베트인이 모여들었다. 카라차크라는 '시간의 바퀴'란 뜻으로 티베트인들이 샴발라(Shambhala; 히말라야 산맥 북쪽에 현자들이 사는 성스러운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길 기도하는 전통의식이다.

2014년에도 이 지역서 카라차크라 행사가 진행됐으나, 중국 당국은 당시 기습 시위 가능성을 우려해 수백명의 군인을 주둔시키며 철통 경비를 펼치는 한편, 일반 신도들의 참석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장경찰과 군인들을 곳곳에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2개의 거대한 천막이 설치되고, 먼 거리서도 참가자들이 행사를 듣고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됐다. 또한 간이화장실과 비상 응급처치대 등 시설도 갖추며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관련 행사 관계자는 "완벽한 행사였다. 설치한 천막 안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수천 명의 비구와 비구니 스님들이 모였다"며 "중국 각지서 몰려든 불자들을 위해 좌석배치도 대폭 확장했다"고 흡족해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일대의 중국 군인들은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이 종교행사에 간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내 티베트인 집단 거주 지역에는 중국의 강압 통치에 반발하는 시위 및 분신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달라이라마 "무슬림, 테러리스트로 일반화 안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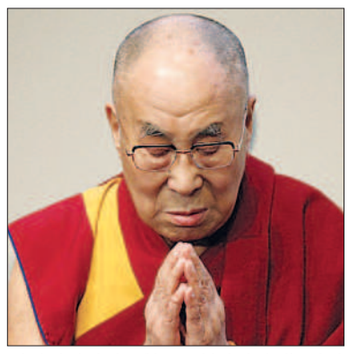
6월 13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서

달라이라마가 미국 올랜도 테러사건에 대해 "모든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봐선 안 된다"고 국제사회에 충고했다.

달라이라마는 6월 13일(현지시각) 영국 통신사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서 "이번 테러는 50명이 한 자리에서 죽어간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달라이라마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인 중에서도 그악한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일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종교 전체를 일반화할 순 없다"며 "무슬림 개인이 테러를 일으킬 순 있지만, 무슬림 전체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달라이라마는 불편함이나 의견충돌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20세기의 소산이라 진단하며,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다. 낡은 사고방식이 반복된다면 문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말했다.



달라이라마가 6월 1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연설에 앞서 올랜도 테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출처=Huffington Post

지난 12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란도에 위치한 게이클럽 '펄스'에서 아프간 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29)의 총기난사에 의해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마르 카틴은 테러 직전 911에 전화를 걸어 IS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했다.

이에 더해 그의 부친 세디크 마틴은 과거 지역방송에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옹호하고, 근본주의 이슬람 정신을 추앙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넉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❶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❷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❸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❹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 110×80×160㎜ 20만원
「대」 140×95×200㎜ 25만원

■ 재질 : 청동







판 매 처

■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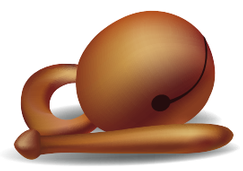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방종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지키라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어려운 곳에서
자기를 구하라.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고치는법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비구,비구니스님, 불자님께
소승은 20여년간 부항, 사혈, 지압으로 신경통, 위장병, 대장염, 혈액순환장애, 초기중풍, 뇌졸증, 고혈압, 관절염, 당뇨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 완치한 경험이 많습니다. 인연되는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경북 김천시 지례면 거물길 379-9 선향선원 신흥사 선 문 합장
054)434-2452. 010-3550-0132
e-mail : chadhyun@naver.com

구궁성명학
23기모집을위한
무료 공개강의
7월9일(토)11시
본 수업 당일 14시부터
좋은이름연구원
02-383-8860
010-770-2248

불상 무료로 모셔 가실 분
삼존불,칠성,약사,탱화
(마산)
010-3428-6665
055-221-7730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행자승
(불교에 입문하실)
을 구합니다
010-2078-9595

공 양 주 보 살 님 모 십 니 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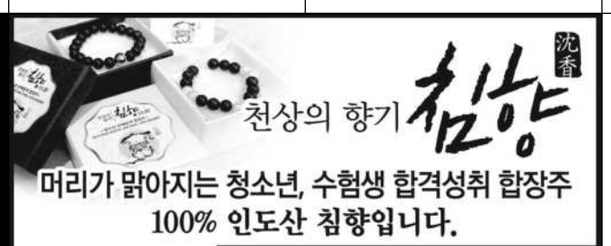
지극정성 기도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경남 거제)
010-7169-98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개인방 준비)
054-771-3170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3156-42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54-0408
010-3422-3232

모든 신을 내생각대로 움직이는 특수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포교원 할 분
서울 화곡동
권리금 없음
건물주가 협조
내용은 상담하세요
최고 조건임
010-5381-1419

수행처 마땅하지 않은
비구니스님 전화주세요
개인방사 드림. 큰방사 서재
및 다실, 욕실, 거실, 주방 (20평)
(양산 통도사 부근 산사도량)
010-4640-4747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5228-787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비구니 스님을 찾습니다
찾는 스님 : 무명 스님 (윤미옥)
대원정사(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계시던 무명스님을 찾습니다.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을 받으신 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 및 가압류, 압류, 개인근저당권 등을 해결하기 않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급합니다. 아시는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010-5445-3792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부산)
051-413-3318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비구 기도스님 모십니다
(염불 기본)
010-6216-4133

천안 아산
사시불공만 보는
사찰을 찾고있습니다
(비구 입니다)
010-2168-2800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세간의 진리는 무상한지라 헷갈려서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지로다.

-수행본기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 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 위치 : 부산 신항만부근,거가대교입구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 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제 26320-2015-00027호
051-863-6622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암자 급 안내 (www.이박사.com)

- 안성시 사찰 / 법당 60㎡, 요사채 108㎡, 주차장 있음
- 토지 1,000㎡, 교통 편리함
- 일주문, 종각은 단청됨, 뒷편산이며 조용함 시설 깨끗하며 아늑함
- 양도가액 : 3억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200평 ◎ 대지 : 6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60외 ◎ 요사 : 40평
◎ 양도 : 25억8천 ◎ 양도 : 20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암 자 안 내

- 위치 : 울주군삼동면보라골프장부근
- 총부지 : 대지 402평
- 건물 : 7동 통나무집, 잘 가꾸어진 멋진정원, 옆 계곡, 주차장
- 최고 위치의 암자
- 가액 : 은행 2억 7천안고 2억 5천 인수

직통 010-2595-7752
부산 만덕 부동산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 버스종점 100m 거리
- 상가 3층, 포교원 총 83평
- 주불(석가모니불), (지장), (관세음), (소불 170)
- 법당 약30평이상,방3,공양실1
- 가액 : 3천5백만원, 월70만원 양도도 가능

010-9376-5633

별장식 임법당 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 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사 찰 임 대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 면적 : 45,800㎡, 포장도로, 주차장 넓음
- 법당, 요사채2동(방12), 공양간
- 심야전기,지하수,산수도
- 화명대교,대동IC 10분거리 고시원 운영도 가능한 곳 임대 가능함(회비)
- 가액 : 7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010-5346-4138.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토지 : 총650평 (대지 410, 임192, 전48) 5필지
- 법당:30평, 산신각, 조립식방,
- 전부강판기와, 산업용 보일러 시설됨
- 요사 46평(심야보일러, 창고포함) 옥외화장실, 정자, 창고
- 산세좋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주차장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 7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9190-58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시 불국역 부근
-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정남향, 대지 200평, 건평40평 대웅전, 요사채, 방 3개, 친견실, 공양간, 화장실3개, 삼성각 15평, 집기일체
- 가액 : 2억 8천(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멋진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 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임 대

-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사찰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정도 됩니다
- 전세금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1, 공양간 1
- 가액 : 3억

010-3508-7710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 속 전통 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중부동 장터 4길
- 평수 약 80평, 모든시설 완벽
- 포교하는 스님들께 최고 요지 장난전화 사절
- 가액 : 500만원에 월 35만원
- 시설비 최고로 싸게 절충
- 직접 방문해 주세요

010-2585-5090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주 택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거무실 3길 72-1번지
- 주택, 건평 15평 정도 원룸식 되어 있음
- 대지 106평, 창고 있음
- 공부스님, 비구, 비구니 혼자 수행하실분 아주 좋습니다
- 가액 : 4,800만원

010-3674-4558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북상주시 시내가운데 한옥 100평
- 법당에 삼존불 (아미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 시설 모두 되어있고, 방3개, 전기가 영업용으로 전기세가 쌉니다. 에어컨 2대 설치
- 가액: 일년에 330만원(사글세) 시설비 천만원
- 오시면 법회 바로 할 수 있음

010-6536-634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석기길
- 대지 536㎡, 주차장, 텃밭661㎡
- 법당, 주방 및 종무소 1, 요사2동 삼존불, 동불, 인등 300등
- 모든 시설 완벽 현 법회 기도 중 인법당
- 가액:1억 5천 또는 전세 1억 가능

1899-1042
010-3679-10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장입구 시내
- 버스 승강장, 장소 최적
- 3층 건물 중 2층 삼존불 108소불, 주방, 욕실, 방1, 창고, 에어컨1, 냉장고1,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주차

010-7583-1235

암 자 안 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산세가 수려하고 조용한 기도처임
- 옛부터 아기 못낳는 사람이 기도로 아기를 낳고 병을 고친 곳으로 이름이 있던곳임
- 건물,법당,산신각,주지실,공양방
- 약 1,200여평, 심야 보일러
- 가액 : 1억 9천만원

010-4197-9195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방문 후 결정)

010-2282-8885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 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7천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 130평 (공유지 포함 20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된 법당 및 요사채(방3칸)
- 후원 9평, 몸만오시면 됨
- 수행도량
- 가액 : 1억 6천만원

010-3895-2258

암 자 안 내

- 충북 보은군 마로면 변둔2길
- 대지 297평, 건평 25평, 임법당
- 심야 전기 보일러, 텃밭
- 전원주택형 토굴
- 가액 : 8천 5백만원

043-543-213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9004-8890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 벤 더



(단)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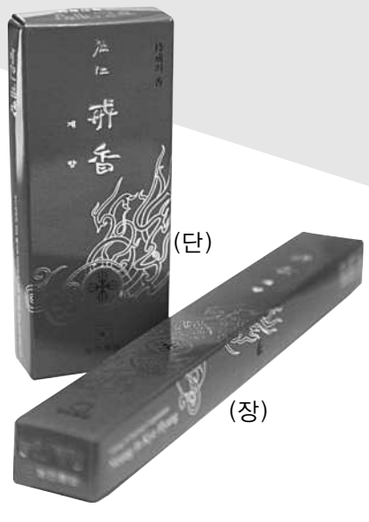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 단(14㎝)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장)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 3개, 주방 1개, 식당, 화장실 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53-651-1514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2〉 두려움을 넘어서 가다 ㊥

자기 인생의 王이 되어라

늘 즐거운 존재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여정을 떠나 훈련을 쌓았고 이제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목적지는 위대한 동쪽의 태양입니다. 태양은 떠올라서 사방에 빛을 비추고 과일을 익히며 꽃을 피워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두려움 없음의 결실은 다음 3가지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두려움 없음은 신뢰의 저수지 같은 것입니다. 이 신뢰는 참본성을 경험함으로써 생깁니다. 참본성을 느낄 때, 우리는 꼬치꼬치 캐묻게 되고 매 상황을 살피고 검토해보게 됩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전사에게 있어 신뢰의 의미란 우리가 행동을 하면 현실에서 명확한 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어떤 점에서 미숙하고 부정확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신뢰의 저수지는 전사가 언제나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풍요로운 은행으로, 결코 메시지가 바닥 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호대로 상황을 펼치려 할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저수지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가져서도, 조건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수지는 말라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이 메시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성공의 메시지든, 실패의 메시지든, 우리는 항상 이 세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이러한 신뢰는 오만한 마음이나 소심함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오만방자하다면, 우리는 스스로 천장에 머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당신이 소심하다면, 스스로 바닥을 치는 것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그것이 저수지의 개념입니다. 고대 중국의 주역을 다룬 〈변화의 서(Book of Changes, or I Ching)〉를 보면 성공이 실패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움 없는 전사는 "봐, 나는 운이 좋아. 난 성공의 길을 가고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전사는 실패했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의 비유는 음악입니다. 음악은 늘 즐거운 존재가 된다는 생각과 연결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즐거울까요? 당신은 태양, 메아리, 그리고 활과 화살로 단련되면서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근본적인 참본성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불들 것 없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근본적인 없음(no)'을 깨달아 의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내려놓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성공을 주든 실패를 주든 아무 조건 없는 '좋음(good)'이라는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한 경험은 음악 같은 것입니다. 리듬과 멜로디로 이루어진 음악은 끊임없이 퍼져나가고 새롭게 재생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아무리 오르락내리락해도 축복받는 느낌은 떠나지 않고 늘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늘 즐거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적 균형감각

신뢰와 감사를 키우면 마침내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안장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불교 가르침에서는 정신적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잠깐 정신을 놓치더라도 알아차리게 되어 자동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말안장에 자세를 잘 잡고 앉으면, 어떤 놀랄 일이나 예기치 않았던 말의 움직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조금은 바라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도, 당신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불가사의함을 성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앉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에 자리를 잘 잡고 앉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번은 누군가 붓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붓다는 땅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땅이 나의 증인입니다." 당신이 말안장에 앉는다는 개념은 이와 똑같습니다.

전사의 전통에서 두려움 없음이란 궁극적인 망상증 속에서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본성이라는 궁극적인 확고함 속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두려움을 정복하는 것은 감수성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 위에 앉으려면 균형이 요구되며 말에 대해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달리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과 완전히 연결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않음이란 그저 매 순간 깨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걸 말합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면 두려움 없음은 무조건적이 되는데, 당신이 성공이라는 측면도 실패라는 측면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금 두려움이 엄습해오면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두려움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참본성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조차도 두려움 없음의 한 표현입니다. 바로 조건을 떠난 참본성입니다.



몸과 마음의 조화

이번 주제는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훈련을 통해 자연스럽게 확장된 주제입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의 만남은 우리의 여정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고유의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 마음의 출발점이고 땅은 우리의 육체와 주변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몸과 마음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하나 되는 느낌의 시작은 앉아서 하는 명상 수련입니다. 명상 수련은 몸과 마음 모두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수련에 있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척추를 똑바로 세워 앉아야 합니다. 어깨를 펴고 목을 편하게 두세요. 불교에서는 왕좌에 오른 왕과 같은 자세로 앉으라고 합니다. 물론 샴발라 왕국의 깨달음을 얻은 왕처럼 앉아야겠지요?

無常 깨달아 의심 집착 내려두면
외부 요인 관계없이 즐거움 누려
쾌락적 행복은 肉身 망각케 해
'신성한 삶' 느껴 몸·마음 일치

몸과 마음이 일상생활과 수행에서 하나가 될 때 신경을 거슬리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극도로 줄어듭니다. 신경이 쓰인다거나 몸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않아서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한 전사가 됩니다. 이러한 조화가 두려움 없는 마음이 되게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져도 때로는 불확실함과 혼란으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없음은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왜 샤워를 하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더러우니까 샤워를 합니다. 더러움이 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싶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전사인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알아차림으로써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참본성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음의 첫 단계에서는 기쁨과 휴식, 행복이 찾아옵니다. 단순한 자기 자신이 될 때 참본성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소리, 냄새, 맛, 촉감 등의 감각으로 이러한 경험을 화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전사의 덕스러움과 품위는 신경증이나 편견에서 자유로운 이런 기본적인 행복감에서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란 기쁨의 한 표현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눈은 반짝이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진 긍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두려움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음의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마음과 연결되게 합니다. 두려움 없음의 마지막 단계는 마음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곳으로 가고 싶든, 무엇을 탐험하고 감지하고 싶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음의 기쁨은 슬픔을 동반합니다. 기쁨은 그것만으로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왜곡된 것입니다. 진정한 두려움 없음은 부드럽고 기쁜 슬픔입니다. 부드러운 슬픔과 온화함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전사정신, 두려움 없음과 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세상을 향해 연민을 갖게 합니다. 당신이 경험한 기쁨과 슬픔은 큰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나누도록 고무시킵니다. 진정한 슬픔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방어합니다. 슬픔과 공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반대로 행동합니다. 쾌락을 좇는 저물어가는 태양의 세상은 부드러운 슬픔을 잊고 그 대신 공격적이면서 '행복(happy)'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행복은 당신이라는 존재,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망각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은 이것과 저것으로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당신은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되받아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히든 말든, 그에 동요되지 않아야 태양이 저무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과 동시에 자신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고 느끼며 더 이상 인생의 끈에 묶여 질질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신성한 마음을 지니면, 우리는 인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당신은 삶을 지배하는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동쪽 태양의 왕과 여왕은 인내의 왕관을 쓰고 수행으로 갈고 닦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참된 자비심의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다스림에는 두 개의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것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또는 친구, 룸메이트는 이러한 왕국을 구성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깨달음의 세상이라는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라 전체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원리에 따라 다스려집니다. 위대한 동쪽의 태양을 다스리는 왕은 전 세계, 온 우주를 선명하게 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일치감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런 겁을 먹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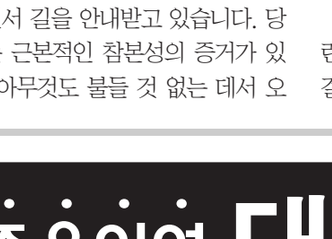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다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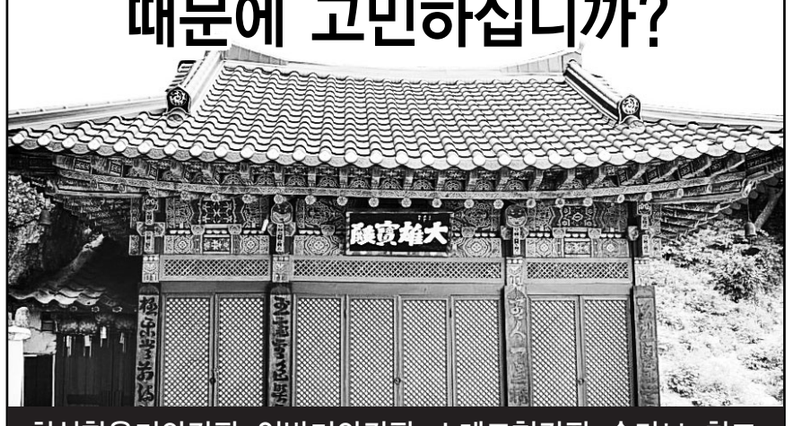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생사(生死)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새가 날고…. 오늘도 1초 1초가 절박하다. 다가올 1초에 대해 아는 이 없고, 지나간 1초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득히 먼 별들의 질서로 아침이 오고, 그 질서의 일 초 일 초는 끊임없이 묻는다. 천년 석탑 난간에서 절박한 집 한 채와 절박한 무덤 하나가 서로 묻고 있다. 천년의 생사(生死)도 알 길 없는 아침에 느닷없는 생사여. 절박한 1초 1초가 흐른다. 석탑 너머 대웅전에서 향이 탄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나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공식'

당장 죽는다 해도 꼭 갖고 싶은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기분 좋음이란 무엇인가? 살아가는 일이 만족스럽고 흐뭇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삶이 만족스럽고 흐뭇한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기분 좋은 삶을 구가할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한다. 행복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막상 행복해지려고 하면, 뜻대로 안 된다. 남의 행복은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내 행복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그러나 행복하기 쉽다. 공식만 알면, 그래서 그 공식을 내 삶의 매순간에 바로바로 적용하기만 하면, 내 인생은 평생 무한 행복이다. 먼저 행복의 정의를 명확히 해두자.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2가지다.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거나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이른다. 이것을 내 스승인 용타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더욱 명징하게 정의해놓으셨다.

'행복이란 욕구하는 것이 소유(성취, 실현, 구현)될 때 일어나는 긍정적인 느낌' 이라고. 즉 '행복=소유/욕구' 라는 말이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은 많은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다. 탐심(욕구, 욕망, 욕심) 때문이다. 전쟁도 싸움도 질병도 부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내 욕심이 빚어낸 인과율이자 결과물이다. 내가 원인을 짓지 않는다면 결코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분노도 없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오직 하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혹은 못했기 때문이다. 욕구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틈새에서 행복공식은 작동한다. 내가 욕구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갖게 돼 행복해진다. 그러나 내가 욕구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못할수록 나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 불행해진다.

반대로 내 욕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만 가져도 내 인생은 한없이 즐겁고 흐뭇해진다. 조그만 소유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해한다. 소유에 비례하고 욕구에 반비례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공식인 것이다.

이때 바른 지혜가 필요하다. 소유의 폭을 너무 넓게 잡지 않는 것이다. 소유의 동심원을 너무 확대해 내 인생 끝까지 지름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지금 현재(here & now)' 로 잘게 쪼개서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용타 스승님께서는 소유를 완료형소유와 미래형소유로 구분해놓으셨다. 완료형소유는 글자그대로 내가 이미 이룬 것이나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미래형소유는 앞으로 내가 성취(구현)해나가야 할 것(일)들을 말한다.

그 결과 완료형소유에 집중하면 내 인생 이미 갖고 이미 이룬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지족(知足)행복' 에 눈 뜨게 되고, 미래형소유에 집중하면 앞으로 내가 이루고 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 '구현(具現)행복' 에 눈뜨게 되며, 행복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갖고 싶은 욕구를 최소화하면 할수록 그 어떤 그물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볍고 흐뭇한 '초월(超越)행복' 을 구가하며 기분 좋고 흐뭇한 삶을 살게 된다.

불행한 이유는 단 하나 뿐
원하는 것 갖지 못했기 때문
욕구 적을수록 작은 것에 감사
'죽음명상' 통해 욕심 덜어내야

> "소유와 비례, 욕구에 반비례
> 그것이 바로 행복의 공식"

하지만 말이 쉽지, 행복공식이 저절로 내 것이 되진 않는다.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닦음은 필요하다. 노력도 하지 않고 날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는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욕심(욕구, 욕망) 닦음법이 있다. 죽음명상이 그것이다.

죽음명상은 현재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집착거리(욕심, 욕망, 욕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봄으로써 그 집착거리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실제로 명상을 통해 지금 현재 죽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다보면 지금 현재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불필요한 집착덩어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처음엔 잘 안될지 모른다. 더 살고 싶다는 생명에 대한 애착도 있을 것이고, 아직 못해본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죽기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젊은 나이에 지금 죽기에는 한스러움도 많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명상을 하는 이유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충분히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집착덩어리(욕구, 욕망, 욕심)를 낱낱이 드러내 그 집착덩어리로부터 벗어나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죽음명상을 '실감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 내 앞에 정말 죽음이 닥쳐왔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실감나게 죽음명상을 해야 진짜 효과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죽기 싫은(혹은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지금 내가 왜 죽기 싫은가? 죽음이 두려운가? 그 마음을 찬찬히 직면해보는 것이 죽음명상의 진짜 목적이다.

실제로 한번 해보자. 자, 지금 저승사자가 바로 눈앞에 왔다. 저 저승사자를 따라 나는 지금 당장 문밖으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승사자를 못 따라 나서겠다. 그때 그 상황을 정확히 직면해보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나를 문밖으로 못 나서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저승사자를 쉽게 따라나서지 못하는가?

그렇게 직면하다보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집착덩어리(욕망, 욕심, 욕구)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법은 간단하다. 용타 스승님께서는 그 답을 선명히 제시해주고 계신다. 죽음에 대한 내 관점만 바꾸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어떤 여자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대로 연애 한 번도 못해보고 죽으면 한이 맺혀 어쩌나. 안 돼. 이대로 도저히 죽을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어차피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겠니. 차라리 지금 빨리 죽어서 다음 생엔 그 여자 친구와 아예 부부로 태어나버려야지. 그러면 더 좋지 않겠어? 하고 생각을 전환해버리는 거다.

그렇게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없는' 이유를 '죽을 수 있는' 이유로 하나하나씩 전환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슴이 툭 트이며 한없이 자유로워지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행복의 극치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선물로 드린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노여움을 끊게 되며 남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자기를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하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된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02호 현대불교
2016년 6월 22일(5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도 없다!

(지난 호에 이어서)

질문자1(남)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스님의 법을 청하겠습니다.

큰스님 말이 안 들리는데요.

질문자1(남) 불교의 사상을 흔히 공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공이라 하면 '사람의 마음을 비워라.' 하는 공도 있고,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공도 있습니다. 공의 크기를 말하면 '너무 커서 밖이 없고 작게 말하면 너무 작아서 안이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공 말고 또 하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을 믿으며 하늘을 종교로 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공과 하늘이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동일한 거냐? 이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 네,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너를 알면 이 세계가, 이 우주가 하나로 돌아가는 섭류를 알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각자 주처의 주님은 나한테 있는 거고, 이 이름이 주처의 주님이다 하는 것도, 부처님이다 하는 것도, 자부처님이다 하는 것도 통틀어 이게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몸뚱이도 이 생명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부처라고. 자기 정신계를 말하죠. 그것이 통신이 되면, 그래서 부와 자가 통하면 이 전 우주의 과거 미래 현재가 같이 하나로 돌아가는 섭류를 알 수 있느니라. 너무 커서, 과거 미래 현재가 삼합이 한데 합쳐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섭류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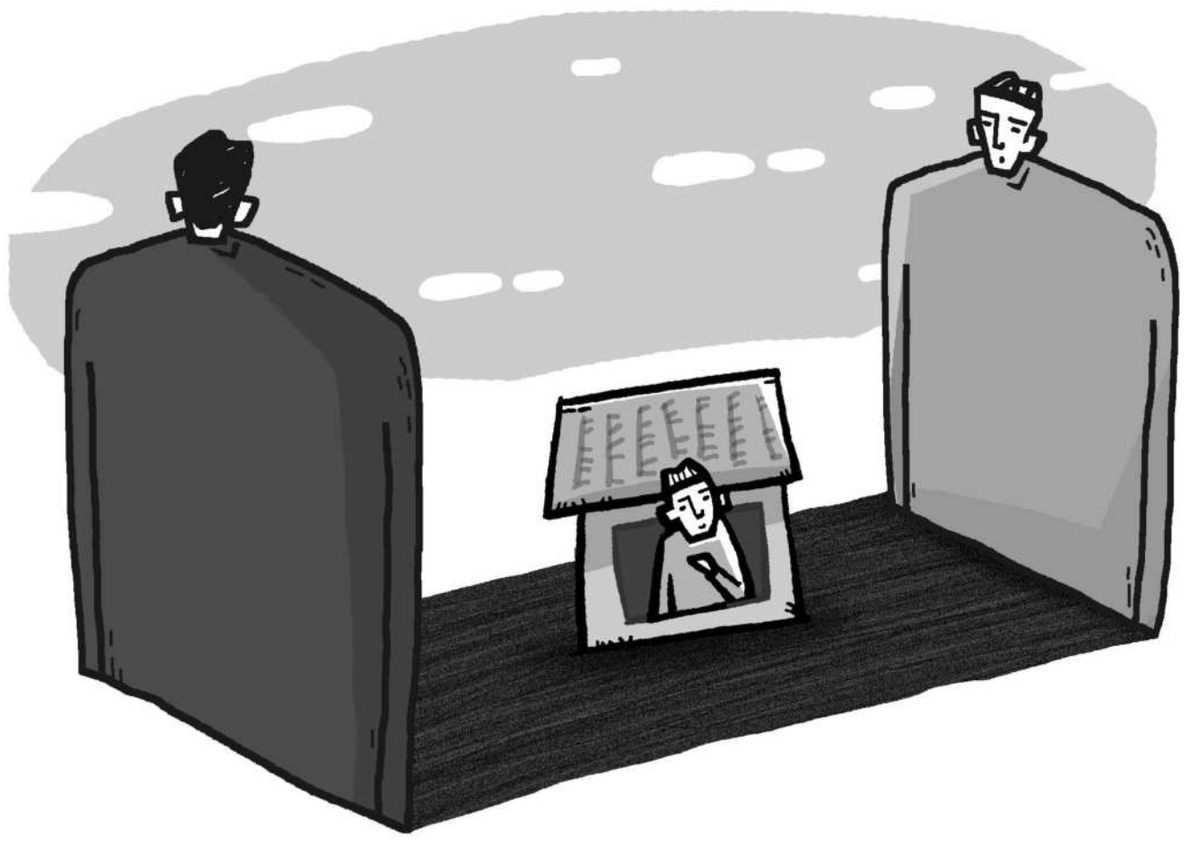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거를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하나님이라고 했고 주님이라고 했고 우린 자부처라고 했고 또는 일체제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진리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아니 되니까요. 지금 우주 전체가 하나로 돌아갑니다. 하나로 돌아가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하나마저도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부터 주님을 알고, 자동차가 육신이라면 자동차 속의 운전수가 바로 주님이니까 주님부터 알아 가지고 보면 모두, 일체가 눈이 뜨여서 보이고 귀가 뜨여서 보여요. 절름발이가 절름발이가 아니고요. 그렇게 될 때에 과거나 미래나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죠. 그럼 또 누가 없으십니까?

사회자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그랬죠. 이 몸뚱이가 다 공했다고. 여러분이 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하지 않았나. 만날 보는 사람만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듣는 것만 항상 듣고 있겠습니까? 가는 데만 만날 갑니까? 말 한마디 하면 그 말만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또 우리는 어떻게 길에서 와서 길을 걷다가 길로 가는가.' 이런 점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점이 있어야 그런 안도 생기고 그런 물리가 터지고…. 여기 여러분이 나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계신 게 아니죠. 오히려 저보다 일등 나가게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다.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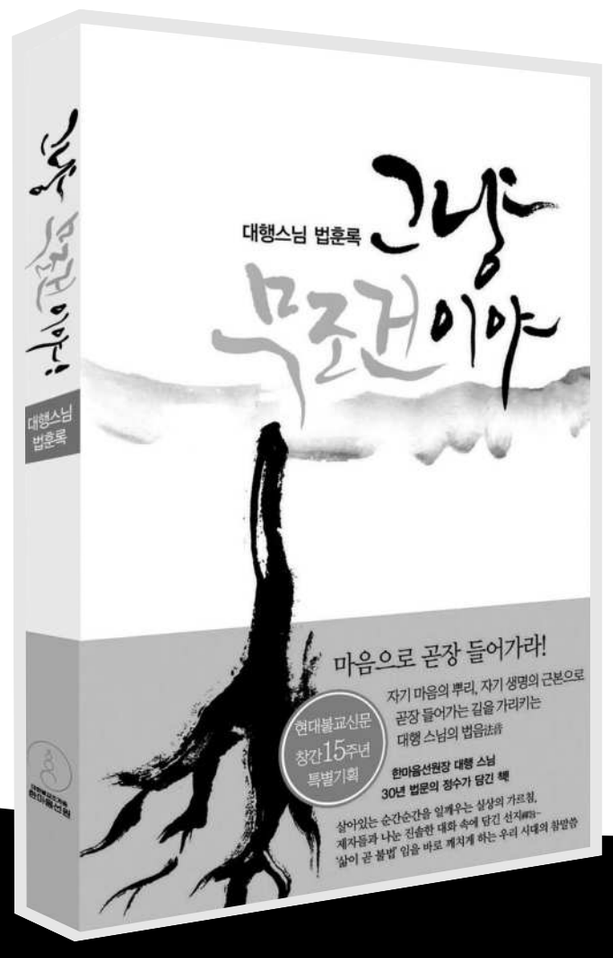
하지만 종교를 가지고 이거니 저거니, 이게 옳으니 이게 옳으니 하고 따지는 데는 난 아주…. 그러고는 모두 배척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입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네가 짧아져라. 길면 긴 대로 네가 길어져라. 둥글면 둥근 대로 네가 둥글어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생자부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틀리면 전자의 그렇게 틀렸을 때 내 모습으로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전자의 내가 모자랄 때 '아이, 저 모습이로구나.' 하고 마음을 쓰면 공부도 좀 유순하고 자식들도 잘 길러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 보면 하나 끄집고 둘 보면 둘 끄집고 이렇게 하니,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그냥 찰나에 들어가는 이런 공부인데 그냥 이것 말하고 저것 탓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언제 저승에 들어가서 저승 공부를 하렵니까? 살아서 열반을 못한다면 죽어서도 열반이 아니 되죠. 경전을 통해서 통달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론에 불과하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성 해탈이라야 그게 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롭고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좀 더 그것을 생활로써, 누구를 막론해 놓고 그렇게 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못난 제가 말을 했든 잘난 내가 말을 했든 말한 사이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대로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뚱이에서도 많은 중생들이 더불어 같이 있는데, 생명들이 같이 있는데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니게 사생의 종류에 다 부처님께서 인연을 맺으셨느니라." 했죠. 하여튼 모든 거를 생략해서 뛰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치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사시면서 이 몸에 대해서 아픈 것도 그렇고, 아픈 것만 낫게 해 주는 게 부처님 법은 아니거든요. 이 전체죠. 아까 얘기했듯이 입력이 잘됐으면 잘된 대로, 입력대로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감기가 들어서 좀 쿨럭거리다 보니까, 하루 한나절을 견뎠는데 말이에요, 죽겠습디다, 그것도. 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삥긋이 웃으면서 '어, 네가 아파 봐야 남도 알 수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아주 종류별로 다 이러는구나 하는 거를 알아챘죠. 그러니 가만히 보면 그냥 길에 오다가도 이 다리 운동 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다시 한 번 얘기하겠는데, 관하면 통신이 돼서 이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사대로 하달이 된다 이겁니다. 하달이 되면 거기에서 직접 또 대뇌로 해서 정수에 입력이 된다. 입력이 되면 입력되는 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속에서 소임을 맡은 자들이 전부 작용을 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한테는 50%만 하게 하고 50%는 자신들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떤 애들은, 지금 갓 낳아서 일주일도 안 된 애를 수술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서울에서 듣고 왔어요. 세상에 애가 백 일이 될 때까지는 신명이라고 할까, 자기가 죽어서 형성되는 이런 때는 자기 형성을 자기가 해 놓고 백 일까지는 알게끔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린애를 그렇게 해서 어른들이 잘못되게 해서 죽이고 그래요. 50%의 상식만 있었다면 왜 그렇게 합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공부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린애가 거꾸로 서도 자기가 관해서 바로 세워 가지고 순산해요. 그거뿐이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대 자랑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입니다.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이 내 마음을 한마음으로다가 흡수해서 조복을 받아라!

☞ 25면에서 계속

부처님께서는 무의 과학자며 유의 과학자며 유와 무를 겸비한 이 세상에 정말 찾아보기 드문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 삼천 년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죽고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삼천 년 전에 계셨던 분이 지금 현실에도, 여러분이 살아 계시니까 계신 겁니다. 풀포기 하나만 살아 있다 하더라도 불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영원하다. 사월 팔일 날도 '과거에 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그냥 현실에 계시다는 얘깁니다.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러시겠지만 말이에요. 인제 그만 해도 됩니까? 한 거는 없지만 말이에요.

질문자2(남) 저는 불법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스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느끼고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초월해서 하나 즉, 이 찰나가 모두 연결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간단히….

큰스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 거기 좀….

질문자2(남) 예. 여러 말씀을 듣고 지금 제가 의문 나는 거는요, 지금 저희들, 중생이 시급하게 알고자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급한 게 지금 깨달음 아닙니까? 그 깨달음의 마음을 어떻게 설법해 주실는지요.

큰스님 지금 이렇게 묻는 분이 깨달았다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깨닫지 못했다 하고 생각지도 마시고요. 아까 얘기를 해 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소로 비유해서 얘기했고요.

질문자2(남) 예, 말씀 들었습니다.

큰스님 소로 비유해서 얘기했고 누구나가 다, 즉 말하자면 내 마음을 한마음으로서 조복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을, 즉 말하자면 한마음으로다가 흡수해서 조복을 받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진짜로 한마음을, 이게 얕다 높다 이런 게 없이,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게 없이 그대로 주인공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하게 되면 그냥 이 한 찰나에,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좇아서 그 의식들도 다 따라 준다는 얘깁니다.

질문자2(남) 그러면 지금 현재 네 마음에 따라서 네가 의식이 바뀐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렇죠. 찰나에 바뀌고 찰나에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질문자2(남) 그럼 시급하다는 건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큰스님 시급하죠. 모두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자2(남) 그거를 깨달아라 그런 말씀입니까, 그럼?

큰스님 그거를 깨달으면 우주에 관한 것도 깨달을 거니까요.

질문자2(남) 아니, 제 의문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시급한 게 있다는 그런 설법을 하시면서….

큰스님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시급한 게. 하하하. 지금 마음 하나로다가 그 많은 시급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질문자2(남) 예, 알겠습니다.

질문자3(남)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큰스님 하이고, 하하하. 아, 여기서 뭐, 예수 믿으면 어떻고…. 한 주머니 속에서 삽니다, 지금. 예.

질문자3(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예수님 믿은 지 한 7년 됐고요, 예수님 믿고서 죄 용서함 받고 새사람 돼서 이제는 거듭나고 천국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을 다 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큰스님 뭐요?

질문자3(남) 불교에 구원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이런 설법회에 와 봤는데요,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한테는 좀 붕 떠 계신 거 같아요, 말씀들이요. 저희들 삶 속에 적용하기가 힘들고 저희들이 실천하기 정말 힘든 그런 말씀 같은데 과연 불교에는 구원이 있는지요?

큰스님 나는 절대로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시는데 붕 떠서 사십니까? 붕 떠서 살지 않죠?

질문자3(남) 말씀이 좀 붕 떠 있는 거 같은데….

큰스님 아니요. 여러분이 이 마음에, 한마음이라고 그러지만 마음은 너무 많아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쓴 거를 내가 내 마음으로 했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볼 때는 붕 떴다고 그러는데 붕 뜨는 생각으로 댁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질문자3(남) 대행 큰스님은 구원을 이루셨나요?

큰스님 구원을 얻었느냐고요?

질문자3(남) 예.

큰스님 허허, 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왔죠!

질문자3(남)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으셨나요?

큰스님 나로부터! (대중 웃음과 박수)

질문자3(남) 나로부터요?

큰스님 아, 내 종자가 아니라면 싹이 날 수 있겠소?

질문자3(남) 하지만 어….

질문자1(남)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을 좀 할까 해요. 지금 토론의 열기가 아주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교를 믿었다는 분이 나오셔서 의문을 제기하시기에 제가 제 체험을 말씀드려서 이분의 의심나는 것을 좀 풀어 드릴까 하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이 공에는, 이 무지무지하게 큰 공에는 극락이 있습니다. 극락을 크고 또 부처님의 자비로운 품의 천의 눈으로 봐 갖고 하늘에도 억울한 길에 헤매는 중생이 있다면 건져야 되겠다 해서 천의 손을 주셨고 이래서 부처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공을, 부처님을 믿었느냐. 공은 하늘에 있는 천당보다도 높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 믿는다 그겁니다. (대중 박수)

큰스님 지금 말씀들 잘 들으셨죠? 그런데요, 사실 부처라는 이름은요 너무 많아서, 이 몸뚱이를 본다 하더라도 더불어 같이 있으니 바로 부처라고 했던 거고요, 또 더불어 같이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니까 부처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고 부처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진리에는. 그리고 아까 구원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대답해 보십시오. 똥을 누가 대신 눠 줄 사람이 있는가, 먹어 줄 사람 있는가, 잠을 자 줄 사람 있는가, 아파 줄 사람이 있는가, 죽어 줄 사람이 있는가, 깨달아 줄 사람이 있는가? 이거 여섯 가지를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자3(남)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질문자4(여) 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라 함은, 여기서 비워라 하는 것은 무엇이 있기에 비우는 거지 없는 상태에서는 비우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보면 아까 스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듯이 고정관념이라든가 영원하다는 것은 없고, 우리 인간이 10년 전 사진의 내 얼굴과 지금의 내 얼굴이 다르고 세 살짜리 자식이 지금 열몇 살이 돼 가지고 어른이 됐듯이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집에들 가셔 가지고 반야심경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교회에 나가신다고 지금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버려짐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 무엇인가? 지금 아주 간단하게 스님께서 지금 내가 똥이 마려운 게 급하지 예수님이 급합니까? 배가 고프면 내 배가 고프지 예수님의 배가 고프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질문이고 지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온 거지, 그런 말장난하러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전생의 인연이 없고 복이 없으셔서 지금 진리의 인연을 맺지를 못하셨는데 지금의 씨가 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꽃이 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모든 진리의 말씀이, 스님께서 지금 한 시간 넘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다 있으니 집에 가서 한 번 읽어서 모르시면 수 번, 백 번 만 번 읽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교회를 가서 10년을 넘게 다니고 집사라는 증명을 받고 예수님 밑에서 일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제 의심이 끝나지 않아서 공부한 결과 불교라는 거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복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중 박수)

큰스님 저이가 멋진 말 한마디를 하고 가는데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할 것도 없다고, 허허허.

하나님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참 멋진 대답을 하고 갔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도 없다고요. 이 모두가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여섯 가지 그렇게 대신 못 받고….

부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선장이 배를 끌고 가는데, 즉 말하자면 몸뚱이는 배로 비유를 하셨고 또 몸뚱이 속의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심의 불성은 바로 선장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래 파도가 치고, 우리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치는 바다에 그저 배를 타고 건너는 것과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이 선장에다 의지를 하고 선장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둘 아니게 항상 같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파도가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는 데까지 갈 텐데 그냥 이 보살저 보살, 하나님 찾는 사람은 하나님, 또 부처님 찾는 사람은 부처님, 그냥 중구난방으로 붙이고 그냥 아우성을 치니까 가야 할 자리까지 갈 수가 없죠. 배가 뒤집히고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해명을 해 주실 테니까 여러분 자체가 자유스럽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이건 에누리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자기가 그렇게 똑바르게 했는가를…. 남한테 이익 하게 하고 해롭지 않게 하고 헛다리 짚게 안 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이 공법으로서, 무의 공법으로서도 오고 감이 없이, 함이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두가요.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큰스님 그런 말을 댁이 하니까 말이지, 여기 미국에서 "나는 지금 하혈을 해서 못 견디겠으니 어떡하면 좋습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된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래, 안됐구먼. 알았어." 이렇게 그냥 하지, "내가 해 줄게." 이런 것도 없어요, 부처님 법에는.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선 벌써 아시고 한 찰나에 가고 옴이 없이, 또 그 사람을 응신으로서 구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는 건데 뭐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묘법이라고 안 그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다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한 겁니다. 그 마음 하나 안으로 굴리는 거, 안으로 믿는 거 요것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큰스님.

※위 법문은 1997년 6월 13일 L.A.지원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네가 짧아져라.
길면 긴 대로 네가 길어져라.
둥글면 둥근 대로 네가 둥글어져라.



불자 세상보기

윗물에게는 맑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석 길 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성으로서 군대에 다녀온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국민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돈을 많이 벌어 지금까지 고생만 한 부모님을 잘 살게 해드리고 싶다."

최근 탈북자 가족으로서는 처음 군복무를 마친 젊은 대한민국 청년의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는 자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의 말은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화제가 되었다. 청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 하지만 호의에 찬 기사를 올린 언론의 입장에서는 대견하다는 심정이 묻어난다. 그만큼 그와 같은 경우의 젊은이가 흔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란 말에서 젊은이의 의무감이 드러난다. 동시에 그러한 의무감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젊은이의 말투에서 권리 요구자의 당당함 또한 묻어난다. 거기에는 면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 감당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마쳤으므로, 최소한의 권리 요구를 할 수 있게 된 당당함이 존재한다.

의무를 다한 당당함. 그 당당함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의무로부터 오는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당당함이기 때문이다. 귀한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더욱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공감만큼이나, 그 공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한조각의 분노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공감에는 역시 씁쓸함도 묻어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 희박해지고 있다. 상대방을 흔쾌히 인정하는 풍토가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요모조모의 의심과 따지기가 당연한 것처럼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해진 것이 우리 사회 작금의 현실이이다. 부정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의 세태다. 그러한 세태는 계층과 계층간의 문제가 발생할 때 더욱 심해진다. 특히 사회의 상류층이 대상이 될 때 그렇다. 왜 그럴까?

상대방을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 상대방을 흔쾌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첫 번째, 서로 자주 모여서 정의(正義)를 강론하면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화합하여 서로 공경하고 순종하여 어기지 않으면,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세 번째, 법을 받들고 하지 말아야 할 바를 알아서 그 제도

탈북인 1호 군필자 미담 기사는
한국사회에 던지는 경종 메시지

를 어기지 않으면, 곧 노소(老少)가 서로 화목하고 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공동체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의 일부분이다. 화합을 강조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화합의 전제조건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다. 서로 자주 모여서 정의를 강론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지향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윗사람이 윗사람답게 아랫사람이 아랫사람답게 처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법을 받들고 금기를 지키며 제도를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무에 충실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민해보자, 우리 사회는 그러한지? 혹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의무를 다한 것이 기사화되어 언론에 회자되는 대한민국이 부처님 말씀에 어울리는 그런 공동체인지?

그런데 권한이 없는 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강제당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권한을 가진 자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의무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무의 불이행과 권한의 남용에 따른 사회 내부의 박탈감은 대부분 의무를 행하는 자에게서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비롯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회자되는 것이다. 응당 윗물은 맑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탈북민 출신 1호 군복무 이수자의 발언과 언론기사는 우리 사회에 대한 경종이기도 하다.

발언대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사회 불평등과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양극화 시대에 불교 사상이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의 주요 발제를 모아보았다. 〈편집자주〉

종교내 양극화부터 해결을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종교는 인간이 탐욕을 일으키지 말고, 거짓된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므로, 이 탐욕을 수행을 통해 없애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인간 마음의 탐욕은 수행을 통해 다스릴 수 있지만, 자본(기업)의 탐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는 자본이 노동자로부터 왜곡되게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인간의 평등 · 평화 · 공존 정신에 맞춰 사회에 환원할 것을 권유하거나, 국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 종교는 탐욕스러운 자본의 형태를 닮아가고 있다.

IMF를 거치며 소수 재벌 중심의 이윤은 넘쳐났지만 그 이면에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살인적 경쟁, 높은 자살률이 우리 사회가 야만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종교는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기는커녕, 거꾸로 자본의 속성을 따라가는 실정이다. 즉 덩치가 큰 교회와 사찰, 성당으로 신자와 재정이 몰리고, 작은 종교시설은 근근이 유지해나가고 있다.

종교는 평등과 평화 세상을 위해 개인에게 욕심을 없애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친다. 가르침의 범위가 신자 뿐 아니라 사회의 특권 및 지배 세력과 자본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내용은 분명해야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의 탐욕은 교훈적이고 선언적인 몇 마디 말에 그 탐욕을 없앨 가망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쇼카 불교복지 사상 펼쳐야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아쇼카 왕은 경전에서 설해진 불교복지국가 모델에 가까운 국가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 비록 오늘날 대한민국이 불교국가가 돼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평등 사상은 대한민국 곳곳에 전달돼 오늘날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 대승불교의 중생구제란 바로 이러한 불교의 정신을 의미한다. 첫째 불교는 평등에 관한 불교교리를 불자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 불교의 상당수 불자들은 불교교리와 괴리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일부 불자들은 경전에 나타난 불교복지국가의 이상에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불교복지국가의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자가 될 수 없다.

둘째 불교는 평등의 모범이 돼야 한다. 특히 정치적 · 경제적인 측면서 불교교단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전에 나타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교단 내에서 실현돼야 한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는 출가자가 있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결과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재원 마련 등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한다. 가칭 불교연금을 구상해볼 수도 있다.

셋째 불교는 사회에 불교의 이상을 주장하고 불교의 이상이 현실 정치 및 경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교의 정치참여가 아닌 교리의 전파를 통한 설득이 필요하다. 불교교단의 모범을 보고 사회가 따라하는 분위기부터 조성해야 한다. 세계적 차원서 불교의 평등사상이 전파되고 실현될 수 있을 때 이 땅은 불국정토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다.

社說

10·27법난 명예 회복, 재단 설립부터

2008년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해 피해자 명예회복에 나섰다. 8년간의 활동으로 96명 피해자 인정에 52개 사찰과 단체도 피해단체로 인정받았다.

이런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가 6월 20일 해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을 바꾸게 된다. 새 체제하에서 심의위는 역량이 다소 축소될 예정이다.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격하되고 이에 따라 구성원도 한단계 씩 낮아진다. 하지만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교과서 수록, 기념일 제정, 언론사 정정보도, 대국민 홍보 등 더욱 중요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현행 특별법 상 심의위 활동의 근거가 미약하기에 재단 설립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데는 기념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2008년 이후 5차례의 입법발의마다 기념재단 설립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강창일 의원의 발의로 기념재단 설립이 가시화됐지만 막판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10 · 27법난이 발생한 지 36년이 흘렀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가 많은 만큼 재단 설립을 통해 법난에 대한 지속적인 기념사업이 전개돼야 할 것이다.

종교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압이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또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한국 돈황학 연구 발전 기대한다

중국 돈황은 동서문화의 십자로이자 불교 문화의 보고이다. 돈황을 통해 많은 문물과 사상들의 조우가 이뤄졌다.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돈황학은 세계에 있다(敦煌在中國, 敦煌學在世界)"는 중국의 문화교류사 연구 석학 지센린(季羨林)의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실크로드 중심지였던 돈황은 중국에 있지만 역사 · 문화적 연구 가치는 세계적이라는 의미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의 인문한국(HK) 공동 사업의 결과물인〈돈황학 대사전〉한국어판이 가져올 학술적 영향력에는 많은 기대가 된다.

1998년에 출판된 〈돈황학 대사전〉은 사실상 돈황학 연구 성과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 240만자의 한자가 사용됐고, 표제어만 6925개에 달한다. 표제어를 살펴보면 석굴 · 설법도 · 경변도 · 불교 전적 · 사경 등 불교 관련 분야부터 정치 · 법률 · 경제 · 복식 · 음악 · 천문학 · 민속 · 종교(도교, 경교, 마니교 등)까지 모든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있다.

또한, 채색 그림 123폭과 텍스트에 딸린 삽도 626폭 등 수많은 사진과 그림 자료들을 첨부돼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벽화나 유물의 모든 부분을 세밀히 답사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높은 연구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보니 두 대학 연구소에서 번역에만 3년여가 걸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황학 대사전〉 한국어판 발간은 인도 · 중국 · 실크로드의 불교문화를 연구하는 데 기초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문화 연구에도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불교 문화의 교류 연구는 고대 한국인의 발자취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다. 〈돈황학 대사전〉한국어판 발간을 통해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문화 교류사 연구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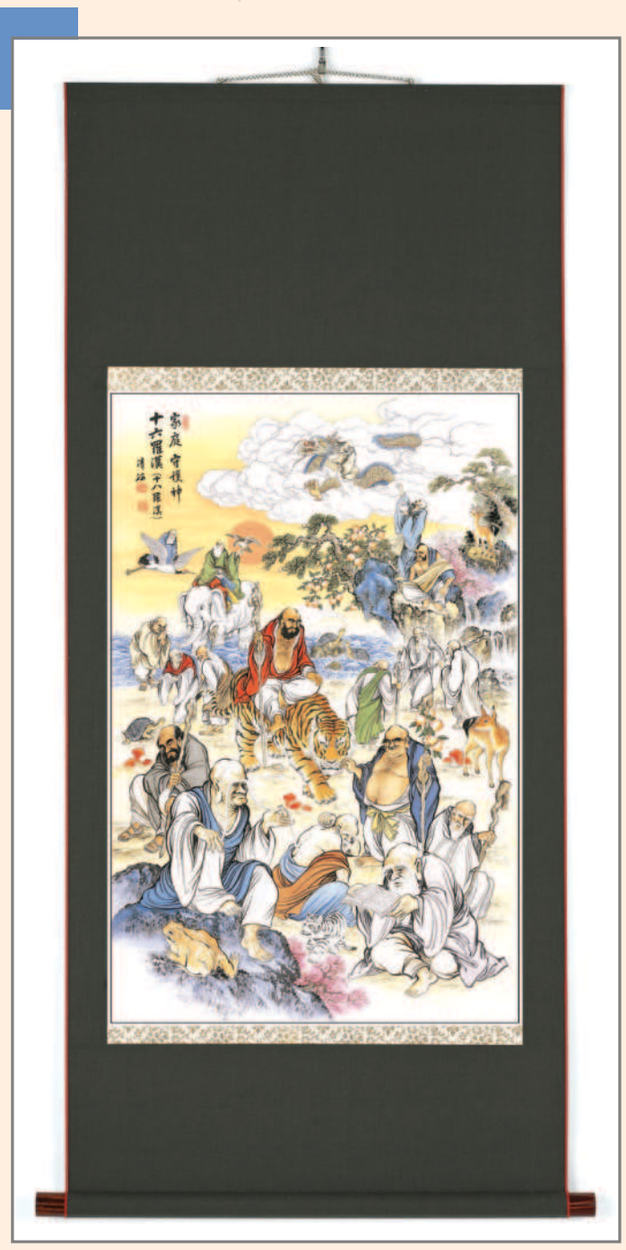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16나한도(18나한), 포대화상도, 달마도

이상 작품들은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 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불교카렌다를 통해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직접 세가지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나한도(18 나한)



나한(아라한의 준말)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자 이시다. 이들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현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 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한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분 한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영원한 수호신으로 모셔 주기를 바랍니다.

• 길이 120㎝ × 폭 54㎝ • 가격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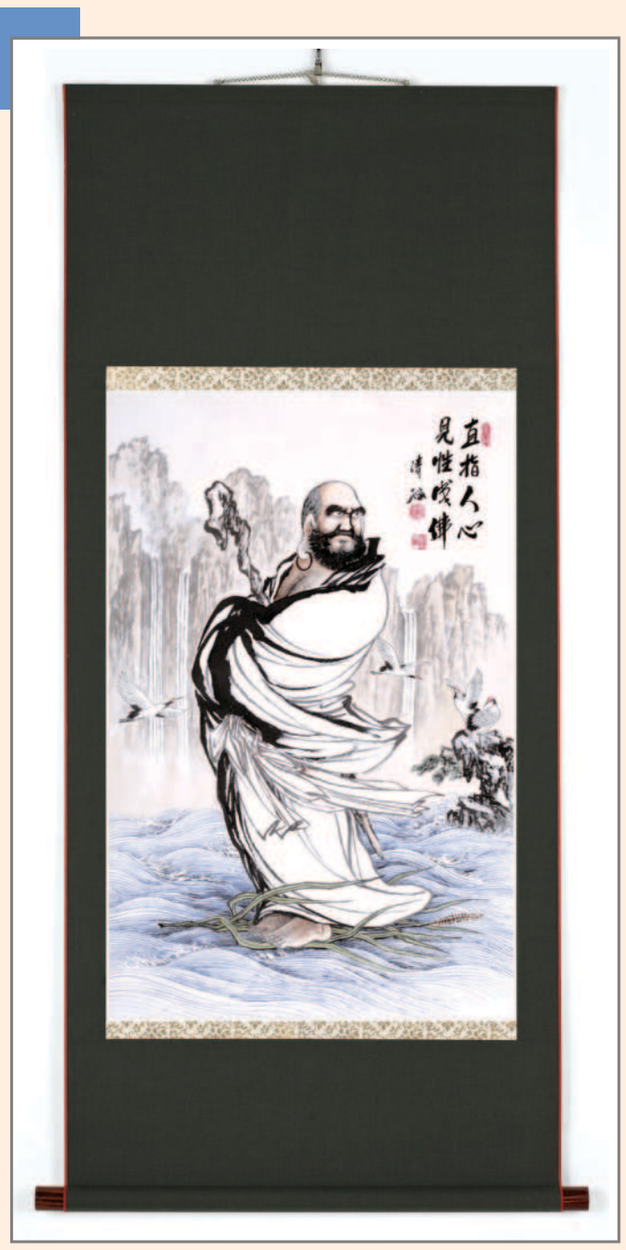
포대화상



커다란 포대자루을 메고 다닌다고 하여 포대화상이라고 하며 포대자루 속에는 모든게 다 들어있어서 중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꺼내어 준다고 합니다. 천하을 다 포용할 수 있을것 같은 커다란 배와 언제나 활짝웃는 모습의 포대화상은 미륵불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생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하여 복달마라고 불리기도 하고 복을 상징하는 대표되는 모습입니다.

16나한도을 구입하시는 분에겐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보내 드립니다.

달 마 도



달마대사 께서는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유명한 소림사의 9년동안의 면벽 참선은 달마대사께서 부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감히 법접을 할수 없을것 같은 강직한 모습의 달마대사의 모습은 발산하는 강력한 기로 인해 잡귀가 물러나고 삼재가 소멸되어 가정이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